

이종권 '미주한국불교' 편집장
"불자들 성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포교사의 역할"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9월 5일) · 주간

제961호 2013년 10월 9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장아함경〉

스스로 자신의 안을 관찰하라.
성냄과 원한의 근원이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내라.

폭로·헐뜯기·괴문자… 선거악습 재현 '눈살'

34대 총무원장 선거도 특정 후보 겨냥 비방 이어져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이전 선거와 같은 폭로와 상호 비방전의 폐해가 재현돼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내부 고발로 포장한 허위 사실 유포다. 이런 허위 사실 유포는 유력 후보인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에게 집중돼 있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기호 1번)에 대한 사회법 제소 등으로 멸빈 징계를 받은 정한영(성호 스님) 씨는 자승 스님의 출마 선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승 스님의 승적 등을 공개하고 폭로전을 시작했다.

이후 정 씨는 SNS와 보수 인터넷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과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을 선동했다. 최근에는 〈진흙 속에 핀 연꽃〉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전국 교구본사에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승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즉각 판매 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으나 발간 직후 정 씨는 출판사를 폐업해 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기호 4번 장주 스님과 적광 사미(본래 법명 운광)도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주 스님은 10월 2일 종책 발표회 자리에서 자신의 소설 〈동토의 조계사〉를 배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중인 폭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가상의 스토리를 붙여 놓았다.

또한 불특정인이 자승 스님의 의혹을 보도한 〈신동아〉9월, 10월 호를 무작위로 배포해 자승 스님 선대위가 이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 선대위 대변인 일감 스님은 "후보 스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부분이고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비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응하지 않는 것은 네거티브한 '이전투구'를 할 이유가 없어서다. 비방과 폭로가 아닌 종책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선 스님의 승적에 대한 허위 사실도 괴문자를 통해 두 차례 유포됐다. 괴문자 배포가 흔히 범죄에서 사용되는 대포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결국 보선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괴문서 유포자를 잡기 위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보선 스님 선대위는 "소위 대포폰은 불법도박장운영자, 상습도박자,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인터넷 사기범이나 무엇을 은닉해야하는 범죄자들의 도구다. 총무원장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왜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교사한 것이 누구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청정승가 문화와 공명선거를 해치는 파렴치한 해종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보선 스님 선대위는 불법행위자는 물론 이를 교사한 자도 조사를 벌여 처벌해 줄 것을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95차 중앙종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참석 스님들이 반야심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개회되지 못했다.

장주 스님, 적광 사미 등
대놓고 자승 스님 공격
보선 스님 관련 괴문자
선대위 법적 고발 시행

勢 싸움위해 종회 열고
참석 않자 상호 '디스전'
휴대폰 문자 서비스 통한
종책 알리기는 참신해

선거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유력 후보 간 세력 싸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은 10월 1일부터 5일 간의 회기로 제195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보선 스님 측 종회의원 30명의 발의로 열리게 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자승 스님이 현직 총무원장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총무원장 공명선거의 건'이 올라왔다.

이에 반발한 자승 스님 측 종회의원들은 등원을 일제히 거부했고, 결국 제195차 임시회는 개회를 하지 못한 채 유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회기를 채우고 폐회됐다.

이에 대해 보선 스님 선대위는 "의혹들의 안건을 호법부로 조사 이관하고 '34대 공명선거의 건'도 본 회의서 폐기키로 했다. 그럼에도 자승 스님 선대위 소속 스님들은 혹시라도 회의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질 것을 걱정해 임시회 개회를 막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자승 스님 선대위는 "공명선거를 가장해 종법이 정한 총무원장의 자격마저 시비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임시중앙종회는 그 자체로서 초유의 일"이라면서 "종회의 유회는 공정한 선거를 염원하는 종도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맞불을 놨다.

다만 두 진영에서 감성 마케팅을 적용한 문자 메시지로 종책 알리기에 나선 것은 폭로와 비방으로 얼룩진 조계종 선거전의 새로운 선거문화로 부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력과 폭로전이 아닌 종책선거 대결을 촉구하는 종도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이번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 해달라"며 "종도들의 마음과 의지를 금권과 권력이 아닌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종책을 통해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567돌 한글날 특집



한글날에 신미대사 찬탄하는 이 없네

속리산 복천암에 모셔진 신미 스님의 진영. 한글 창제의 주역에 스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설가 정찬주 씨는 신미 스님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속리산 복천암 월성 스님을 만나 신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다.

월성 스님은 "신미 스님은 범어와 티베트어를 통달했다. 훈민정음은 범어의 모음과 자음, 소리글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사회는 신미 스님을 너무 모른다. 이는 실록을 기록하는 유생들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8, 9, 31면



새롭게 조성된 잠실 불광사 전경. 중창불사를 진행한지 8년만에 완공됐다.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 대작불사로 불광사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광사, 제2의 도약 '바라밀 횃불' 재점화

10월 13일 중창 불사회향… 19~20일 국제포럼 개최

도심포교의 효시 불광사가 신축 법당을 준공하면서 제 2의 도약을 준비한다. 중창불사를 선포한 지 8년 만이다. 불광사는 이를 계기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불교를 로드맵삼아 현대에 걸맞는 불광을 만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불광'은 이미 불교계에서는 브랜드화 된 지 오래다. 탄탄한 존립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전부터 전개해왔던 교육, 출판, 포교, 복지, 장례 사업 등 다양한 활동 덕분이다. 1974년 광덕 스님이 발행한 월간 〈불광〉이 모태가 된 불광사는 당시 새로운 불교를 갈망하던 불자들의 주도로 불광법회가 창립되면서 이어진 불광법당 건립운동의 결과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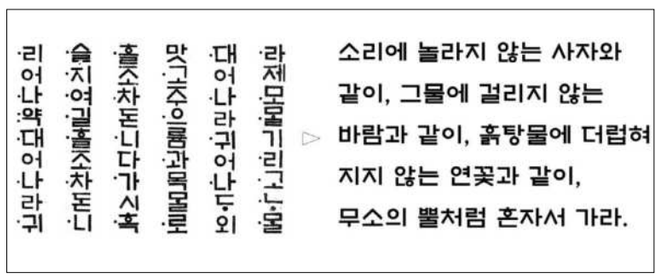
조계종 전통문화글꼴 '석보체' 개발

10월 8일 '불교와 한글' 학술대회서 일반에 공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전통문화글꼴 '석보체'를 개발 10월 9일, 한글날 무료 배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0월 8일 567주년 한글날을 기념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한글'의 관계를 조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석보체를 공개했다.

석보체는 석보상절(보물 제523호) 글꼴 원형을 바탕으로 했으며 1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대중들을 찾는다. 조계종 문화부는 "석보상절(1449)은 세종25년 한글창제 이후 가장 먼저 반포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최초의 한글 불서다. 석보상절을 원형으로 한 석보체의 개발은 우리 문화사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석보체 개발의 의의를 밝혔다.

전통문화글꼴 '석보체' 글꼴포맷은 윈도우 OS는 물론, 맥킨토시 OS에서 사용 가능한 인쇄용 글꼴로 트루타입(TTF), 오픈타입(OTF)이며 '석보체 보통'과 '석보체 가는' 총 2종의 글자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조계종 홈페이지와 네이버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제모멀기리고노물
대어나라귀어나능외
맛그추으룸과묵몰로
홀조차돈니다가시혹
슬지여귈홀조차돈니
리어나약대어나라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
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진 왼쪽은 석보상절 원문체, 사진 오른쪽이 조계종이 개발한 전통문화글꼴 '석보체'

이번 '석보체' 개발은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종단 로고타입과 심볼(삼보륜) 개발 경험이 있는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라피연구소(안상수 소장, 전홍익대 교수)에 의뢰해 진행됐다.

안그라픽스는 "원문의 세로쓰기 글씨를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가로쓰기에 맞게끔 개선했다"며 "현판용 및 표지 글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석보상절 옛 글자 개발과 간경도감체, 인경체, 부모은중경체 등 불경 언해본 글꼴 개발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모은중경체를 통한 본문 활용 글꼴 개발로 좀더 대중화된 글씨체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조계종은 "이는 단순히 전통문화 글꼴 개발 뿐 아니라 전통문화 원형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시키고, 활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961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중간 판세는
템플스테이 가치 평가 세미나
유진룡 장관 부석사 불상 발언 파문

시방세계 5
조계종 '일본 고찰 순례' 연수 현장



신행 6
천고마비 계절, 불교 강좌 소개
청소년 힐링 위한 전시회

마음·명상 27
명상수행의 방향과 전망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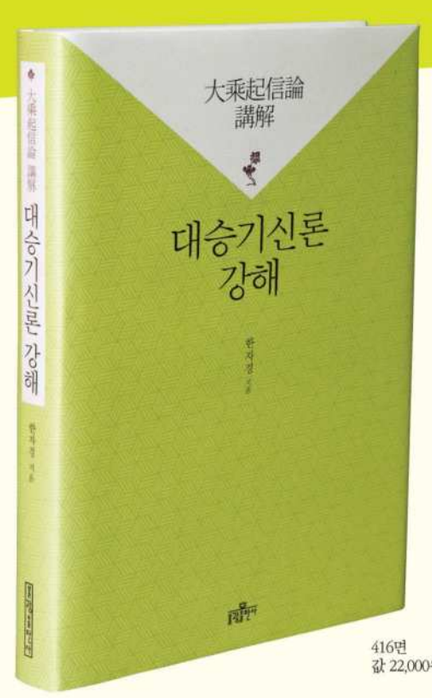
원효와 법장의 소(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치밀한 구성,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계로
중관, 유식, 여래장 등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회통하며
대승(大乘)의 대의(大義)를 논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韓慈卿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칸트철학 전공)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전공)를 받았다. 제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칸트와 초월철학』, 『자아의 탐색』, 『자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칸트 철학에의 초대』, 『불교의 무아론』, 『21자(字)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해결 점신현상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등이 있다.



416면
값 22,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8월 이전에 판매된 29권의 『대주선사어록 강설(上·下)』을 새책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불광출판사 (02~420~3200)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다섯 신체의 자생적인 명징성은
끝없이 펼쳐지는 황금 대지와 같나니
어떤 기대도 의심도 집착도 갖지 마라.

붓다의 깨달음은 다섯가지 신체, 깨달음의 다섯가지 성품으로 이뤄집니다. 화신, 보신, 법신, 금강신, 구경보리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바깥에서 이것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상적인 마음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망상은 사라지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수행의 진전이 느리다고 걱정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퇴굴심을 갖거나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탐욕을 강화시키고 조용하게 가라 앉은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모든 희망과 두려움을 내려 놓고 자각의 원시청정이 붓다의 깨달음 그 자체라는 금강석과 같은 확신 속에 머무십시오. 이 길이야말고 바로 완벽한 지복이며, 깨달음의 본질이며 별다른 애씀 없이 깨달음에 다다르는 길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유력 후보들 서로 '승리'… 표심 향방은

교구 선거인단 마감, 후보들 선거운동 시작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이 9월 29일 마감됐다.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기호1번 자승 스님 선대위와 기호 2번 보선 스님 선대위는 교구본사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은 9월 30일 양산 통도사에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각각 일정을 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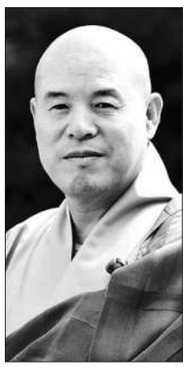
현재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선대위는 각기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자승 스님 선대위의 경우 50표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자승 스님 선대위 관계자는 "조계종의 선거제는 간선제로 표심이 곧 민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면서도 "상대 후보 측이 유리하다고 자신하는 만큼 예측이 조심스럽다. 진정성을 갖고 유권자를 만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선 스님 선대위도 최대 20표 차이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론 조사에 총무원장의 제1덕목으로 제시한 '청정성과 청렴성'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활동하는 차별성을 보이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까지 밑바닥 민심이 표심을 움직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로 우세를 장담하는 만큼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진영은 유력인사 모시기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보선 스님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를 지낸 종삼스님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한데 이어 자승 스님은 백상도량 핵심인사인 영배 스님과 前 법규위원장 화범 스님, 前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을 잇달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어 보선 스님 측으로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다.

각 진영 본사 순회 지지 호소
서로 '20~50표 우세' 예측해
캠프들 유력 인사 모시기 나서
일부 교구종회 부정 의혹 '변수'


자승 스님


보선 스님

이들 선거 진영에서 유력 인사 모시기에 앞 다투고 있는 이유는 유력 인사의 행보가 교구 선거인단에 표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연 스님의 공동선대위원장 수락 직후 보선 스님 선대위 대변인 장명 스님은 "재연 스님의 보선스님 선대위 합류는 현재 제방 스님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며 "종도들이 보선스님을 차기 총무원장의 적임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증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심의 '변수' 역시 상존하고 있다. 양 선거 캠프에서 제기한 교구 선거인단 선출 과정 의혹이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시작된 선거인단 선출과정의 이의신청은 마곡사, 법주사, 쌍계사로 이어졌다.

중앙선관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교구는 선거인단의 재선출 또는 사고사찰로 지정돼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동화사와 마곡사 선거인단은 기호 1번 자승 스님을, 법주사와 쌍계사 선거인단은 기호 2번 보선 스님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져 추후 향방 종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9월 30일 열린 제278차 회의에서 동화사와 마곡사 선거인단 선출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와 교구종회와 문제를 제기한 측의 입장을 확인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광사 제2의 도약 〈1면서 계속〉

도심포교당이 전무했던 1982년 서울 잠실에 자리잡은 불광사는 이후 능인선원, 구룡사, 한마음선원으로 이어지는 도심포교의 시초가 된다.

300억원 가량이 투입된 이번 '불광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법당은 물론 불광사 산하 시설 확충에 쓰였다. 315평 규모로 들어서는 5층 높이의 신축법당은 3천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 송파노인요양센터와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등의 시설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또한 증측된 전각의 면모도 새롭다. 지상 3층엔 만불전, 4층에는 시민선방을 만들어 신행과 수행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식당에는 작은 무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지상 4층까지 현대 건축양식을 따르는 한편 전통 목조 양식의 대웅전을 지상 5층에 배치해 도심 속 사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신축 불광법당의 준공은 2만 사부대중의 힘으로 이루어진 불사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불자들과 함께 했다"며 "불광 대중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사에 임했다는데 의의가 있기에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불광사 창건이 도심포교당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듯, 31년 만에 갖는 두 번째 준공을 계기로 이어갈 새로운 사업들은 불교 대중화를 위한 활동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는 물론 국제교류, 남북교류사업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불광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예산만 300억 원 투입
2만신도 염원 담겨 의미 커
3천명 수용… 사업 다각화
관련 시설들도 업그레이드

준공법회는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불광사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불광사 신축 법당에서는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이 진행된다. 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세미나로, 종교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불교와 종교가 나아갈 대안을 모색한다. 국내 유수의 불교학자는 물론 개신교, 가톨릭계 학자와 틱낫한 스님이 이끄는 플럼 빌리지와 마하시 명상센터, 태국의 아쇼케 공동체의 관계자들 또한 참여한다.

배현진 기자

〈바로 잡습니다〉

960호 16면 화엄만다라 류자효 씨 인터뷰 제목 중 한자 '時'를 '詩'로 바로잡습니다.

"금권·흑색 선거운동 행위 엄중 처벌"

조계종 총무·호법부장 선거 앞두고 성명 발표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과 호법부장 정안 스님이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각 선거 진영에 공명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종훈 스님과 정안 스님은 10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각 선거 진영에서 미래 지향적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분위기를 이용해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불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금번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히 진행되어 종단화합과 불교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후보자 및 관계자들은 선거법 및 종헌종법에 근거해 여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모든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철저히 의법조치할 것을 밝혔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부원장 원해 스님 등 임명장 수여

한국불교신문사장에 자운 스님 취임

태고종이 부원장급 이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9월 23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부원장 원해스님〈사진〉을 비롯해 총무부장 재홍 스님, 재경부장 지관 스님, 문사부장 성인 스님, 규정부장 지담 스님, 사서실장 현광 스님, 중앙강원장 혜일스님 등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도산 총무원장 스님은 "종도들의 화합과 원활한 종무행정에 힘써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고종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사 사장에는 자운 스님이 임명됐다. 자운스님은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현재 제 13대 중앙종회의원이며 대자대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계 새로운 중흥을 위한 성명서

-. 우리나라 1700년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과 민족의 역사가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불교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단체들은 미래 불교중흥을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위정자들의 진실한 참회를 요구한다.
-. 그동안 발생되어 온 불교계의 각종 사태등이, 여러 군소 종단에 수십 차례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각성하고 참회하라.
-. 불교계는 승가법을 엄중히 하여 출가 승려를 세속법에 의존하지 말고, 참회와 용서로 출가법 아래 평화적 용단으로 화합하라.
-. 전국에 불자들은 승려들의 허물로 불심을 돌리고 있음을 각성하고 현실의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위정자들은 참회하라.
-. 한국불교가 한 종단 승려만의 독식 자산이 아니라 모든 종단승가는 일불제자로써, 사부대중은 삼보정재를 헛되게 낭비한다면 참회하라.
-. 한국불교 중흥을 위하여 범종단 지도자는 아상, 인상, 수자상을 모두 놓고 뜻을 모아, 종단이 대통합하는 대도로 나갑시다.

불교지도자연맹 영남불교승가회 신불교개혁회의 전국교화법사단 범불교종단회의 대한불교선도회 한민족운동본부 한국산업진흥원
대한통합중흥회 신행단체수선회 불교수호결사단 불교수미산악회 화엄선종중앙회 삼보종총중앙회 광덕선종중앙회 임제선종중앙회
소림무공보존회 대승석불회 민족가야무술연맹 천지무예도협회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원효종총중앙회 국민행운동대구협의회

공동대표 출가공동체 **보성. 법장. 대붕 外** 180人 일동
공동위원 재가공동체 **석태조(총회장) 外** 1000人 일동

이메일 kbm188@nate.com
새시대 한국불교개혁운동에 동참하실 종단 및 신행단체 연락바랍니다.
팩스 02)953-0330, 055)328-2762

"템플스테이 국가 사업으로 체계화 해야"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가치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템플스테이 도입 10년을 맞아 템플스테이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정부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10월 2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가치평가에 관한 정책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호영, 정세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 힐링프로그램으로서의 경쟁력, 여가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 등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템플스테이 전문가 평가 높아

이날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와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및 내부 연구원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템플스테이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의 경쟁력에 대해 "체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약 85%가 템플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며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음을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템플스테이 공식 지정사찰에 대해서는 '현재수준이 적당하다' 와 '소폭 늘려야 한다' 는 입장이 대부분으로 증대 필요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템플스테이 평균 참가 금액은 1박 2일에 5만원으로 일반 숙박여행인 25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요금 책정이 다양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또 템플스테이 개선점으로 '프로그램 다양성(특화) 부족' 이 25%로 가장 크게 차지하였으며, 홍보마케팅 부족, 운영실무자의 전문성, 편의시설 부족 등 시설에 대한 불편함 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요소의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개선점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한국관광을 한 차원 높이는 상품이자 국민의 여가생활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한국관광 가치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국가적으로 기여 가능

이승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가 힐링프로그램으로 심신치유 분야에 특화된 만큼 이런 점을 국가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는 힐링프로그램으로 심신치유와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템플스테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갖고 있는 장점들을 국가 시스템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가 정부의 정신건강의료시스템과 연계하면 생활밀착형 정신건강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동우 대구대 호텔관광학과 사회심리학과 연계한 템플스테이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낙관, 희망 등의 긍정요소가 사회자본으로 활용되는 긍정심리자본 이론이 있다"며 "이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국민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이어 강도형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부교수,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팀장, 박용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차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또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갑윤 국회정각회장 등 정관계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개신교 예찬론자가 國史를 책임진다니

유영익 교수 종교편향 우려 속 국편위원장 취임

특정 종교 편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10월 1일 국사관 대강당에서 취임했다.

유 교수는 그간 각종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기독교 국가건설을 표명할 정도로 친기독교적 성향을 지닌 이승만 前 대통령을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대통령' 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기독교 장려 정책을 칭송해 왔다.

실제 유 교수는 그동안 각종 기고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형해(形骸)화시키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독실한 신자의 모범이라고 찬사하기도 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조계종 종평위)는 "이승만 정부의 기독교 편향 정책들에 대한 학계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가치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잘못된 종교관과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을 저버린 처사다. 또한 이러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장하는 곳의 책임자로 세운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계종 종평위는 유 교수의 취임에 앞서 '임명을 철회하라' 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평위는 입장문에서 "편향된 종교인식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각계의 우려를 수렴해 유영익 교수의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에 대해 재고하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자연 김병철 高大 총장 등에 공개 질의

지난해 인권위 연구 방해 행위 물어

종교자유정책연구소(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가 미래목회포럼의 일간지 광고와 관련 고려대 김병철 총장과 카이스트 주대준 前 부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미래목회포럼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자연의 연구 용역을 즉각 취소하라' 는 제목의 광고를 지난해 7월 3일자 조선일보에 실은 것에 따른 것이다.

종자연은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과 카이스트 주대준 前 부총장은 미래목회포럼 광고 내용에 동의하는 뜻에서 자신의 소속 직함과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두 대학의 공적 직함을 이용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질의서를 보낸 이유를 밝혔다.

종자연은 질의서를 통해 고려대 총장의 직함을 미래목회포럼 광고에 학교의 동의 없이 올린 것에 대해 지적했다. 종자연은 "개신교계의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일간지 광고에 '총장' 이라는 직함으로 공개적으로 연명에 참가하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자연은 부적절한 종교 편향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온 카이스트 주대준 前 부총장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종자연은 질의서에 "공인이나 공직자들이라면 최소한 지켜야할 기본적인 종교적 예의범절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민추본, 조선족학교 지원한다

9월 26일 교류협력서 채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조선족 중학교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채택하고 지원사업에 나선다. 민추본은 9월 26일 북중접경지역 평화기원순례 일정의 일환으로 연길 제10중학교를 방문 양측간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채택했다.

연길시 제10중학교는 18개의 학급으로 구성된 조선족중학교다. 의향서 채택에는 박종률 부교장, 조계종 민추본 집행위원 제정 스님(민추본 집행위원)이 양측 대표로 참여했다. **정혜숙 기자**


민추본 집행의원 제정 스님과 연길 10중학교 박종률 부교장이 9월 26일 협력서를 채택하고 있다.

유진룡 장관, 부석사 불상 반환 발언 일파만파

9월 27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발언에 불교계 반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석사 불상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주요언론들은 유진룡 장관이 9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 에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과 가진 양자회담 중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시모무라 장관은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불상 반환을 요청했고 유 장관으로부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겠다' 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부석사관세음보살좌상봉안협의회(이하 관음상봉안협의회)는 즉각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의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 일본 반환 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여론 31면〉

관음상봉안협의회는 "약탈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데 선봉에 서야 할 국가 수장인 유진룡 장관이 직분과 현실을 망각하고 일본 반환을 언급했다"며 "국보를 팔아먹은 문화매국노 수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조계종도 9월 30일 부석사 금동보살좌상의 일본 반환 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부석사 불상은 복장물 기록 등으로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됐다고 보기 어렵기에 정부는 일본에 입수 경위 규명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문화재 피해국이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약탈 · 도난 당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장관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돼 한국으로 반입된 서산부석사불상.

유 장관은 9월 28일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서명 후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울에서 영광까지 도보하며 탈핵 행진

불교생명윤리협회 탈핵희망 국토순례 참여

불교생명윤리협회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전남 영광까지 394.9 km 의 거리를 11월 11일까지 도보순례로 완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법응 스님, 집행위원 이도흠 한양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핵발전소가 하루빨리 폐쇄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의 염원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뜨거운 마음을 담아 걸어간다"며 "2014년 3월 1일에는 부산고리핵발전소 앞에 모여,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핵발전소부터 폐쇄하기를 온 국민의 힘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6월 6일~9월 7일 탈핵 순례 행진에 참여해 탈핵반대를 호소해왔다. **정혜숙 기자**



일 주 문



근대고승 유묵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근대고승 유묵전을 개최한다.



예비군승 교육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10월 12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예비군승 교육을 진행한다.



금강계단 보살계수계산림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10월 9일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개최한다. (043)543-4755



지유 대종사 방장 고불식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0월 26일 오전 10시 범어사 대웅전에서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고불식 및 개산대재를 거행한다. (051)508-3636



중창 36주년 기념행사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은 10월 13일까지 중창 36주년을 맞아 '오백나한 명호 독송기도' 및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초청 법회 등을 개최한다.

김정기 위덕대 제6대 총장 선임



진각종립 위덕대 총장에 김정기(57세 · 사진) 前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10월 14일부터 4년이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증광 정사)은 9월 23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제4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정기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위덕대 제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정기 총장은 1956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평생학습국장, 차관보를 거쳐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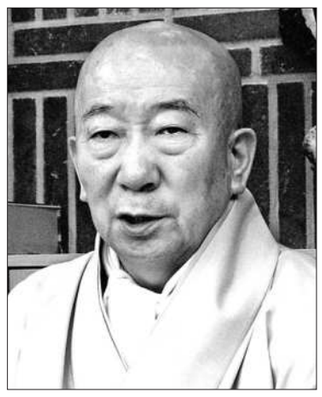
전통판화 공모대상에 정민영 '완당탁묵집'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이 주최하는 '제1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의 최고상(문화재청장상)에 정민영 작가(사진)의 '완당탁묵집' 이 선정됐다. 고판화박물관은 10월 2일 제 1회 원주 전통판화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상인 문화재청장상 수상자 정민영 씨는 전통 판화 작가로 철재 전통각자보존회 회원이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등 다수 공모전에 입상했으며 2013년 제1회 정민영 전통각자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관음종 10일 국제학술대회, 9일 홍파 스님 회고록 봉정식도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0월 10일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서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깨달음' 을 주제로 인도불교 인도철학 중국불교 한국불교 종교학 등을 망라해 국내외 전공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집필, '논총' 으로 엮을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홍파 스님의 70고희와 법랍 50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홍파 스님이 평소 펼쳐온 국제불교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1980년대 관음종 총무원장을 맡아 다양한 불교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조계종을 포함한 2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과 부회장 직을 종파를 초월한 불교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또 1980년대부터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으로 양국 학술 및 인적교류를 전개해 오고 있으며 한중일불교우호교류협회 수석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학술세미나에 앞선 9일에는 홍파 스님의 50년 불교 행화를 담은 회고록 〈현대 한국불교사 일대사 인연을 말한다 '여래의 사도 바람 따라 물결이네' 〉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 논총 봉정식이 개최된다.

한편, 학술세미나에서는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 30여 학자들이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깨달음을 조명한다. **노덕현 기자**

"음식에 담긴 정신, 맛과 함께 음미해야"

사찰음식 시연회 여는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사찰음식 만들기 및 시식체험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
사찰음식 교육과정 보급 앞장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마음씀도 바뀝니다. 사찰음식의 전통이 살아있는 진관사에서 음식을 맛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서울 진관사가 10월 9일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시연회' 를 연다. 사찰음식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이번 사찰음식 시연회가 각종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현대인들을 위한 사찰음식 시연회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고 소개했다.

이날 진관사에서는 낮 12시부터 두부 김밥, 인절미 등 사찰음식 만들기와 곤드레밥, 연잎밥 등 사찰음식 시식 체험, 승마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에는 2500명, 두 번째 시연회에는 40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계호 스님은 "특히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부터 건강에 좋고 맛있는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돼 가족 단위의 참가가 많다" 고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행사가 우리 식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은 "서구화가 진행되며 음식문화가 바뀌며 한국 전통의 사상 또한 잃어버리고 있다" 고 지적하며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음식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지만 이러한 지혜를 살피지 않고 맛에만 치우치고 있다" 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시연회에서 불교계 큰 스님들의 상차림에 착안한 사찰음식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 석주 스님, 청담 스님 등 스님들이 진관사에서 드셨던 음식을 보면 수행의 지혜가 살아있다" 며 "약 따로 음식 따로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데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근 진관사는 16주 과정으로 '전통발효음식 조리사 교육과정' 을 통해 전통음식 조리사 교육 또한 진행하는 등 사찰음식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또 사찰음식 조리사로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 이라며 "사찰음식 조리사 양성 및 창업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산불교聯 사명대사 열반 추모법회



'사명대사 열반 403주기 추모대법회' 가 9월 30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와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미룡사 정각스님, 금수사 경담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이윤희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불교TV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행)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호국발원문, 헌화, 행장 소개, 봉행사, 추모사, 대재사, 추모가, 축원,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추모대법회에 앞서 (사)부산영산재보존회의 호국 영산대재도 봉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고운사 사찰음식체험관 개관식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9월 28일 사찰음식체험관을 준공개관식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김재원 국회의원 등이 테이프커팅과 현판식을 가졌다.

사찰음식체험관은 3137㎡ 부지의 재래기와식 단층건물로 발효숙성황토방으로 건축되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대구 성관음사 법화경 사경 입재법회



대구시 남구 성관음사는 9월 28일 33관음응신 대불 복장봉안 법화경 사경 법회를 봉행했다. 법화경 사경 입재식에는 주지 일우 스님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성관음사는 주지 일우 스님의 30년 원력 불사를 이룬 주지 일우 스님은 "매일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단 한순간도 연습은 없다" 며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기에 법화경 사경을 통해 늘 하심하는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추대식



(재)한국근본불교 조계종(종정 의륜) 종정 추대식과 총무원 제8대 임원 취임대법회가 9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천 스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방장 용주 대종사 고불문 낭독, 교육원장 법등 스님 종단연혁 소개 등이 진행됐다. 이어 부종정 덕산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종정 의륜 스님에게 종정 추대패가 전달됐다.

종정 의륜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근본불교 조계종을 연지 20년, 법의 꽃 삼천리에 활짝 펴고 봄이 겨울 없어 꽃향기만 가득하다. 날마다 법의 바람일어 구름속의 빛을 보다" 라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

제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매각을 중단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포교당으로 사용중인 보현사를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보현사 전체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도들은 제주불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보현사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토지매각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국의 불자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며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다 음

■ 보현사 매각의 부당성

1) 매각이유 (관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사찰쇄락으로 이전, 지역주민의 민원야기
② 주위 경쟁사찰이 많아 신도모집곤란
③ 불교대학운영으로 인한 사찰재정 미약
④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신도시인 노형으로 이전

2) 매각 반대 이유

보현사는 제주시내 중심인 이도2동(도남동)위치하여 주위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이 밀접한 요지임
사찰쇄락 주변 경쟁사찰등의 이유라면 능력없는 주지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능력있고, 포교의 사명감있는 새주지를 교체해야 할 정도임

① 종단법위반
종단, 사찰운영위원회 법에 의하면 사찰 매각, 대여등 행위시 신도회장이 당연직인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어야 하나 신도회장에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사실 이 없음으로 절대적 하자이며

② 매각 공고 및 이후과정의 부당성
– 마지못해 개최한 매각 설명회에서 신도들은 여러 부당함을 들어 반발하자 추후 재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으나 설명회 당일 저녁 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재하여 이는 신도들의 의사는 전혀 안중에 없다는 걸 보여줌

– 매각공고(2013.8.1) 이전인 6월초 제주시청에 이전예정지인 노형동 3056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6월중순 허가를 받은바 신도들을 철저히 속이고 승락했다고 할 수 있음

– 이전예정지 토지는 900여평인데 현 보현사부지는 2100여평이다.
도심요지 땅을 팔아 시내외곽지인 노형동에 1/2반 밖에 안되는 토지에 이전이란 말은 삼보 정재를 유실하는 경우이다.

– 이전 예정지 소유자와 현보현사부지 낙찰자는 동일한 또는 동일 관계인으로 추정되는바 소유자와 매수자 그리고 관음사 또는 당시 보현사 주지인 함결스님과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신도들의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무원장님께 호소 탄원등을 했고, 아울러 재무부의 부장스님과 면담을 통해 반대이유를 설명함

재무부는 여러 절차적 하자를 들어 본 매각과 관련한 종무행위를 중지시키고 총무원, 관음사 그리고 반대의사를 밝힌 신도 대책위원회 회의 3자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의한바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재추진보류 이를 수용한 신도대책위원은 문서를 통해 심의 일자를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전혀 없음

– 이런 심의위 구성 등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관음사는 관음사종무실장을 통해 유선으로 신도회장 양방규회장을 타당한 이유없이 해임을 통보했음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감안해보면 대화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각를 계속 진행. 관음사 신도들의 뜻은 전혀 고려치 않아 여러 전국불자님께 호소합니다.

제주관음사포교당 보현사 매각반대 신도대책위원회 일동

일본불교 곳곳엔 한반도 옛 선현의 자취가

동행취재-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일본고찰순례'

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하면서도 멀고 낯설다. 특히 일본불교에 대해서는 '대처식육' 의 범계를 범하고 있는 왜곡된 문화를 가진 상식 밖의 불교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 반면 세계는 일본불교의 '젠(ZEN)' 을 비롯해 그들의 문화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질문이 들었다. '어쩌면 일제 강점기이라는 암울한 우리의 근대사가 일본을 바로 볼 수 있는 편견이 되는 있는 것은 아닐까?'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승려 연수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일본 고찰 순례' 에 동행하면서도 이 질문은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순례는 일본불교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간 일본의 교토와 오사카, 나라 등 관서 지방의 고찰을 순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정토신앙 전문가인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을 지도법사로 40명의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했다.

교토서 일본불교의 힘을 보다

일본 고찰 순례의 첫 출발점은 교토. 순례단은 임제종 남선사파 대본산 남선사를 시작으로 이총, 청수사, 금각사, 용안사 등 견학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광륭사에 소장된 일본 국보 1호인 미륵보살상. 한국의 적송으로 조성됐다고 하는 미륵보살상은 한국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쌍둥이같이 닮아 오래 전부터 한일 교류의 증거로 여겨왔던 불상이다. 지금은 별도의 박물관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그들의 성보(聖寶) 관리다. 일본 사찰의 어딜 가도 불상과 보살상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사진기를 통해 나오는 빛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경의 대상인 부처를 함부로 사진에 담을 수 없다는 그들만의 신앙적 소산이기도 하다.

사찰을 이동하면서 지도법사 보광 스님에게서 일본불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순례의 매력이었다. 특히 스님은 당신이 유학하고 있을 당시의 사정을 곁들여 교토 불교의 속사정과 힘을 설명했다.

"1980년대 교토 시장이 교토의 관광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교토불교협회는 성보 문화재와 전각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지요. 결국 교토 지역 전 사찰은 산문을 폐쇄했습니다. 산문 폐쇄의 기간은 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산문 폐쇄는 결과적으로 교토시에게서 항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옛 한반도 선현의 자취를 만나다

교토에서 오사카로 이동한 순례단은 아스카와 나라 시대의 불교를 찾았다. 교토의 사찰들이 일본불교의 융성과 완성을 보여준다면 나라와 오사카의 사찰들은 일본불교의 시작을 보여준다.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를 스승으로 삼고 불교를 융성시킨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법륭사에는 중국의 원강 석불, 경주 석굴암과 더불어 동양 3대 미술품으로 손꼽히는 고구려 화승 담징의 금당 벽화가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일본의 국보이기도 한 '백제관음상' 이다. 백제 장인이 만들어져 '백제 관음' 으로 명명된 이 불상은 2.8m의 크기에도 수려한 조각미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오직 '아름답다' 라는 감탄사가 나올 뿐이다.

백제의 조각 문화가 일본에 전래되는 순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순례단 스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백제관음상' 앞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스님들은 옛 선현들의 발자취가 있는 곳곳마다 예경을 드렸다.

선현의 자취가 가장 도드라진 곳은 바로 동대사였다. 높이가 16.2m로 세계 최대 청동대불이 있는 동대사는 백제 도래인의 후손 양변 스님과 행기 스님이 창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본인들에게는 보살로 추앙받는 행기 스님은 걸식과 행각을 하면서 빈민구제와 도로, 다리 건설, 사회사업을 펼쳤고, 그를 신봉해 따라다니는 신도가 1천명이 됐다고 한다. 워낙 유명하다보니 황실의 견제를 받아 옥에 갖히는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동대사 화주승으로 나서 정재를 봉헌해 대승정의 위치에 오르기도 했다.

동대사 대웅전 뒤로 한참을 오르면 행기 스님을 모신 조사상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조사당 진영은 복원 작업을 위해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순례단 스님들은 위패와 가져온 공양물을 올리고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의식을 주도한 보광 스님은 "백제 도래인으로서 일본 불교의 한 획을 그은 행기 스님을 기리는 조사당에서 후손인 우리가 천도법회를 봉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 며 "일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행기 스님의 원력과 가피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불교의 생활화 어떻게 할까

순례단의 마지막 일정은 일본에서도 가장 종교색이 짙은 곳인 진언종 총본산 고야산이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야산은 8개 산에 둘러쌓인 분지로 이 안에는 117개의 사찰이 있다. 이중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개념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숙방 사찰이 52개가 존재한다.

고야산에서 꼭 가볼만 한 곳은 '오쿠노인' 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다. 이치노하시 사당까지 아름드리 삼나무들 사이로 2km 가량 조성된 묘지들을 따라 걷는 길은 마치 하이킹 코스와 같다. 실제 일본인들은 죽어서 꼭 고야산에 묻히길 소망한다고 한다. 고야산 답사 전 보광 스님은 일본불교의 상제례 문화이자 사찰 핵심 신도 조직 중 하나인 '단카(檀家)'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단카' 제도를 통해서는 왜 일본불교가 생활형 불교인지 알 수 있었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있어서 모든 사찰이 곧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화 된 사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단카' 입니다. '단카' 는 자신의 제적사찰을 가지고 그 안에 가묘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찰을 운영하고 개보수하며, 자신의 주지 스님들에게 월보시를 드립니다. 대신 주지 스님은 '단카' 회원들의 가묘를 관리하고 가구를 돌며 기도와 법문을 설합니다."

고야산 순례에서는 진언종립 고야산 대학의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일본불교는 강점은 교육과 복지사업에 종단의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오사카의 사천왕사는 자체 병원과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야산의 진언종도 종립 대학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가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할 과제였다.

진언종 총무원이 있는 금강봉사에서는 진언종 총무원장 소에다 류쇼 스님과의 대담도 진행됐다. 이날 보광 스님과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이후 조계종 스님들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시쿄쿠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으며, 류소 스님은 흔쾌히 승낙했다.

마지막날 보광 스님은 적송원에서의 아침예불을 마치고 이번 순례에 대한 총평을 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일본불교를 왜곡된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은 데 이는 무지의 소산이다. 그들 문화 안에서 일본 스님들이 어떻게 철저히 수행하는지를 봤을 것이다. 이번 순례가 일본 불교의 좋은 점을 취해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순례단 참가 스님들도 일본 불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구미 자비사 주지 정신 스님은 "일본불교의 철저한 문화재 관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며 "특히 일본불교는 대 · 소승 불교의 장단점을 보완해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교육,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사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 역시 벤치마킹할만 하다" 고 말했다.

합천 영암사 총무 자행 스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불교에 대한 편견을 벗겨낼 수 있었다. 이 같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고 밝혔다.

교토 · 오사카 · 나라= 신중일 기자

교토, 나라 등 일본 관서 지방 지도법사로 보광 스님 모시고 40여 스님 4박 5일 사찰 순례

백제 관음상, 행기 조사당 등서 선지식 자취 느끼며 법회 봉행

고야산 대학, 각 종파 견학하며 일본불교의 생생한 현장도 체험


순례 3일째인 9월 28일 찾은 나라의 약사사에서 해체 복원 중인 동탑의 보륜을 순례단이 답사하고 있다.


나라 법륭사에서 만난 백제관음상 앞에서 순례단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 사진촬영은 금지였지만, 안내하는 스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했다.


동대사의 조사전에서 지도법사 보광 스님이 천도법회의 의식을 주관하고 있다.


일본불교의 정원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언종 총본산 금강봉사의 정원.


나라 법륭사 회랑을 둘러보고있는 순례단.


순례단 스님들이 진언종 총무원장 소에다 류소 스님과 대담하고 있다.



“천고마비의 계절 불교 공부합시다”

사찰 · 신행단체, 가을불교강좌 풍성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높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는 책읽기에 좋은 때다. 책읽기 좋다는 것은 공부하기 좋은 때라는 뜻도 된다.

사찰과 재가신행단체에서는 불교기초교리 강좌부터, 마음치유 강좌, 불교영어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공부하기 좋은 날씨에 부처님가르침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가을을 타는 사람에게도 불교공부는 마음을 달래기에 좋을 것이다.

서울 조계사는 매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교육관 4층 강의실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 법구경’ 강좌를 열고 있다. 12월 5일까지 진행하는 강좌로 조계사 교육조직국장 서송 스님이 법정 스님의 책 〈진리의 말씀〉에 나오는 △마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 △천가지의 장 △악행 △폭력 △늙음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02)768-8580

서울 봉은사는 영어로 불교 기초강좌를 열고 있다. 12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봉은사 수련원에서 진행하며, 혜연 스님(봉은사 템플 지도법사), 무진 스님(스위스 법계사 주지), 대진 스님(무상사 국제선원 주지) 등이 △부처님의 일생(The life of the Buddha) △선과 업(Meditation and Karma) △불교의 발전(The Spread of Buddhism)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02)511-6070

서울 불광사는 불광사 교무 여공스님의 지도아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천수경 ·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하고 배우는 강좌를 진행한다.

또한 10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명법스님, 은유와 마음(Storytelling)치유 강좌를 진행한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과 함께 △은유, 삶을 형성하는 힘 △나를 스토리텔링하다 △다시 쓰기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그룹 스토리텔링 등을 주 내용으로 과거 부정적인 이야기를 새롭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시간을 갖는다.

불광사는 “쉽고 재밌게 자신의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색다른 자기치유 프로그램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불균형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02)413-6060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간화선 수행과 영어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리는 토요법회에서는 간화선 수행에 대한 법문과 강의가 진행된다. 10월 12일에는 수불 스님이 황벽 스님의 〈전심법요〉를 주제로 간화선 수행의 중요성과 실참 방법에 대해 법문한다. 이어 김홍근 한국간화선연구소장이 〈육조단경〉을 주제로 강의한다. 10월 10일, 24 · 31일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선과 마음공부’라는 주제의 강좌도 열린다. 회산 스님이 강사로,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성공이란 △진정한 자신감을 갖으려면 △진정한 웰빙이란 △종교를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란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집단 마음나누기, 참선과 개인상담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도록 돕는다.



불교교리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불자들. 〈현대불교자료사진〉

불광사…은유와 마음치유
동국대국제선센터…전심법요
불교여성개발원…승만경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영어불교강좌’를 진행, 불림 스님이 강사로 틱낫한 스님이 저술한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을 교재로 3시간 집중수업을 진행한다. (03)2260-3891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승만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상담교육원 교육국장인 도영 스님이 강사로, 승만경 경전을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접근한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미령 동국대 역경원장 등 불교 여성학자들이 △불교총론 및 대승불교 △초기경전 니까야 산책 · 화엄경 보현행원품 보살의 길 △반야심경과 공(空) · 법화경을 주제로 불교경전강좌를 연다. (02)722-2101

한국불교연구원은 초보자를 위한 불교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 수요일 오후 3 30분, 오후 6시 30분 한국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의 저서 〈불교개론 강의〉를 교재로 윤독과 해설을 하고 있다. △삼승과 일승 △삼보와 귀의 △대승불전의 사상 등을 주 내용으로 불교의 교리사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전 내용의 이해에 필요한 불교의 개념 용어를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02)762-5624

본각선교원은 복잡한 현실생활에서의 번뇌 없는 행복한 생활을 위해 ‘금강경 통찰 생활 특강’ 가을학기를 진행하고 있다. 강사진은 금강경과 참선 등을 40여 년 참구해온 제반 학문의 원로 교수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금강경 통찰 생활특강’ ‘금강경과 법철학’ ‘금강경과 선시감상’ 등을 주제로 강의를 연다. (02)762-4848

이밖에 월호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는 **행불선원**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금강경강의를 진행하고 있다.(02)732-95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청소년 힐링 위한 전시회 열린다

10월 7일부터 제천 시민회관에서

청소년 힐링 캠프를 위해 미술계 거목과 스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섰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와 제천 정방사(주지 상인 · 사진)는 10월 7~13일 제천시민회관에서 청소년 캠프 기금마련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국전작가 신현호 씨의 작품 40여 점과 도예 장인 설봉 스님이 빚은 도자기, 정여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의 그림 등 총 6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회 기금마련을 통해 열리는 ‘청소년 한마음 힐링캠프’는 10월 19~20일 하동군 일원 및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동, 제천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프 참가 청소년들은 소설 ‘토지’의 배경인 하동의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근대 생활을 이해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힐링 명상과 산책, 풍등 띄우기 등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19일 하동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힐링 콘서트에는 일반 청소년 500명도 참가해 힙합가수 아웃사이더, 비트박스 팀 투탁 앤 투에이치, 트로트 가수 김용빈 등의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한편 2007년부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수탁 운영 중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은 6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올해 말 증축되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하동청소년수련원 원장 상인 스님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역은 오늘의 청소년이다. 대한민국을 담아내는 이들이 건전하게 클 수 있도록 불교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소년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번 캠프와 전시를 통해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에게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제4회 전국 청소년 등(燈)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등(燈)문화를 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전통미와 예술성을 살린 순수 창작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전통행렬등’이나 ‘창작행렬등’으로 가로, 세로, 높이 각 50cm 이내의 크기로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등은 철사나 골조를 이용하고 한지로 배접하고 채색한 뒤 초꽂이를 통해 촛불을 켤 수 있어야 하며 등표(서원지)를 부착해야만 한다. 공모전은 10월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전시에는 설봉 · 정여 스님과 국전작가 신현호 씨의 작품이 전시된다. 사진은 신현호 씨 작품.

심사는 전통성(작품의 소재, 재료 선택)과 창의성(아이디어), 실용성(등의 기능, 장엄성), 등표(디자인, 내용) 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우수작품에게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되며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포교 · 신행 소식

동련, 어린이법회프로그램 교육

사단법인 동련은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교육관에서 ‘다양한 어린이법회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권역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찰 환경에 맞는 다양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어린이법회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레협의 ‘도구와 지혜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혜타 스님의 ‘명상프로그램-나를 찾는 선’ △고아라 서예가의 ‘불교체험프로그램-단청을 이용한 학용품 만들기’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안양 한마음선원 문화강좌 작품전시

10월 18~20일 불교문화회관서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0월 18~20일 불교문화회관 1 · 3층에서 작품전시회를 연다. 시(詩), 다도, 사찰요리, 태극권, 플루트, 도예, 한지공예 등 문화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작품과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다. 18일 오후 2시 개막식이 열린다. (031)470-3100

이나은 기자

2014년 1월 ‘미얀마 집중수행’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과 명상의 집은 2014년 1~2월 ‘미얀마 집중수행’을 다녀온다.

이번 집중수행에서는 자애명상(우 자나카 사야도 지도)과 위빠사나 수행(우 떼자니야 사야도 지도)을 지도박데 된다. 초보자와 경험자 모두 가능하다.

수행센터 ‘명상의 집’에서 자애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2003년 한국을 방문해 자애명상과 위빠사나를 지도해준 찬메우 자나카 사야도의 지도 아래 7일(코스1) 또는 13일간(코스2) 자애명상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초보자나 그 동안 위빠사나를 해왔던 분들에게 자애명상이나 우 떼자니야 사야도의 수행지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70-8616-4837

이나은 기자

세종파라미타, 전국 백일장

10월 12일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서 개최

세종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 세종 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제1회 전국 청소년 한글사랑 백일장 및 청소년 한글문화 체험활동’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년들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자주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바른말 사용을 통한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일장은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글사랑을 주제로 운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입상자는 오는 18일 발표되며 백일장 우수자에게는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장상, 세종시교육감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한글체험활동으로 심사위원장인 류시화 시인 등 심사위원들과 함께하는 ‘한글 즉문즉답 캠프’를 비롯해 ‘청소년 예쁜 한글 좌우명 쓰기’ ‘한국전통문양 우드 아트 그리기 체험’ ‘한글창제, 세종대왕 복장 체험 및 사진찍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봉행 (사)대한불교 법상종

법계고시 및 정기 연수 교육

일 시 : 불기 2557년 10월 16일(수) ~ 18일(금)
장 소 : 본산 쌍미륵사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원로원장 : 학 암

총무부원장 : 도일
사정원장 : 소운
포교원장 : 천광
교육원장 : 성운
참선원장 : 선담
홍보원장 : 해암
연구원장 : 보월
역경원장 : 현산
포교부원장 : 진광

사정위원 : 지안.대광.강명
교무부장 : 원응
사회부장 : 법산
재무부장 : 선혜
호법부장 : 선우
문화부장 : 법연
포교부장 : 선명
교육부장 : 혜각
홍보부장 : 법성
연구부장 : 법성
역경부장 : 법화
복지부장 : 지공
비구니부장 : 대화

총무국장 : 관보
사회국장 : 관덕
문화국장 : 법지
포교국장 : 관지
교육국장 : 수운
홍보국장 : 법은
연구국장 : 무상
역경국장 : 임오

서울종무원장 : 지선
부산종무원장 : 혜명
대구종무원장 : 강명
인천종무원장 : 원각
대전종무원장 : 송암
울산종무원장 : 석천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운
경기북부종무원장 : 성상
강원종무원장 : 대광
충남종무원장 : 원상
충북종무원장 : 강월

중앙종회의장 : 대광
중앙종회부의장 : 대화

사 무 국 : 관도

◐ 총 무 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bsj.or.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1@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제141호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한국불교를 바르게 세울 인재를 찾습니다

(사)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1994. 2. 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41호로 허가된 공익법인으로
한국불교의 교단을 바로세우고자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청정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사찰
또는 출가수행자께서는 (사)한총회 수행공동체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는 070-7717-2276 으로 하시거나
다음카페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십시요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장 일정

“깜박 깜박하세요?” 불교 복지관 가세요

복지관, 치매관리프로그램 다양화…가족지원까지

치매를 앓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자살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살해하려 한 70대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9월에는 치매 노인 두 명이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신자살했다. 고령화 사회의 비극이다.

2012년 치매 환자는 약 54만 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127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치매 인구 100만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다. 국가에서 각 구마다 치매지원센터를 마련해 치매예방 · 관리 프로그램을 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이유다.

치매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복지관에 찾아가 치매의심정도를 측정해보는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군, 치매군, 치매고위험군으로 나뉘면, 이를 토대로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치매는 완치는 힘들지만 진행을 늦추는 등 계속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다. 때문에 사전에 치매검사를 받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불교계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치매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치매예방 · 관리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치매선별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복지관마다 일정이 다르니 가까운 복지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대개 1년에 두 번씩 혹은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매주 치매선별검사를 진행한다. 복지관 가입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요일마다 치매전문상담이 한차례 진행된다. 이화여대 언어병리학과와 연계해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02) 739-9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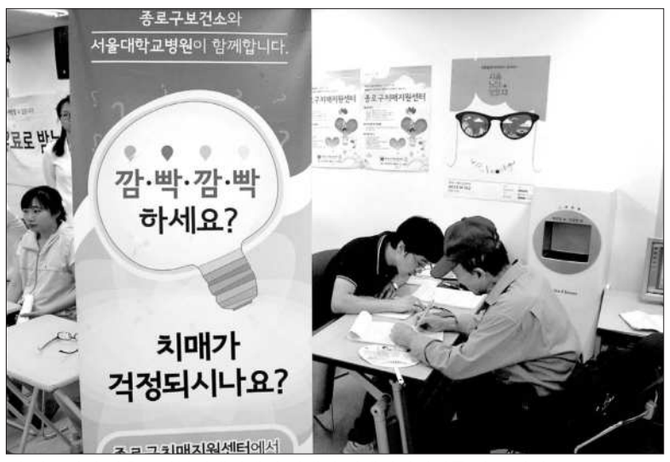
거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에서는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게임을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으랏차차 명랑운동’을 매월 시행한다. 매회 60여명이 참석해 볼링게임, 고리던지기, 미로찾기, 장기알까기 등을 하는 치매예방경진대회다. 또한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통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20회 과정으로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명의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며, 치매가족모임을 따로 운영하여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교육과 정보교환을 담당한다. (055) 636-0303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치매 위험군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인지 개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치매간호사와 작업, 음악치료사가 참여자들의 활동을 돕는다. 노래부르기 등을 통한 음악치료는 치매 노인의 신체와 정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1번씩 총 7회 과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02)466-6242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이 운영하는 ‘나의 뇌를 웃게 하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관 자체에서 취합해 만든 교재를 토대로 색점토 탈 만들기, 퍼즐 맞추기 등 신체활동을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 1차는 치매조기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는 프로그램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8회 분량으로 진행되고 있다. (051)417-6344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의 ‘신바람 나는 세상’은 우선적으로 선정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 10명을 대상으로 미술, 인지 치료를 시행한다. 작업치료 중 풍선아트는 혀와 손의 협응력을 도와줘 치매예방효과에 좋다. 음악회 관람 등 문화체험도 포함한다. (02) 571-2988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한 어르신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있다.

치매선별검사란?

치매선별검사는 치매검진프로그램의 1단계로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와 3단계 정밀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로 이어진다. 대다수 복지관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매월 혹은 일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진구노인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대상으로 매달 1회씩 검사를 실시하며 종로노인복지관에서는 1년에 1번씩 운영, 지난 6월에 60명의 어르신들이 검사를 받았다.

■ 치매자가진단

전화번호나 사람이름을 기억하기 힘들다. (O,X)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오래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가 힘들다.
중요한 일을 잊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있다.
어떤 일을 해 놓고도 잊어버려서 다시 반복한 적이 있다.
약 먹는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갔다가 한 두 가지를 빠뜨리기도 한다.
가스 불 끄는 것을 잊거나 음식을 태운 일이 있다.
남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어떤 일을 해 놓고도 했는지 안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물건을 두고 다니거나 또는 가지고 갈 물건을 놓고 간다.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편지나 사무적인 편지를 쓰기 힘들다.
갈수록 말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 이야기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책을 읽을 때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된다.
TV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하기가 힘들다.
시,공간 능력 자주 보는 친구나 친척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찾게 된다.
전에 가 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방향 감각이 떨어졌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물건을 항상 두는 장소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계산능력이 떨어진다.
돈 관리를 하는데 실수가 있다.
과거에 편안히 쓰던 기구 사용이 서툴러졌다.

(20개 이상 ‘O’가 나올시 전문의 진단 필요)

“어린부부의 선물인 해원이를 살려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10월 환우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치료비지원 선정환자로 김해원 (여 · 5개월)양을 선정했다. 김해원 양은 희귀 난치 질환인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을 앓고 있다. 매일 병원에서 힘겨운 숨을 쉬는 김양은 생후 2개월 후인 6월 20일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절개수술까지 받았다. 작은 몸에 숨 쉴 수 있는 관을 삽입해서 고통스럽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8월에는 경구 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 위루형성 수술을 받고 관을 통해 영양분을 주입하고 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평생 관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은 김양의 부모는 하루 종일 울었다. 게다가 지금은 예상치 못했던 폐렴 증세까지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갓 스무 살을 넘긴 김양의 부모는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 내역을 보면 막막해 고개만 숙인다. 살림살이가 빠듯해 태아보험을 들지 못해 막대한 치료비가 고스란히 빚이 되고 있다. 아이 엄마는 간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아이 아빠는 아르바이트로 월 50~100만 원을 버는 것이 전부다. 김양의 할아버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 불과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한숨만 쉬고 있다. 김해원 양을 위한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생명나눔)**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천도재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994년 창립한 이후 해마다 봉행해 오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천도재를 봉행하는 이유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다른 이를 도우려는 자비심을 실천한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함”이라며 “또 그 뜻을 살려 장기기증자가 아니더라도,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이나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일반 영가도 함께 축원한다”고 말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이라는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김해원(여 · 5개월)양

복지 단신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해울민속잔치

10월 8~10일 민속놀이, 마당극공연, 바자회 마련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은 경로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전달하는 ‘제7회 해울민속잔치’를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8~10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민속놀이대회, 꽃보다할매 · 할배 선발대회, 마당극공연, 바자회 및 장터로 구성된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안양지역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므로 다채로운 참여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바란다”고 말했다. (031)-455-0551 **이나은 기자**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철산시니어대학, 어르신 위한 수학여행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 철산시니어대학 어르신 120명은 9월 26일 경기도 여주 일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세종대왕 영릉, 신륵사, 황학산 수목원 등을 관람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철산시니어대학 서영자 회장은 “철산시니어대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어 행복한데, 수학여행을 통해 오랜만에 경치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기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


경기도 여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철산시니어대학 어르신 120명이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철산시니어대학은 총 4개 학부 14개 학과로 구성돼 광명시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배움과 희망의 산실이 되고 있다. (02)2617-0410 **이나은 기자**

‘2013 행복무지개 옥수바자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이 지역내 저소득가정 자립지원 및 성동구희망기금마련을 위해 ‘2013 행복무지개 옥수바자회’를 10월 17~18일 옥수역광장(3호선 옥수역 7번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2만여 점의 의류 및 생활용품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 지역주민들과 행복한 기부경험을 나누는 행사로 운영되며, 이외에도 △알뜰살뜰바자회(의류, 생활용품, 먹거리마당) △이벤트(문화공연, 행운권추첨, 톡talk나무만들기) △체험마당(성동e-품앗이나눔장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이웃을 되돌아보고 기부문화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배경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02)2282-1100

강북노인복지관, 시니어 축제 성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천태자비 시니어 樂락 축제’를 개최했다.

1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통기타반 및 모던댄스반 어르신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모범어르신상 등 우수단체상 표창식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어르신들에게는 푸짐한 무료중식과 레크리에이션 등 이벤트 특별공연이 마련됐다. 이밖에 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해 금관악기공연, 라틴댄스, 마술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추억의 포토존 · 놀이존 등 부대행사도 열렸다.

이나은 기자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벌(蜂)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꽁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침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 ●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 ● 척추와 아시혈 찾기 / 주의사항 ●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물 및 가축(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십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5시)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오후2시)
◇저서 : 규명(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한글날에 신미대사 찬탄하는 이 아무도 없네

567돌 한글날 특집

정찬주 소설가, 복천암서 월성 스님 만난 이유

복천암 경내로 들어서니 채마밭의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 향기라 해도 좋다. 무는 날이 차가워질수록 잎은 더욱 파래지고 몸은 밭둑을 힘껏 밀치고 선다.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내면이 성장하는 법이다. 마음의 눈을 맑혀주는 채마밭에 한 번 더 눈길을 주고는 바로 월성스님이 계시는 토굴로 간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신미대사

다탁을 사이에 두고 차를 한 잔 마신 뒤,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스님의 표정이 금세 환해진다.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훈민정음 창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신미대사가 스님의 영원한 화두다. 스님이 신미대사의 후신 같다는 생각도 든다.

솔직히 예전에 친견했을 때는 스님의 신미대사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여름부터 세종실록과 세조실록의 내용을 면밀하게 정독하는 동안 신미대사의 위업을 실록의 행간 사이에서 신천지를 발견하듯 보았고, 이제는 신미대사를 소재로 소설을 써야할 시점이라고 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신미스님을 너무 몰라요. 그 이유는 실록을 기록하는 유생들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발자국까지 없앨 수는 없지요. 학자들은 몸을 너무 사려요.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봐요. 어린 학생들이 부장, 반장을 해도 바쁜데 왕이 언제 훈민정음을 연구할 시간이 있었겠소?"

월성스님은 신미대사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주도적으로 간여했다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유서(儒書)가 아닌 불서(佛書)를 언해했다는 점이다. 세종은 소헌왕후가 별세한 뒤 수양대군과 신미대사의 친동생인 김수온을 시켜 부처님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바로 뒤이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을 짓고 언해케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세종이 복천암을 중수케 하고 전각에 삼존불, 즉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시주했다는 점이다.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많은 절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지리적으로 험한 속리산 복천암에 조성했겠소? 훈민정음을 창제한 신미스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겠지요. 당시는 금동불이었는데 70여 년 전에 소실되어 지금은 목조로 복원한 삼존불이 있지요."

신미대사, 집현전 학사이자 佛中聖人

세 번째는 〈영산김씨세보(永山金氏世譜)〉에 나오는 신미대사에 대한 기록을 예로 든다.

"족보는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통례지요.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집현전 학사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매월당 김시습이 유생들한테 갈 때는 꼭 신미스님을 모시고 다녔다고 그래요. 매월당이 신미스님을 '불중성인(佛中聖人)이라고 소개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영산김씨세보〉 권1에 '세종조에 수성(守省; 신미대사 속명)은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고 나온다. 또 한 세보는 '문필이 당시에 걸출하여 일세의 무적(無敵)이다' 라는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내용까지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혹자는 세보의 기록을 두고 원래 족보는 자기 선조를 과장하기 마련이라며 시비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 10월 12일의 기록은 세보가 과장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못 박고 있다.

'임금(문종)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가 모두 족히 의논할 만한 것이 없는 일이다. 다만 신미와 정음청의 일만은 너희들이 심상하게 말하지만, 신미의 직호(職號)는 이미 고치었고, 정음청은 오늘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미 설치하였고, 하물며 그 폐단이 없지 아니한가?'

정음청은 언해와 번역서를 간행한 집현전의 유관기관인데 '신미와 정음청의 일' 이란 무엇일까? 신미대사는 정음청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집현전 학사로서 훈민정음 창제와 불경언해 일에 간여했음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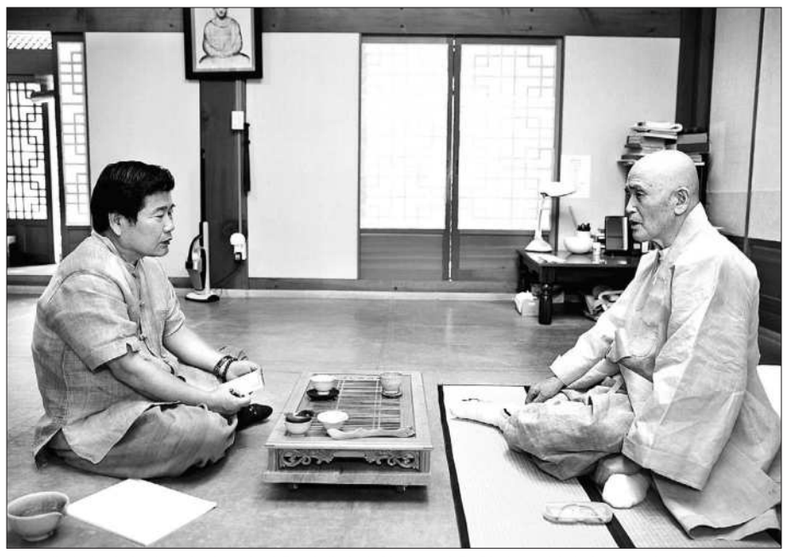
"신미스님은 범어와 티베트어를 통달했지요. 대장경을 열람하시다가 범서장경이 중국으로 들어와 여러 중국고승들에 의하여 번역된 경전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 범서로 된 원전을 직접 보기 위해 범서를 공부했던 것이지요. 훈민정음은 범어의 모음과 자음, 소리글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거지요."

훈민정음은 유불 대립의 산물

네 번째는 〈복천암보감신미당실기(福泉庵寶鑑信眉堂實記)〉에 '신미대사는 범어와 티베트어, 불교경전과 유교경전에 통달했다' 라는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기(實記)라는 의미는 사실의 기록이란 뜻이다. 비록 구전이지만 절에 전해지는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리산 복천암의 신미대사 부도. 솔향이 애잔히 베어 있는 하다.



신미대사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을 평생의 숙원으로 삼은 월성 스님〈사진 오른쪽〉과 소설가 정찬주 씨〈사진 왼쪽〉가 한글창제와 신미대사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창제 앞서 나온 〈원각선종석보〉
신미 스님의 한글 창제 참여 증거
영산김씨 세보에도 명백히 기록돼

월성 스님 "신미 스님 범어 능통
한글은 범어 소리글 착안한 듯"

당시 유학자들은 창제 반대세력
신미 스님 업적 지우기 공세 나서

잊혀진 불중성인 신미 스님
국가적 조명 · 선양 필요해

끝으로 세종이 신미대사를 궁으로 불러들여 선교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禪敎都摠攝密傳正法悲智雙運) 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존자(祐國利世圓融無碍惠覺尊者)라는 시호를 내리려 했다가 신미대사의 병이 위중하여 문종에게 위임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 는 우국이세(祐國利世)다. 유생들과 달리 편견 없이 신미대사를 바라본 세종의 너그러운 마음이 잘 드러난 구절이 아닐 수 없다.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바로 우국이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문종이 즉위년 7월 6일에 세종께서 정한 대로 신미대사에게 시호를 내리자 하위지, 박팽년, 사헌부 등의 유신(儒臣)들이 7월 8일부터 날마다 반대를 한다.

"간사한 중에게 존호(尊號)를 내리었으니 바르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비록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생각하여 행하는 것이 대효(大孝)가 되겠는데, 도리어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을 가지고 선왕의 유교(遺敎)라고 하시니, 의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청컨대 도로 거두소서."

그러나 문종은 바로 물러서지 않았다.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왕사(王師)' 라고 칭하면 불가하겠지만 그 밖의 직(職)은 무방하다.' 라고 하시었다. 이는 왕사가 아니고 다른 직과 같으니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느냐? 만일 세종의 분부가 있었다면 비록 왕사라도 또한 공경하여 따라야 한다."

고려와 달리 조선에는 왕사 제도가 없으니 왕사라고 부를 만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문종의 말이다. 문종의 논리에도 세종과 같이 신미대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문종은 물론 수양대군, 안평대군, 정의공주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신미대사의 역할을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록에는 신미대사를 공경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비웃는 구절도 보인다.

'수온(守溫)의 형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신미라고 하였는데, 수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을 꿇어 앞에서 절하는 등 예절을 다하여 공경하고 수온도 또한 부처에게 아첨하여 매양 대군들을 따라 가서 불경을 열람하며 공경하여 읽으니, 사림(士林)에서 모두 비웃었다.'

결국 문종은 1달 만인 즉위년 8월 7일에 '우국이세' 와 '존자' 라는 단어를 뺀 호로 수정한다.

'신미의 칭호를 고쳐 대조계선교종 도총섭 밀전정법 승양조도 체용일여 비지쌍운 도생이물 원융무애 혜각종사(大曹溪禪敎宗都摠攝 密傳正法承揚祖道體用一如悲智雙運度生利物圓融無碍惠覺宗師)로 삼았다.'

김종서를 중심으로 유교 성리학을 내세우며 신권(臣權)을 펴가던 유신들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신미대사의 존호를 고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종이 총애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작전은 아니었을까? 이를테면 당시 유생들은 훈민정음 창제의 극렬한 안티 세력이었던 것이다.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 등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논리는 한문으로 전해져 온 성리학의 쇠퇴와 명나라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무엇보다 숭유배불이라는 조선왕조의 국시에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신미대사에게 내려진 '우국이세' 는 당치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세종은 신미대사에게 쌀 5백석과 정철(正鐵) 5만 5천 근, 면포 5백필을 내려주었고, 역마(驛馬)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니 유신들의 반발은 문종 때까지 지속적이었고 극에 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조 초기 중에서도 태조부터 세조까지는 겉은 유교국가이나 속은 불교국가였음이 분명하다. 태조는 무학대사를 왕사격으로 예우하며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고, 태종도 겉으로는 불교를 탄압하는 척했지만 성녕대군이 죽자 대자암을 지어 명복을 빌었으며, 세종 또한 수륙재나 약사재를 지낼 것을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에게 지시했고, 특히 신미대사를 침전 안으로 맞아들여 법문을 들을 정도였고, 대군시절에 간 경도감을 지냈던 세조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를 보면 조선초기의 왕실에서는 불교를 여전히 신봉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세력이 불교를 외호했던 왕후나 후궁, 대군들과 공주였던 것을 보면 훈민정음 창제는 유불 대립 내지는 왕권과 신권 갈등의 산물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글 창제의 비밀담긴 〈원각선종석보〉

1999년도에 입적하신 일타스님이 소장했던 〈원각선종석보(圓覺禪宗釋譜)〉 권1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원각선종석보 언해본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시기보다 8년을 앞서고 있다. 훈민정음을 세종 25년(1443년)에 창제했는데 〈원각선종석보〉는 정통(正統) 3년 즉 세종 17년(1435)에 간행됐던 것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이미 신미대사에 의해 만들어져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실제로 신미대사는 해인사에서 여러 장경을 열람하며 훈민정음으로 언해를 시험해보았다고 한다.

한편, 두시(杜詩)에 조예가 깊었던 흥천사 주지 만우(卍雨)스님은 세종의 지시로 두시언해에 착수하였던 바, 의복을 하사받고 예빈시(禮賓寺)에서 3품 관직에 해당하는 녹(祿)을 받았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온다. 언해라면 신미대사의 조언이 필수적이었을 터이고 신미대사가 진관사뿐만 아니라 흥천사에 주석하면서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흥천사가 신덕왕후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만 알려져 있으나 훈민정음 창제의 산실이었다는 문제제기는 학자들의 더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월성스님과 불과 두어 시간을 얘기했지만 신미대사가 살았던 6백여 년의 시공을 넘나든 기분이다. 신미대사가 어떤 분인지는 공감한 까닭에 일어서는 자리가 허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스님이 한 마디 덕담을 던지신다.

"글 쓰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신미스님을 세상에 알리겠소?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오."

복천암 법당에 다시 들어 신미대사의 진영을 봤다. 진영을 자세히 보니 신미대사의 흰 수염이 단전까지 내려와 위엄이 도도하다. 매월당 김시습이 스님을 가리켜 불중성인(佛中聖人)이라 했던 바, 진영의 풍모가 그렇다. 경내에서 5백여 미터 떨어진 산자락에 있는 신미대사의 부도를 찾아가 보니 소쇄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솔향이 코를 찌른다. 신미대사의 법향(法香)을 만난 것 같다.

글=정찬주(소설가) · 사진=유동영(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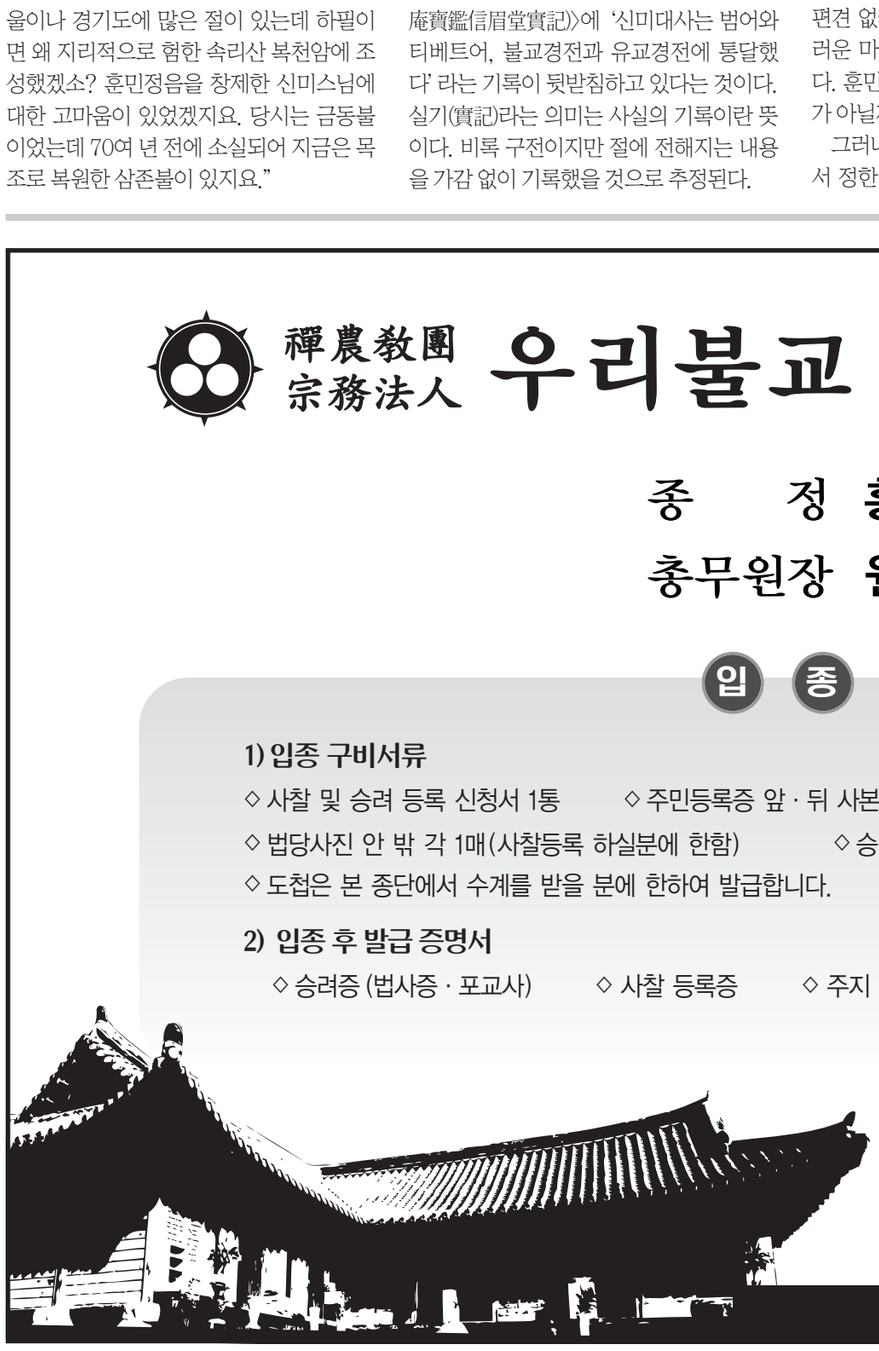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원 각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번지 수도사
전화 041)531-3792 / 팩스 041)544-1080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한글 창제·보급 이면에 불교 있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와 한글〉 학술세미나

22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을 맞아 불교와 한글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이 ‘불교와 한글’을 주제로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국어학자와 그래픽 전문가 등이 나서 한글 창제과정에서 불교의 영향 등을 조명했다.

임홍빈 “유학계 반대에 세종 친제 내세워”

“훈민정음 창제 당시 신미(信眉) 대사나 김수온(金守溫) 같은 불교계 인물이 참여했으며 유학계의 반발을 고려해 세종은 친히 지은 것을 강조했다.”

임홍빈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음자 배열에서 음가를 설명하는 대표자에 이러한 불교적 요소가 드러난다. 또 〈훈민정음〉과 〈훈민정음해례〉의 장수를 합하면 총 33장인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을 상징하는 수”라며 “불교계 인사가 두책을 합하여 총괄하며 이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홍빈 교수는 이어 “특히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제 서문의 글자수는 108자인데 108자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이어 이러한 불교계의 참여는 당대 유학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문종대 〈세종실록〉을 보면 오자, 괴상한 한자, 오류 등이 엄청나게 많다. 왕조의 기록에 부주의해 잘못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세종을 모독하려는 의도를 가진 유학자들의 의도로 세종의 정음 창제와 그 뒤에 이어진 불경 번역 등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수 “불교문화가 한글꼴 형성에 영향”

글꼴 연구의 선구자인 안상수 ag타이포그라피연구소 소장은 두 번째 발표인 ‘문자문화와 불교’에서 조선 말기 까지 불경 언해 과정의 한글 글꼴이 당시 한글 글꼴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예를 들고 현대 한글꼴에 이러한 전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소장은 “당시 한글은 유학자들의 반대로 그들의 관심이 적은 불경을 먼저 언해하며 활용됐다”며 “세종의 명을 받은 수양대군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모은 글을 한글로 번역하고, ‘석보상절 전용 놋쇠활자체’를 주조해 최초의 한글 불경이자 한글 놋쇠 활자본인 〈석보상절(釋譜詳節)〉을 간행했다. 이러한 불경 언해본 간행은 한글을 통한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안 소장은 이어 “조선 말기까지 불경 언해는 꾸준히 진행됐다”며 각 시대별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글꼴을 소개했다.

안 소장은 불경 언해 시작기(1449~)에 한글 창제 원형인 정음체를 계승한 석보체와 월인석보체가 활용됐으며 불경 언해 부흥기(1461~)에는 오늘날 글꼴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지닌 강희안체와 간경도감계열, 정난종체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용됐다고 예를 들었다. 또 안 소장은 불경 언해의 확산기(1517~)에는 경서체 계열, 염불보권문체, 교서관체, 병학지남체, 부모은중경체 등 손글씨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글꼴이 발달됐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세종때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위해 수양대군이 간행한 책이다. 석보체 등 초기글꼴은 이러한 간행과정에서 탄생했다.

‘33장, 108자’ 신미·김수온 참여 증거

초기글꼴 불경언해 과정에서 탄생

안 소장은 “현재 우리 글꼴은 대부분 1900년대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선조들의 한글꼴과는 뼈대를 달리한다”며 “옛 전통 한글꼴을 현대화하는 것은 불교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정우영 동국대 교수의 ‘훈민정음과 불교경전의 관계’,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의 ‘목간을 통해 본 신라 사경소 풍경’, 김기종 동국대 HK연구교수의 ‘필사본 금강경 언해와 월인석보’, 김종진 동국대 교수의 ‘근대불교와 한글’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우 스님, ‘선교’ ‘유불’ 조화… 불교 부흥 기틀 다져

제1회 보우대사 학술세미나… 5일 봉은사에 부도탑비 제막

“조선 명종 시기 보우 스님이 추구한 불교부흥 정책은 조선 후기 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명종대 불교중흥을 이끌었던 보우 스님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10월 2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제1회 보우대사 학술세미나’에서 보우 스님이 주도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불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보우대사 순교 448주년을 기념해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진행한 학술논문 공모에 ‘허응당 보우대사의 불교사적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최우수상을 받아 이날 연단에 섰다.

손 연구원은 “보우 스님은 고려중기 지눌, 조선 초 기화 등 기존 사상을 이어 선교의 조화, 유불의 조화, 염불 수용 등을 펼쳤다”며 “이러한 사상은 서산대사를 통해 구체화돼 조선 후기의 강학체계인 이력과정, 수행체계인 삼문수학 등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또 “보우 스님이 승정 활동을 통해 정치적 차원의 불교 부흥을 이끌었으며 이는 불교계의 인적 쇄신, 승군 동원체제의 마련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은영 한국불교학회 간사의 ‘허응당 보우의 교육사상 연구’, 박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의 ‘16세기 불교회화의 부흥에 있어 보우대사의 영향 연구’, 박종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학술정보관의 ‘조선 전기 종교지형에 대한 보우의 인식’, 이명호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무국장의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분석과 보우대사의 일정론에 기초한 대안 제시’ 발표가 이어졌다.


제1회 보우대사 학술세미나에는 신진학자들의 논문이 대거 입상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봉은사는 2000년 4월 보우 스님의 삶을 재조명해 발간한 〈순교자 보우선사〉를 개정한 한국 불교의 큰 스승, 허응당 보우〉를 발간했으며 5일 경내에 보우 스님 부도탑비를 제막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그동안 조선시대 불교 맥을 살린 보우 스님의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고 요승으로 인식돼 왔다”며 “보우 스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국 불교를 위해 정진하는 수행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문화재소식

동국대 ‘중화대장경’ 완성본 국내 유일 보유

중국 찰합이학회 티베트판 동국대 도서관에 기증 전시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중국찰합이학회로부터 중화대장경(中華大藏經) 티베트판을 기증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화대장경 완성본을 소장하게 됐다.

동국대는 9월 25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기증식을 개최하고, 중국찰합이학회로부터 중화대장경 티베트판 232권을 기증 받았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기존에 중화대장경 한문(漢文) 판과 티베트(藏文) 판의 단주이(丹珠爾) 120권만 소장하고 있었다.

이번 기증으로 티베트 판의 감주이(甘珠爾) 108권을 추가로 소장하게 됨에 따라 국내서 유일하게 중화대장경 완성본을 소장하게 됐다.

중화대장경은 1987년 중국정부가 중국 티베트학연구센터 내에 ‘중국티베트학연구센터대장경대감국(中國藏學研究中心大藏經對勘局)’을 설립하고 티베트 대장경 완성 작업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2005년 완성된 한문판과 2008년 간행된 티베트 판을 합해 완성된 것이다.

이번에 기증된 중화대장경 티베트 판도 이 때 제작된 것으로 단주이 120권, 감주이 108권, 목록 4권 등 총 232권이다.

노덕현 기자

국보 제55호 법주사 팔상전 지붕 해체

국보 제55호인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 팔상전(捌相殿)이 수리를 위해 지붕을 해체했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과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5층 목탑건축 가운데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법주사 팔상전 최상 지붕위의 상륜부(相輪部)가 기울어진 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5층 지붕과 그 상부의 상륜부 해체와 함께 그 중요성을 고려해 기록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단청 기록화와 정밀실측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 인조 4년(1626)에 재건된 법주사 팔상전은 철종 2년(1851)에 수리되고, 1968년에 완전 해체 수리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수리는 재건 이후 세 번째다.

이번 해체수리는 상륜부 철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찰주(刹柱, 상륜부 중심 기둥) 하부와 5층 추녀 등 목부재에 결구 이완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상륜부 철물은 균열부 녹 제거와 보존처리 후 원위치에 그대로 사용하며 찰주 하부와 5층 추녀 등 지붕부는 최대한 기존 부재를 그대로 사용 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보수

보물 제57호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이 일제시대 이후 처음으로 해체 보수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安東 造塔里 五層塼塔)’을 해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은 화강암과 전(塼)돌을 혼용하여 쌓은 탑으로 일제 강점기 해체 보수 후 그동안 부분적인 보수만 진행해 왔다. 지난 2011년 정밀실측과 구조 안전진단 결과 지반의 부분 침하와 탑 내부 적심(積心, 다짐흙)의 유출 현상이 발견돼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체 보수공사는 조탑리 오층전탑의 3차원(3D) 스캔 작업과 전돌·줄눈의 성분 분석을 통해 교체할 전돌을 제작하고 전통방식으로 탑을 보수하게 된다. 이번 해체 보수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 세미나

중앙승가대는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학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한국불교의 선법수용과 그 변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마성 스님의 ‘한국불교의 계율전통’,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원형에 관한 시론’, 이성운 박사의 ‘한국불교의 례의 특성’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봉 행

제42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대법회 및 제16대 회장단 이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일붕문도님 여러분들과 귀빈여러분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붕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근대 불교사에 한획을 그어 놓으신 우리의 스승이신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 제자 (은, 법, 조카, 손상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가 매년 10월 10일이면 봉축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제42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대법회 및 제16대 회장단 이 취임식을 해군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대히 봉행하오니 공사간 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고, 일붕존자님을 다시한번 추앙하면서 존자님의 사상이 먼훗날까지 길이길이 이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일붕존자님의 가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7(2013)년 10월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10월 10일 (음력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해군호텔 대연회장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 101-1 / 전화 02)841-4114)
■ 문 의 : 02)355-0093 문도회 / 02)777-0959 일붕신문사 / 010-6253-4936 서병열 사무총장

* 점심제공(뷔페), 주차장완비, 대방역 지하철 3번출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셔틀버스 운행.
* 축하 화환 대신 불우이웃돕기 쌀로 받습니다.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겸 이사장 의륜 서주범 합장
제16대 회장 동봉 합장

소외 계층 위한 훈훈한 자비행 이어져

호남지역 사찰 · 단체들 다양한 나눔 행사 개최

초가을 날씨를 훈훈하게 하는 호남지역 불교단체들의 자비행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은 9월 27~28일 전주에서 전북지역 내 결혼이주여성과 차상위계층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사) '착한 벗'(이사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주지)이 '즐거운나눔, 함께하는행복' 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나눔바자회는 3000여 명의 전주시민과 불자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날 바자회에는 (사)착한벗들의 한국사회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차넴' 이라는 베트남요리는 내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착한벗들에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타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더불어 명상, 연극, 음악을 활용해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 중독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 더하기 너는 우리(가제)' 라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오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회일 스님은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은 불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고 나아가 복덕을 쌓는 첩경이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불자들이 자비행의 원력을 세워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장들과 환우들을 위한 사찰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개최됐다.

화순 도원사(주지 진철)는 10월 2일 도원사 야외음악단에서 개원 7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가장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4회째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종단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청가수 음악회와 1080연등불사, 신도노래자랑이 개최됐다.

음악회의 시작은 모후산 풍물단의 지심밟기를 시작으로 초청가수 신바람 이박사,

9월 27~28일 이주민 바자회

9월 28일 소아암환우 돕기 음악회

10월 2일 소년소녀가장 음악회

조찬찬, 정현, 정주호, 이서경, 국악살풍이, 광주난타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참가한 청소년가장과 신도들에게 경품이 선사됐다.

주지 진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명한 가을에 청소년가장들과 이웃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도원사는 개원 7주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실천하는 도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가장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과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사찰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진정한 의미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사진 왼쪽〉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착한 벗들이 개최한 나눔바자회에서 베트남 요리를 선보이는 결혼 이주민 여성들.

화순 만연사(주지 자공)도 지난 9월 28일 경내 잔디광장에서 '소아암 환우돕기 일어나 함께가자' 라는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김원중, 채은옥, 박강의, 만연사 합창단이 출연해 고즈넉한 가을 노래로 산사를 찾은 500여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자공 스님은 "작은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소아암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큰 믿음과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산사음악회의 수익금은 전액 백혈병환우들의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꽃무릇과 함께하는 가을의 향연

선운사 제6회 선운문화제 성료, 보은염 이운식 등 진행

꽃무릇이 산하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선운사에서 '제6회 선운문화제' 가 개최됐다. '꽃무릇과 함께하는 선운사의 가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선운문화제는 보은염 이운행사를 시작으로 국악인 김성년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 꽃무릇 시화전, 정미선 초대전 – '사계' , 지장보살 특별전, 동자승 초대전 등의 다채로운 문회행사로 꾸며졌다.

또 지장보궁에서는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의 특별법회 '아름다운 지장신앙' 이 열렸다. 이와 함께 1500년 전 양민들에게 소금굽는 법을 일러준 선운사 창건주 검단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는 봄과 가을이면 은혜를 갚는 다는 의미의 '보은염(報恩鹽)' 을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검단리 주민들이 보은염 이운식을 재연했다.

'김성년와 함께하는 꽃무릇 산사음악회' 는 국악인 김성년와 선운사 합창단,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방수미, 이항윤, 동남풍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 우리전통국악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밖에 만세루에서는 꽃무릇 시화전이 열렸고 고창지역 농산물과 보은염등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나눔장터도 열렸다.

한편, 선운사 지장보궁에서는 전국의 지장탱화를 전시하는 특별전이 11월 17일까지 열린다. 또 정미선 초대전 '사계' 가 10월 10일까지, 정민현 동자승 전이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경내 일대에서 열린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해온 선운사는 이번에도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문화제도 즐기고 절정에 이른 꽃무릇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복운 경로의 날 행사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은 10월 2일 제6회 복운 경로의 날을 맞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고창군 김인호 부군수, 박래환 군의회 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임동규 · 오균호 도의원, 김국재 교육장, 황기석 소방서장, 유덕근 고창농협장과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백일장 수상자 시상과 2부 문화공연 및 어울림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도완 스님은 "오늘 하루 즐겁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고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써 온 오일태(65.고창읍), 이종인(73.공음면), 류형석(76.고수면) 어르신은 모범노인 표창을 수상했고, 이종인(73.공음면), 서경금(72.부안면), 김점동(66.고창읍) 어르신은 실버 백일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효사 '사랑의 밥차' , 생명나눔의 새 시도


사랑의 밥차 행사 이후 장기기증에 동참하는 장병들의 모습

군 장교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가 진행됐다. 광주 원효사는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원효사 주지)와 공동으로 9월 29일 전남 장성 상무대 군법당(법사 금정)에서 '사랑의 밥차 및 생명나눔 장기기증과 헌혈증 캠페인' 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와 후원 업체인 차이나궁의 협찬으로 국군 장병 300여 명에게 자장면 보시가 진행됐으며 생명나눔 홍보도 진행됐다.

이날 현지스님은 인사말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음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사랑의 밥차 외에도 백혈병 환우들의 현황과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등록사업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22명의 장병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완료했다.

상무대 금정 군법사는 "많은 사찰들이 늘 군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한국의 미래인 젊은 장병들에게 불교대중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원효사는 이날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들이 사진작가로… '2013 서원 사진전'


서원노인복지관 2013 사진전에 동참하 어르신 작가들과 보연 스님(왼쪽 네번째)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사진강좌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작품을 전시하는 '2013 서원사진전' 을 9월 27~30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인생의 황혼을 빛으로 말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관장 보연 스님의 사진작품을 비롯해 1년 동안 사진반을 지도해온 김경섭 스튜디오 맑음 대표의 작품과 사진반 어르신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작품은 주로 전주 덕진공원, 대둔산, 진안 마이산, 담양 소쇄원등지로 어르신들이 직접 출사를 나가 촬영한 '생명의 숲' '옥정호의 아침' '환희 등이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어르신의 삶에 대한 의욕고취와 배움의 열정을 증진하고 적극적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보연 스님은 "사진전시회는 배움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모범적인 어르신의 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열심히 배운 사진작품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금강산림 10월 2일 첫 법회

11월 20일까지 혜남 · 정우 · 수불 스님 등 법문

수행의 계절 가을에 불자들의 공부바람을 일으킬 법회가 개최된다.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10월 2일 첫 법회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8명의 선지식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제 9회 금강산림대법회' 를 개최한다. 10월 2일 첫날 입제식 및 첫 강연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릇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과 확고한 실천을 통해 수행정진에 매진하여야 마침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며 "모두가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수행정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금강산림대법회는 이날 보성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10월 9일 승원 스님(백련사 주지), 10월 16일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10월 23일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 10월 30일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11월 6일 영조 스님(쌍봉사 회주), 11월 13일 법흥 스님(송광사 동당), 11월 20일 정수 스님(봉선사 주지)이 법사로 나선다. 특히 회향일인 11월 20일에는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점안식 행사도 함께 봉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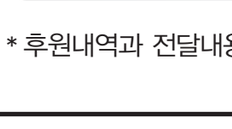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보살님께 공양 올린 청년들 '화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9월 28~29일 보살님 수련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린이 · 청년회 회원들이 9월 28일~29일 1박 2일 동안 열린 보살님 수련회의 공양 뒷바라지를 도맡아 눈길을 끌었다.

9월 28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공양간에 앞치마를 두른 청년들이 공양 준비에 분주하다. 요리에 서툰 청년들이 공양간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린이 · 청년회 회원들이 9월 28일~29일 보살님 수련회의 뒷바라지를 도맡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일체의 공양과 간식, 수련회에 필요한 모든 일손을 어린이, 청년 등 부산지원에서 함께 공부해왔던 어린 도반들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짬을 내기 어려웠던 우리들의 엄마이기에, 또 그동안 어린이 · 청년 수련회가 열릴 때마다 두 팔 걷고 뒷바라지 해준 보살들이기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어린 도반들의 각오는 각별해 보였다.

어린이 법우들은 조막손으로 첫날 샌드위치 간식을 만들어 공양 올렸고, 청년회 1 · 2부는 매 끼마다 공양을 정성껏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말끔히 해결했다.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체의 비용도 어린이회, 청년회 회비에서 충당했다. 그리고 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물품 점검, 프로그램 도우미도 모두 맡아 보살들의 수행에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온 마음을 쏟았다.

어린이 · 청년 등 보살 수련회에 회비 모아 1박 2일 공양 지원

청년회 2부 최정민 회장은 "매 수련회마다 보살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셨는지 그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며 "이렇게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52명의 보살들은 어린 도반들의 뒷바라지 덕에 인생 최고의 휴가를 누리고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남홍 보살은 "어린 사람들이 어찌나 음식을 맛있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마음공부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이 공양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원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연신 칭찬과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다.

'너 나 하나라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28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첫날 다도, 선법가 테라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어린이, 청년들이 수련회 뒷바라지를 맡아 해주니 신도님들 한분 한 분의 화합에 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한길을 걷는 수행자가 되었다. 너 나 하나라네 주제 아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사한 수련회"였다고 신도들의 화합된 모습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삼광사 극락전 불상봉안 점안 및 낙성식

2003년 기공식 10년 불사 완성


부산 삼광사가 10월 4일 '극락전 불상봉안 점안 및 낙성법요식'을 개최했다.

부산 삼광사가 '극락전 불상봉안 점안 및 낙성법요식'을 개최했다. 삼광사 극락전은 2003년 4월 10일 기공식을 가진 후 10여 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

10월 4일 삼광사 극락전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예하를 증명대법주로 모시고 총무원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종회의장 문덕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국회의원 이헌승 삼광사 신도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함께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법화도량인 삼광사가 아미타 48대원 성취를 증명하는 극락전 낙성식을 통해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천태묘법이 충만한 도량이 되었다"며 감회를 전했다.

삼광사 극락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에 다포양식의 사모지붕을 한 한국전통형식의 정사각형 전각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860여 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과 2층은 객사, 지상 1층과 2층은 복층구조로 가운데 불단을 놓고 닫집을 달아 사방에 2만 5천기에 달하는 위패를 모실 수 있다. 3층은 법당 중심부에 4면으로 불단을 놓고 아미타 부처님을 주존불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이 서로 등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 위에 닫집을 장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세계평화 기원 수륙대재

9월 29일 삼천포 대교공원서


(사)대원불교조계종 9월 29일 수륙대재

(사)대원불교조계종은 9월 29일 세계평화와 국태안민을 기원하는 수륙대재를 사천시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과 총무원장 해오 스님, 원로회장 무공 스님 및 지역 관계자 등 사부대중 2000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발원문 낭독과 원로회장 무공 스님 대회사 등이 이어졌다. 이날 증명 대법주이자 종정인 청봉 스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베풀면 그 고마움을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듯이 불쌍한 고혼들을 위로해 주고 함께 천도해 주면 더욱 크나큰 공덕이 생긴다"고 수륙재를 여는 의미를 전했다.

대원불교조계종은 이날 수륙재에서 모인 보시금 금일봉과 쌀 80포대를 삼천포 라이온스 클럽 박종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돌쌓기 하나도 전통미가 우선

조경석쌓기라는 말이 있다. 말인즉슨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사면에 돌을 눕히거나 세우면서 들쑥날쑥 쌓아올리고 돌과 돌 사이의 빈 공간에 낮은 키의 꽃나무나 상록성관목을 심어 치장하는 돌쌓기방법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의 조경계에서는 이러한 돌쌓기방법을 일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 어디를 가 봐도 이러한 돌쌓기 방법으로 시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쌓기방법의 시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국의 경우 못의 호안을 축조할 때 크고 작은 돌과 납작하거나 길쭉한 돌을 조합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석조(石組)라고 하여 돌을 조합해서 경관적으로 특별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조경석쌓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대석이나 사괴석과 같이 잘 다듬은 돌이나 못생긴 막돌을 첩첩이 겹쳐서 쌓아올리는 돌쌓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대석은 주로 궁궐이나 왕실의 원찰에서 사용하는 재료였고, 네모난 사괴석은 사대부가와 같이 비교적 신분이 높은 집에서 사용하였으며, 막돌은 서민들의 집처럼 평범한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주변에 큰 돌이 많았던 사찰의 경우에는 덩치가 큰 자연석을 쌓아올리기도 하였는데, 그 한 예가 바로 부석사 석단이다. 이처럼 공간에 따라서 재료는 다를 수 있었지만 쌓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첩석쌓기였던 것이다.

최근에 사찰에 가보면 예의 조경석쌓기 방법으로 사면을 처리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스님들이 조경에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소위 조경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온 돌쌓기방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전통사찰의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일반사찰의 경우에도 조경석쌓기와 같이 국적도 없는 돌쌓기방법으로 석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찰의 경관이라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적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쉽게 시공을 할 수 있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전통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돌쌓기 하나에서도 한국의 전통미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국사찰이 면면히 계승해온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현재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경석쌓기는 전통사찰에서 계승되어온 돌쌓기방법이 아니다. 사진은 경기도 ㄱ사찰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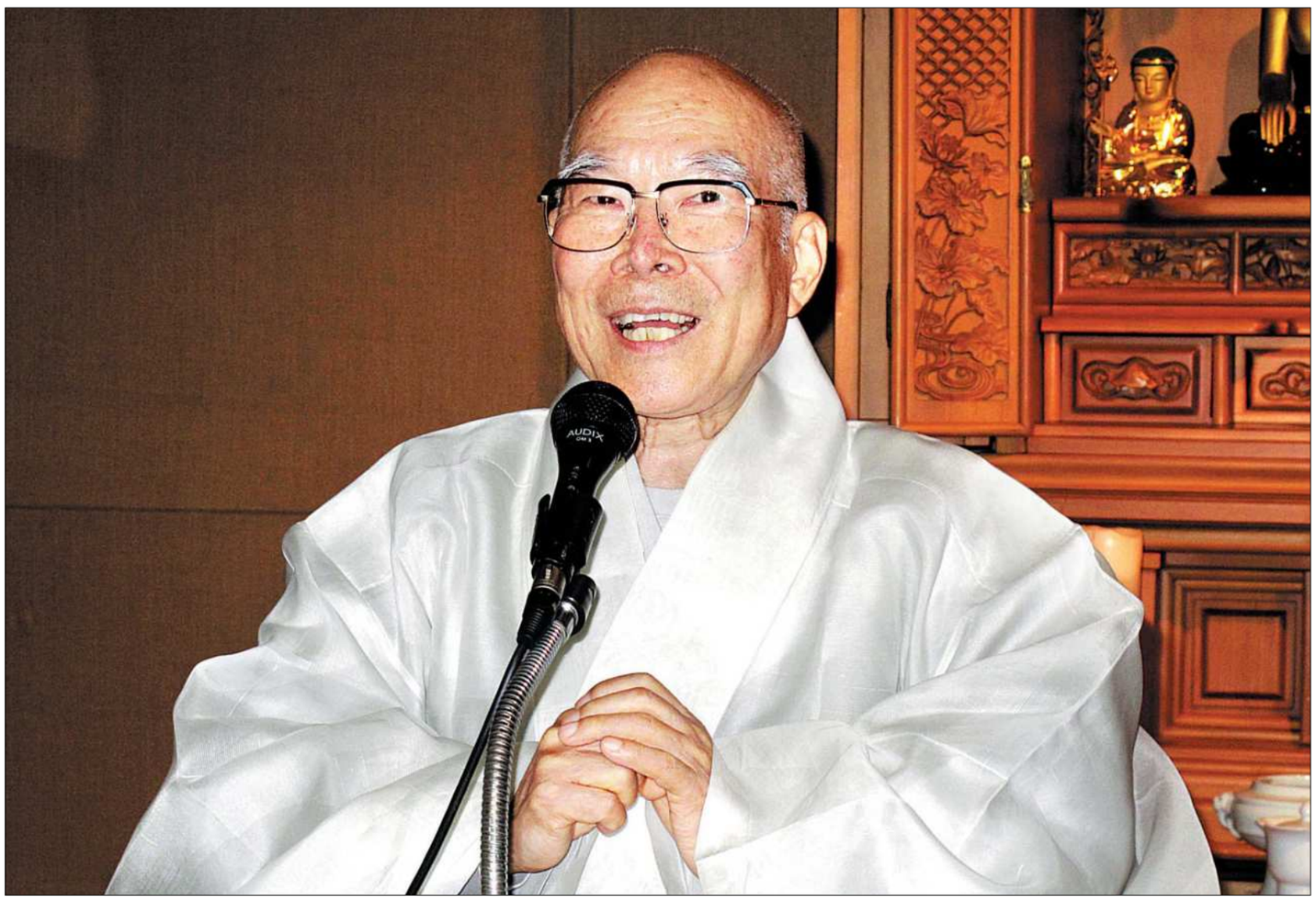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중도의 생활화 통해 불교개혁 이뤄내야”

참여불교리더스포럼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자정과 쇄신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우 스님은 개혁은 제도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불교의 중도를 통한 의식개혁을 주문했다. 10월 2일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주최한 리더스포럼에서 고우 스님을 만나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고우 스님은 … 청암사 수도암에서 출가했다. 봉암사, 묘관음사, 범어사 등 선원이나 암자에서 수행 정진해 왔다. 조계종 총무부장, 전국선원수자회 공동대표,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2008년에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는 봉화 문수산 금봉암에 주석하며 조계사 선림원 증명법사를 맡아 간화선의 생활화와 사회화에 주력하고 있다.

불교는 하나입니다. 재가불교 출가불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단의 자정과 쇄신에 대해 재가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스님된 입장으로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도 분명해야 하죠. 불교의 방법과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속에는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의 핵심, 중도입니다. 선, 교학, 율 등 불교에 접근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중도를 이해하고 생활화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도 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대상에 물들지 않고
숨을 마실 때는 나에 머물지 않아
이것이 중도의 생활화

중도로 일구는 불교의 생활화

선은 이론보다도 체험을 목적으로 합니다. 달마대사의 스승인 반야다라존자는 중도를 선의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반야다라존자가 교학이 융성한 남인도 향지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스님들이 국왕 앞에서 독경을 하고 있는데 반야다라존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고 국왕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존자는 “숨을 내쉴 때는 대상에 물들지 않고 숨을 들이쉴 때는 나라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독경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라는 데 머물지 않으면 대상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는데 끄달리기에 좋은 일을 접하면 기분이 좋고 나쁜 일에는 역시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활화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이 불교의 생활화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으로 생활할 것인가하고 참구하는 것입니다. 숨쉴 때 조차요.

천수경이든 금강경이든 우리가 경을 읽는 목적도 이와 같지요. 안으로 내안에 머물지 않으면 밖으로도 끄달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밖으로 끄달리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도 끄달리지 않습니다. 둘이면서 하나죠. 이것이 곧 불교고 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중도의 생활화, 중도의 재현입니다. 경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외우고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독경이 아닙니다. 경을 외지 못하더라도 중도의 마음으로 생활하면 독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서 답을 구하는 선사들

2조 혜가 스님은 달마대사에게 몇 날 며칠 법문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눈이 와서 허리까지 차도 합장한 채로요. 그때서야 혜가 스님의 진심을 보고 달마대사가 법을 전해주게 됩니다. 심심풀이로 불교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목숨 바치는 마음으로 불교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마대사는 혜가 스님에게 무엇 때문에 법을 구하려 하는지 물었고 혜가 스님은 마음이 불안하다며 편안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혜가 스님이 갖는 불안, 인류가 갖는 공통 고민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 불안해하는지는 잘 모르죠. 장래, 건강, 경제, 지위 때문이긴 한데 이런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혜가 스님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안을 들여다봐도 없습니다. 혜가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했다면서요.

혜가 스님의 제자 3조 승찬 스님도 출가하기 전 문둥병에 걸려 마음에 맺힌 한 때문에 고뇌에 빠집니다.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 고통을 겪느냐고 한탄하는 승찬 스님에게 혜가 스님은 그 죄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4조 스님 역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고 3조 스님께 묻습니다. 3조 스님은 누가 묶어놓았냐고 되레 반문하죠.

중도에 대한 이해가 개혁의 첫 순서

이 세분들의 공통점은 해답을 안에서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자꾸 밖에서 찾기 마련입니다. 제도도 고치고 사람도 바꾸죠. 그러나 안에서 찾지 않고 밖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재가운동은 의식개혁보다는 제도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의식이 먼저고 제도는 나중입니다.

불교를 이해하고 중도를 이해하는 게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불교의 문제 해결 역시 의식개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도 의식개혁을 하기 전에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고뇌를 하시다 해결책을 찾아나섰습니다. 출가해서 존재원리를 깨달은 후에 의식만 변화시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런 후 45년 동안 중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은 개개인들이 혼자서 이뤄내기에는 요원합니다.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를 추구하는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집단의식이 바뀌어야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며, 의식개혁은 꾸준히 해야 하는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혜가 스님은 불안한 마음 가지고 오라는 달마대사에 의해 깨달았지만 그런 경지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은 범부는 논리적으로 불교를 이해해 가면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불교적 논리로 사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뭔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중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법당가서 부자되고 출세하길 기원하죠.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밖으로 찾으니까요. 안에서 찾으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내가 있다는 전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 과연 ‘내’가 어디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걸 찾아서 해답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모든 갈등은 나에게서 비롯

반야심경에는 오온 즉 몸을 뜻하는 색과 마음을 뜻하는 수상행식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 불만, 갈등 등을 가져오는데도요. 인류의 고통, 갈등, 대립, 투쟁의 원인이 ‘나’에 있습니다. 인종, 민족, 이념, 종교 이런 것들 역시 ‘내’가 있은 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게 한 근원을 찾아가면 결국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때문에 인종, 종교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림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제게 핀잔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좌복에 앉아 있는 스님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면서요. 그러나 내가 있다는 걸 전제 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건 스님이나 재가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존재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에 갈등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270조라고 합니다. GDP가 1000조 원인데 그 중 27%가 갈등소모비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를 이해하면 그런 돈이 복지 등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되겠죠.

형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아

시골에 가면 새끼, 가마니, 짚신, 덕석이 있습니다. 모양, 크기, 쓰임새는 제각각이지만 재료는 짚입니다. 우리한테도 그것이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불교는 짚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아, 공, 본질, 짚입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몸이 한 개체라고 생각하고 이를 나라고 이해하지만 파인만 박사는 몸을 수억 만개의 원자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원자를 가지고 자기라 할 것입니까. 그 수억 만개는 연기입니다. 연기되었기 때문에 공인 거죠.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었던 힉스입자는 137억만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 최초로 존재했던 입자입니다. 다른 에너지를 만나면 물질화가 되는 비물질로, 이렇게 본다면 힉스입자 역시 연기이자 공입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흑백도, 인종도, 모든 차별이 없는 자리가 힉스자리입니다. 오온이 공했다는 것입니다.

형상 혹은 작용하는 면이 손바닥이라고 하면 손등은 본질이라고 합시다. 손바닥과 손등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상과 본질은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는 형상,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알면 모든 갈등이 녹게 됩니다. 이를 중도라 합니다. 형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자리한 본질도 내 속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오. 외형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생활하면 전과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본질과 형상은 하나
이를 알면 갈등 없어져

조선시대 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한

진관사 국행수륙대재



귀의삼보 하옵고,
600년 역사의 진관사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는 서울 · 경기 지역의 유일한 국행수륙재입니다.
국행수륙재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발원한 최대의 불교의식으로서 왕실과 백성 그리고 생명있는 것과 생명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은혜로움이 미치기를 기원하였던 전통적인 불교의식입니다. 2013년 가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이 법연(法筵)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칠재회향 ◉1부 2013년 10월 12일(土) 오전 10시 ~ 오후 5시, 고산 큰스님 법문(오후 3시 30분)
◉2부 2013년 10월 13일(日)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문 의 ☎ 02)359-8410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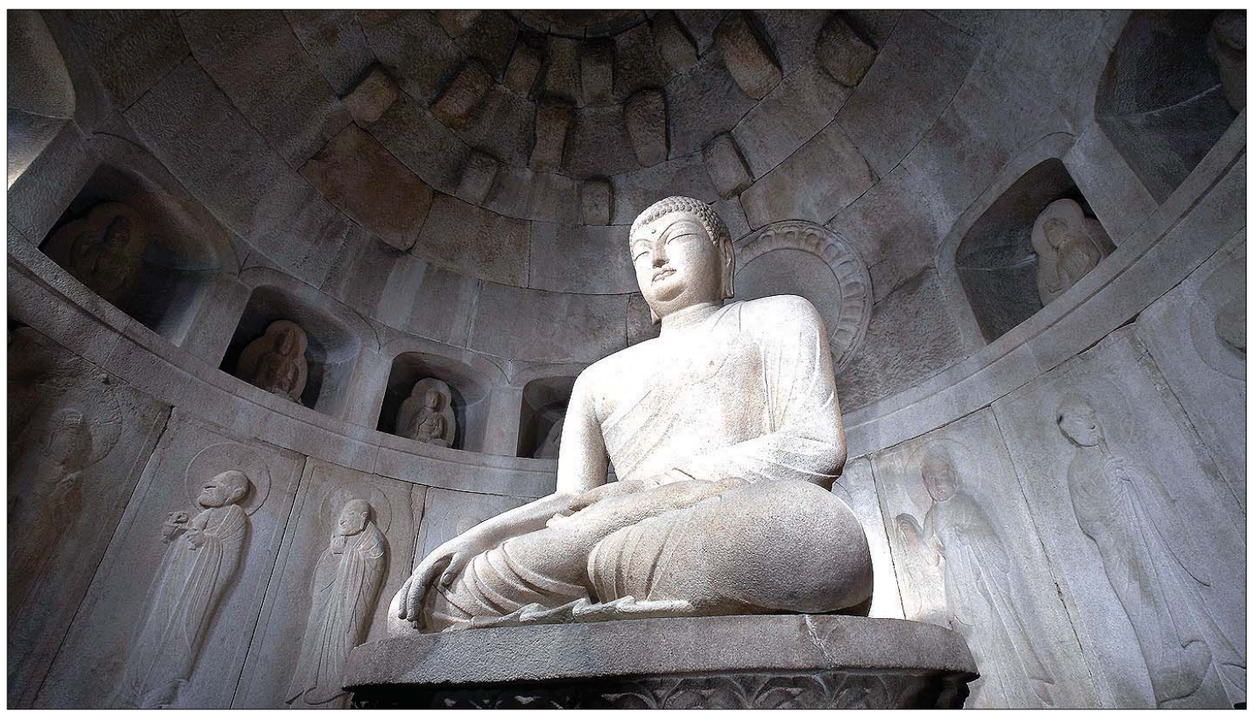


불교와 미학

부처님의 손짓, 수인

부처님이 보이신 손짓, 그 뜻 알 수 있을까





선운사 비로자나불〈사진 왼쪽〉과 석굴암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사진 오른쪽〉.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지권인' 이며 석가모니불의 수인은 '항마촉지인' 이다. 부처님의 몸짓인 수인은 진리의 방편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불상을 구별하는 피상적 지식이 아닌 진의를 알아야 한다.

2500여 년 전 인도 영축산,

산 정상에 오르신 부처님은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이어서 제자들이 제각기 그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뒤따라온 하늘의 신들과 선남선녀들이 하나둘씩 제자들 뒤에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다. 곧 좌중이 정돈되자, 대중들은 세존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따라 세존께서는 가만히 좌중을 둘러보시고는 묵묵히 계실 뿐이었다. 이윽고 대범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꽃을 바치며 세존께 법문을 들려주시기를 청하였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대범천왕이 바친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여주셨다. 그의 영민하고 뛰어난 제자들도, 전 우주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진 하늘의 왕들도, 신앙심 깊은 선남선녀들도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멀뚱멀뚱 서로 돌아보며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이때 멀찍이 대중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던 가섭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이제 가섭에게 맡기노라."

이 날, 두 사람이 나눈 미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연꽃을 들어 보이신 부처님의 몸짓은 불멸의 몸짓이 되었다.

불교에는 수많은 종류의 불상이 있다. 탄생으로부터 열반까지 부처님 일생의 중요한 순간을 형상화한 것은 물론이고,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상을 바라보며 종종 "저 불상은 어떤 부처님일까?"라고 궁금해 한다.

어떻게 많고 많은 불상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을까? 비스듬히 누워 한쪽 손으로 머리를 괴고 있는 불상이 있다면 그것은 열반상이다. 그런가하면 한손으로 위로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서 있는 불상이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탄생불(誕生佛)이다. 사이즈도 작고 주로 법요식 때 관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자세이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불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불상은 연화좌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것은 모든 불상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거니와, 눈썹을 살짝 감고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정좌하고 있는 저 부동의 몸과 적멸의 얼굴에서 어떤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불상의 손짓, 즉 수인을 마치 주민등록증이나 되는 것처럼 불상들을 변별하는 기호체계로 알려져 있다. 선정에 든 부동의 몸이 모든 불상의 공통된 근거라면, 몸의 움직임, 즉 몸짓은 각 불상에 고유한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표지와 같다. 특히 손의 동작은 너무나 다양해서, 열 손가락으로 그처럼 많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하다.

먼저, 왼손 집게손가락을 펴서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왼손의 집게손가락을 서로 대고 있다면 비로자나불이라고 판명된다. 이 손모양을 지권인(智拳印) 또는 법계정인(法界定印)이라고 한다. 만약 결가부좌한 자세에서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에 얹어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수인으로 인식된다. 이 손모양은 보통 촉지인(觸地印),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또는 지지인(指地印)이라고 부르는데, 정각을 성취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이 마라의 훼방을 물리쳤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신(地神)을 가리키는 손짓이다. 여기에 선정인(禪定印), 전법륜인(轉法輪印), 시무외인(施無畏印), 여원인(與願印)을 합쳐 석가여래 근본 5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불상이 구품화생을 표시하는 미타정인(彌陀定印)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 아미타불일 것이다.

이렇게 암호를 해독하듯이 하나의 불상에 하나의 수인을 대응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로소 불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만족하며 떠난다. 그런데 가끔 아미타불이 선정인을 한 경우도 있고 비로자나불이 선정인을 취한 도상도 종종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의 수인이 반드시 하나의 불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을 불상을 변별하는 기호로 여기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이해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불상 마다 맺어진 수인들
명호를 알게 한 단초로 활용
피상적 지식만… 진의는 몰라

모든 수인, 본질 표현의 몸짓
부처님의 자비와 방편을 의미
'염화미소' 진리, 수인에 담겨

그렇다면 부처님의 손짓, 곧 수인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옛날 데바닷다의 모략으로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돌진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부처님은 가만히 서서 오른손을 번쩍 들어 손바닥을 활짝 폈다. 순간 그 기세에 눌려 코끼리가 멈추어 섰다. 그저 손바닥을 펴서 들었을 뿐인데 사나운 코끼리가 멈춘 것이다. 이후로 이 손짓은 모든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도장, 시무외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동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몸짓이지만 그 몸짓을 한다고 모두 코끼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기에 가능한 일,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몸짓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인은 부처의 본질을 이루는 몸짓이다. 그래서 이 몸짓을 수인(手印) 또는 무드라(Mudra)라고 한다. 수행자가 수인을 맺으면 불보살의 힘을 느끼고 수용할 뿐 아니라 그것과 일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결인(結印)이라고도 한다. 무외인, 촉지인, 선정인 뿐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이나 문수사리의 칼, 염마왕의 인두창 같은 구체적인 기물까지도 모두 깨달음의 경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는 중국불교의 체용 논리를 몸과 몸짓의 관계로 해석한 박성배 선생의 해석을 빌려, 불상의 몸을 부동의 깨달음, 적정삼매 그 불멸의 깨달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매번 다르게 표현되는 몸짓(손짓)을 부처님의 자비와 방편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부처님의 자비 대용이 열 손가락으로 표현된 것, 다시 말해 수인은 자비의 시현우주를 아우르고 모든 생명을 거두는 다함없는 부처님의 자비가 현현되고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탄트라불교 전통에서는 심지어 왼손은 지(止)를, 오른손은 관(觀)을, 또는 정(定)과 혜(慧), 권(權)과 실(實), 자(慈)와 비(悲)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손짓이 그와 같은 깊은 정신적 경지를 구현하는가? 얼굴을 제외하고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정신적인 부분이 바로 손이다. 어느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손이 가는 곳에 시선이 따라가고, 시선이 가는 곳에 정신이 향하게 되며, 정신이 머무는 곳에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의 묘사에 집중했던 중국 전통과 달리, 인도 전통에서는 손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지금 당장 합장을 해보라. 손바닥을 마주 대하고 시선을 그곳에 모으면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된다. 아주 단순한 동작에도 마음이 깃들게 마련이다. 합장한 손은 저절로 신체의 중심축에 놓이고 그곳에 충만해지는 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합장 하나만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다.

인도인에게 몸은 수행에 있어 방해물이 아니라 탁월한 통찰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편이었다. 인간의 몸은 신을 현현하는 그릇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몸짓, 곧 수인은 종교적 경험을 강화하는 제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시바교와 탄트라불교에서는 강력한 주술적 힘을 발휘하며 깊은 선정의 상태를 표시하는 징표로 이해되었다. 탄트라불교에서는 '삼밀상응 즉신성불(三密相應 卽身成佛)' 이라는 교의에 따라 수인은 삼밀(三密), 다시 말해 몸으로는 수인을 짓고 입으로는 다라니(陀羅尼)를 외우며 마음으로 삼매(三昧)에 드는 비밀한 수행법의 하나로 실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 몸짓은 일종의 언어로서 기능을 하였다. 인도 전통춤에는 108가지의 몸짓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 모두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신성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믿어졌다. 그것은 수화처럼 정확하게 세밀한 기호체계이며 브라흐만 계층과 상류층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상징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면모를 무한하게 표현하며 신성한 근원을 현시하는 신적인 것의 현현이라고 이해되었다.

밀란 쿤데라는 그의 소설 〈불멸〉에서 '불멸' 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불멸을. 그는 소설에서 아네스가 고개를 돌리며 손을 들어 올리는 몸짓처럼 어떤 사람의 독특한 몸짓이 누군가의 기억에 새겨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그 몸짓 덕택에,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그녀 매력의 정수가, 그 촌각의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러나 몸은 사라지고 몸짓만 기억된다면,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키치가 빚어낸 이미지들이 지배하는 이마골로지(imagology)의 시대라고 명명했듯이, 우리는 불상의 수인을 알았다고 만족하며 떠나는 사람들처럼 부처님의 몸짓으로 그 몸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원본이 없는 이미지들만 남아 부유하는 이 시대에 '세존이 꽃을 들자 가섭이 미소를 지은 뜻' 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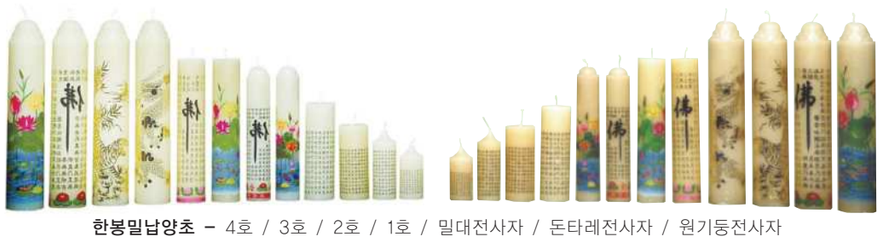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에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② 만경대(萬景臺)



무학대사가 새 도읍의 미래 조망한 자리

해발 800m. 봉우리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 만 가지 풍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경대라 부르며, 국망봉이라 불리기도 한다. 만경은 불교에서 만상(萬象)을 비추는 해인(海印)의 의미로 쓰인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도읍지를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성계의 부탁을 받은 무학대사는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진 계룡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막상 가서 지세와 산세를 살펴보니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무학대사는 다시 발길을 돌려 한강유역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니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과연 길지로구나. 여기다 왕조를 세우면 되겠구나. 무학대사는 만족한 얼굴로 주위 산세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그 때 한 노인이 소를 몰고 가며 "이 놈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하면서 소 엉덩이를 회초리로 후려갈겼다.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귀가 번쩍 띄어서 "노인어른, 지금 소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하며 쫓아가서 물었다.

'만경' 은 만상을 비추는 '해인' 의 뜻
거울이 되어 산 아래 세상 보여줘

"미련하기가 무학 같다 했소."

노인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며 대답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학대사가 노인 등 뒤에 대고 간곡히 물었다.

"무학이 요즈음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소."

노인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무학대사는 그 노인이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알고 쫓아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바로 그 미련한 무학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천년대계를 세울 도읍지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들고 있던 채찍으로 서북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십리쯤 더 들어가서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시오. 그러면 도읍지가 보일 것이오."

노인은 이렇게 말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

무학대사는 노인이 사라진 쪽을 향해 공손히 합장 한 후 서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십리쯤 걸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길지 중의 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명당이로구나!"

무학대사는 지금의 경복궁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한참동안 무아경에 잠겨있던 무학대사는 널따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선정에 들었다. 한양을 에워싼 주변 지형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풍부한 수량을 지닌 큰 강이 유유히 흐르기도 하고, 넓은 옥토가 끝없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리고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그때 어깨를 맞대고 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우뚝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봉우리를 보는 순간 이성계는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감탄했다. 그 봉우리들은 석왕사에 있을 때 삼매 속에서 본 바로 그 봉우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장군한테 일러줬던 그 봉우리들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무학대사는 자신이 그 봉우리를 올라 가 봐야 한다는 자기 암시 같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이튿날 일찍 북쪽에 있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은 온갖 잡목과 덤불로 뒤엉켜 있었다. 무학대사는 들고 있던 주장자로 잡목과 수풀을 헤쳐 길을 만들며 산길을 올랐다. 얼마간 그렇게 산길을 오르자 뿔처럼 우뚝하게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여기로구나!"

무학대사는 삼매에서 본 봉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봉우리임을 알고 걸음을 멈춰 섰다. 그러면서 고개를 젖히고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가슴은 감개무량했다.

"백운(白雲), 저 봉우리가 바로 백운이군."

무학대사는 흰 구름에 쌓여 있는 봉우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수 이성계에게 찾아가서 하늘의 뜻을 확인하도록 권했던 봉우리, 백운!

무학대사는 백운대 옆에 있는 봉우리 위로 올라갔다.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굽어보니 바위 능선과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우애 좋은 형제들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멀리 강과 들판이 풍요로운 곳간처럼 한양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만하면 도읍을 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무학대사는 도읍을 정함에 손색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용히 선정에 들었다.

왕위를 놓고 형제들 간에 각축이 벌어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파당을 만들어 싸움질을 하는 게 보였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잦아 백성들이 고달프게 사는 모습도 보이고, 가뭄과 홍수로 나라 안이 황폐해 지는 것도 보였다.

"사람도 아이에서 어른이 되려면 각종 시련을 겪어야 하듯, 땅 역시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어쩌랴 ! 그러나 육백여 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은 번영의 시기가 도래 해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며,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계의 중심을 만들어 갈 것이다."

무학대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선정에서 깨어났다.

선정 속에서 미래에 펼쳐질 만상의 모습을 본 무학대사는 해인海印의 의미를 담아 그 봉우리를 만경대(萬景臺)라 명명 했다.

〈얘기꾼〉 소설가 이종숙

삼보 상징하는 淸水, 세간의 염원도 담네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② 교토 청수사





일본 법상종의 총본산인 청수사의 전경〈사진 왼쪽〉과 본당의 주불이자 일본의 국보인 십일면관세음보살상〈사진 오른쪽〉. 일본의 국보인 청수사 본당은 139개의 나무기둥이 못 하나 없이 세워져 장엄미를 더한다. 청수사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일본의 교토는 794년 간무천왕이 수도로 정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도쿄로 수도를 옮기기 까지 약 천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다. 그래서 일본의 교토지역 사람들은 다른 도시 사람보다 자부심과 긍지가 엄청나다. 실제 교토 토박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삼대(三代)가 교토에서 거주했어야 할 정도다.

그만큼 교토에는 고찰이 많고, 그 중에는 미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적지 않다. 교토의 청수사(淸水寺)가 바로 그런 곳이다.

청수사는 서기 780년경 엔친대사(延鎭上人)가 꿈속에서 맑은 물을 찾아가라는 현몽을 꾸고 이를 찾아 헤매이다 소나무와 흰 구름을 두루고 있는 음우산(音羽山) 중턱 오토와의 폭포 근처에서 수행 중이던 한 선인을 만나게 된다. 그 선인으로부터 나무조각을 건네받은 엔친대사는 '십일면관음' 을 조각해 선인의 암자에 봉헌한 것으로부터 청수사의 역사는 시작된다. 천년을 이어 온 고찰 청수사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청수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성스러운 물인 '청수(淸水)' 다.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 물을 먹기 위해 지금도 많은 순례객과 관광 인파가 청수사를 찾는다.

청수사의 '청수' 는 본당 무대 아래에 있다. 오토와 폭포에서 나오는 물이 석재로 만들어진 수구(水口)를 따라 세 줄기로 흐르고 있다. 본래는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장수(건강), 결혼(사랑), 학문(학업)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변화했다.

오토와 폭포 앞에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육근이 청정해지고 소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있다. 삼보에 귀의하는 예경심을 상징하는 폭포는 이제는 세간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다.



청수사의 명물 '오토와 폭포' . 세 줄기의 물은 장수, 결혼, 학업을 상징한다.

장수 등 기원하는 세 물줄기
이 물을 마시러 참배객 몰려
본당 등 전각, 빼어난 건축미

청수사에서 문화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본당이다. 절벽위의 10m의 절벽에 세워져 그 아찔함이 자랑인 본당 마루는 139개의 나무 기둥에 못 하나 없이 세워졌으며, 이 같은 조형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의 국보로 등록돼 있다. 실제 가파른 경사지에 목재 기둥과 보를 엮어 올려 본당을 이뤄낸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안타까운 것은 원래 건물은 화재로 전소됐다는 점이다. 현재 본당은 1633년에 그대로 복원한 것이지만 1200여년 전에 이런 거대한 건물을 경사지에 세웠다는 점은 당시의 일본인들의 불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당의 주불은 창건주인 엔친 대사가 선인에게 건네받아서 조성했다고 하는 십일면관음보살이다. 일본의 국보인 '십일면관음보살상' 은 비불(秘佛)로서 일반에는 어지간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본당의 현판도 눈길을 끈다. 청수사 본당의 현판에는 '자안시중생 복취해무량(慈眼視衆生 福聚海無量,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굽어 살피고 복은 바다와 같이 한량이 없다)' 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나오는 경구로 관세음보살의 자재함과 공덕을 함께 칭송하는 장면이다.

관세음보살을 의심하지 말고 애경하고 의지하며, 일심으로 예배를 올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당과 주불, 오토와 폭포까지 청수사는 인간사의 염원과 소망을 기원하는 것으로 점철돼 있다. 이 같은 신앙을 '타력' 이나 '기복' 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한국불교 정서 안에는 적지 않으나 일본불교는 이를 친숙하게 생활 안으로 녹여내고 있다. 옛 문화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일본의 젊은 연인들과 여고생들이 사찰 경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주 목도할 수 있는 점도 일본불교의 강점이다.

본당을 나오면 음우산 정상 중턱을 따라 긴 산책길이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교토의 전경은 청수사의 또 다른 볼거리다. 또한 청수사의 다른 전경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사찰 순례의 즐거움이다.

조금 더 첨언하면 청수사를 오르는 비탈길에는 좌우로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한국 사하촌 상가들과 비슷하다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난잡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다. 마지막 상가부터 인왕문 앞 고개를 '3년 고개' 라고 한다. 이유는 여기서 넘어지면 3년 동안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치가 좋은 만큼 '조고각하' 하며 올라오라는 일본인의 해학이 담겨 있는 대목이겠지만, 혹시 모르니 찾는 이들은 조심하시길.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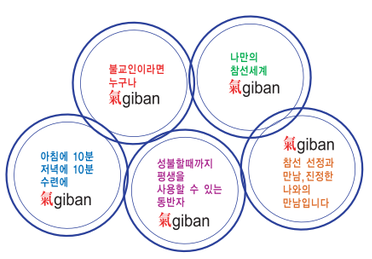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마음·생각은 모두 그대의 견해일 뿐

왜 이러한가? 그대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라는 견해를 짓기에 문득 이룰만한 부처가 있다고 여기며,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기에 곧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모두 그대의 견해일 뿐이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4〉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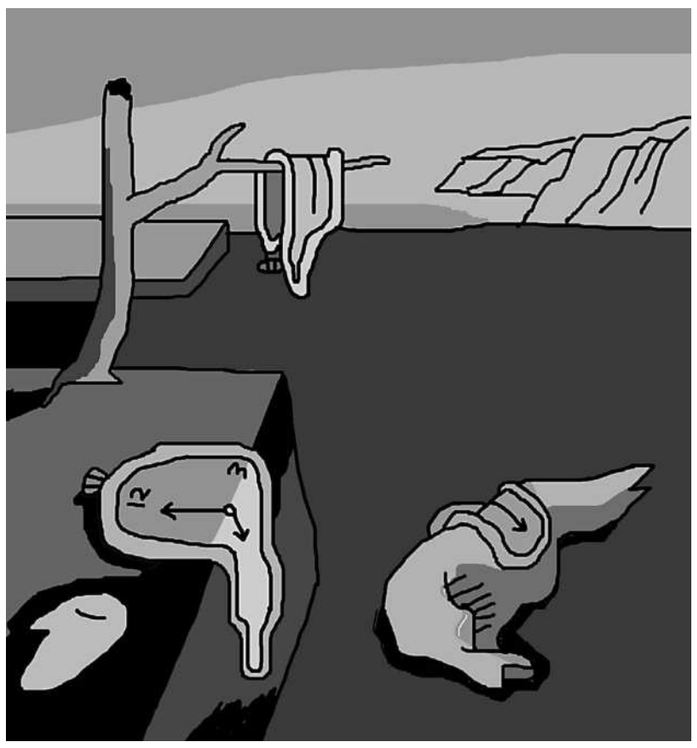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불교에 처음 입문하여 아직 공부가 익지 않은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말해준다.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통하여 깊이 들어가면, 비로소 불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공부가 익어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에게는, 지금 황벽스님이 배후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실상을 바로 직지해준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중생과 부처라는 상대적인 관념은 아예 붙지 못하는 것이다. 눈앞에 분명한 이 자리에는 부처도 세울 수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다. 중생이니 부처니 분별하는 것은 모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견해를 일으킨 것일 뿐이다.

만약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는가?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 있는 자리다. 불성이 없으면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다. 그렇지만 불성으로 인연되어 일어난 생각은 다 허망한 그림자다. 허망한 그림자에 좇아가지만 않는다면, 발 딛는 곳마다 부처 없는 곳이 없다. 부처라는 견해마저 없는 곳에, 발 딛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난다.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두 철위산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쓸데없이 견해를 지으면, 문수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알고 쓰면 방편이지만, 모르고 쓰면 허망한 것이다. 하루 종일 말하더라도, 한 마디도 말한 바가 없는 줄 알고 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럴 때는 상대가 아무리 높은 재상이라도 한 대 때려주는 게 좋을 것이다. 배휴로서는 가장 궁금한 대목을 물은 것일지라도, 바로 앞에서 입 열면 즉시 그러친다고 그렇게도 일러줬건만, 아직도 알고 싶은 정식이 헐떡이니까 이렇게 또 물어오는 것이다.

"물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일상의 어묵동정 간에 모든 소리와 빛깔이 모두 부처의 일[佛事] 아님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는가?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입 위에 입을 더하지 말라.

일거수 일투족, 모든 물음, 모든 생각, 모든 소리와 빛깔이 단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불사 아닌 일이 없다. 여기에 계합되지 못하면, 하릴 없이 밖으로 찾아나서 천지를 떠돌게 된다. 찾는 그것이 부처인데, 이걸 모르니 공연히 사방으로 부처 머리에 똥칠을 하고 다닌다. 연야달다가 자기 머리를 찾아다닌 꼴이 꼭 머리가 머리 찾는 것과 같다.

모든 생각과 소리, 빛깔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다.

깨닫지 못하면
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고롭게 끌려 다니다
한 생을 다하게 된다.

법 밖에 마음 없고,
마음 밖에 법이 없다.
누러면 누렇고, 푸르면 푸르다
무심히 고개 들어 앞을 보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산은 높고, 물은 흐른다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해 생기니
경우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승(僧)은 승, 속(俗)은 속일 뿐이다.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면목이다. 그러니 허다한 일들이 어디 다른 데 있겠는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펼쳐진 모습 그대로 안팎이 여여부동하다. 다 한마음의 조작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를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과거에서부터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히 이것뿐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고롭게 끌려 다니다 한 생을 다하게 된다. 만법귀일이며 허다한 일들이 다만 이 일뿐인데도, 여기에 어두우니 경계의 노예가 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처럼 허망한 일생을 보내게 된다.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법 밖에 마음 없고, 마음 밖에 법이 없다. 누러면 누렇고, 푸르면 푸르다. 무심히 고개 들어 앞을 보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산은 높고, 물은 흐른다.

허공 세계가 밝고 깨끗하여, 한 터럭만큼도 그대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청산이나 허공은 우리에게 한 견해도 짓지 않게 하는데,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 씨름하며 울고 웃고 뒹군다. 한바탕 일장춘몽에서 깨어나 허허 웃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들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비록 모든 소리와 빛깔이 부처의 눈이지만, 무명에 가리운 사람은 이런 말을 소화해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대개 이런 말을 배워서 알음알이로 간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어느새 여기에 집착하여 융통성 없이 자기 세계에 갇힌 완고한 사람이 되기 쉽다. 언제나 부처되려고 하던 사람이 마구니가 되는 것이다. 항상 하심하고, 우직하게 초심을 잘 간직해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나 무소득이어야 바른 길이다.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니, 경우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법은 경계를 대하면 천차만별로 벌어지기에, 수많은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응병투약으로, 병이 많으면 약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질지라도, 근본을 알게 되면 다만 하나의 일로 돌아오게 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⑨⓪



이 몸은 무상하여 순간순간 변해간다

〈열반경〉

몸을 느끼는가?

나는 그분을 좀 늦게 만났다. 그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중간발표회에서였다. 키가 늘씬하고, 날렵한 모습이다. 머리는 짧게 깎았다. 학부장인지, 그 발표회에 사회를 보고 있었다.

중간발표회를 마치고, 회식 자리에서였다. 내 있는 자리로 와서는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날 나는 그 학부의 교수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와 내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내가 인도철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것과 그가 서양철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원래 헤겔을 했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서양철학에서 불교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서양철학의 입장에서 좌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철학과 불교, 서양철학과 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교토학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에, 그는 이의를 제기한다. "교토학파 사람들은 좌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면서 자기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좌선을 시킨다는 것이다. 마침 우리 동네에 임제종 절도 조동종 절도 없어서 아쉬워하던 차가 아닌가. 수업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가보니, 그 메시지는 간단하였다.

"몸을 느끼는 것, 그것이 릴랙스(Relaxation, 긴장이완)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의 의식이 몸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무상을 느끼는가?

몸을 느끼는 것은 무상(無常)을 느끼는 것이다. 〈열반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상 순간순간(念念) 변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해마다 해마다 우리 몸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몸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무상을 덜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관찰하지 않아서이다. 우리의 의식은 이 몸 말고, 다른 데를 향해서 달려 가버리기 때문이다. 명예, 돈, 권력, 사랑, 업적…등등으로 달려 간다. 그런 대상 역시 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매번 이길 수는 없고 한번은 질 때가 있는 것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한다. 그것이 집착임에도 말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노력이 부처님의 포교이고, 전도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불교는 사람들에게 무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무상은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 무상을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다.

'무상'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이 얼마나 되는가? 무상이라는 노랫말이 들어간 노래가 얼마나 되는가? 무상을 주제로 한 고전작품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만큼 무상을 느끼는 일의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다.

과연 어떻게 해야 무상을 느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일은 '죽음'의 체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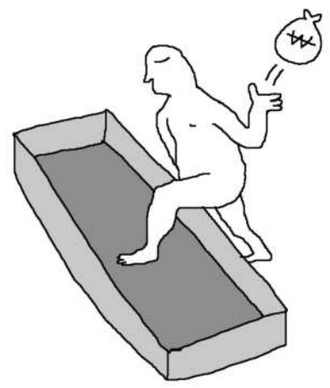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가장 가까운 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어린 나이였을 때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가 된다. 우리 부처님은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중국의 태허(太虛)스님도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다 어머니의 생명과 바꾸어서 낳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병'이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게 된다. 그 욕망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몸은 질병에 걸림으로써 가르쳐 준다.

지진이나 불과 같은 재해도 무상을 절감하기에는 좋은 계기가 된다. 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에 참배한 절이 금년 여름에 불이 나 사라졌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님의 입상(立像)도 사라져버렸다. 망연(茫然)하게, 빈 터만 바라보다가 올 수밖에 없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新製品

〈본 광고문안은 모아 두십시오〉

제품 안내서 무료발송

「Stuart YD-675 마이크」
단 한 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YD-675 高音質 다이나믹 마이크』의 담백하고, 맑고, 힘찬 소리는 스님의 품위를 한층 높여 드릴 것입니다.

• 고음질 YD-675
가격 : 115,000원

이런 스님께 구입을 권합니다 ...
- 법당 마이크 사용에 너무 힘이 드시는 스님
- 스피커의 소리가 안 좋은 법당
- 오래된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스님
-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비구니스님
- 여러 마이크로 바꿔봐도 효과를 못 보신 스님

법당, 앰프, 스피커 설치, 보완전문 !!

■ 주문방법 :
• 은행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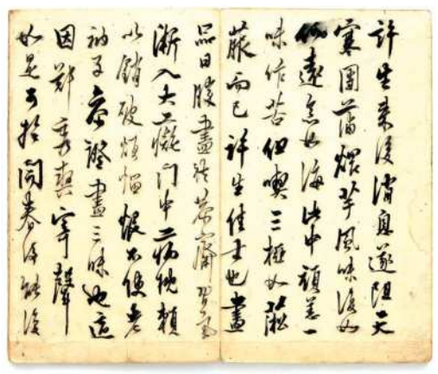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소치의 그림솜씨 감탄하며 상경 재촉

초의와 추사, 그리고 소치 허련(1808~1893)의 학연은 세상에 아름다운 인연으로 회자된다. 그가 대둔사 한산전으로 초의를 찾아간 것은 1835년의 일이다. 초의는 그를 위해 방을 마련해 주었다. 소치는 이곳에서 초의에게 불화를 훈습 받는 한편 공재 윤두서 집안의 가장본을 빌려다가 임모하는 등,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림의 세계에 집중하였다.

1838년 초의는 금강산을 유람한 후, 돌아가는 길에 소치가 임모한 그림을 추사에게 보여 주었다. 한눈에 소치의 재주를 알아본 추사는 급히 초의에게 "허 소치의 그림 솜씨는 과연 기이한 재주입니다. 어찌 손을 잡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낙서(駱西: 윤두서의 아들, 윤덕희의 호)의 일법에 불과하니 만약 한양에 와서 배우게 한다면 그 향상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평의 군아(郡衙)에선 소식이 없습니까.(許畵果是奇才也 何不携來耶 所見聞不過駱西一法 若使來遊京洛 其進不可量也 南平衙中 無聲信耶)"라는 편지를 보내 소치의 상경을 재촉한다. 이후 소치는 초의의 급한 전갈을 받고 서둘러 상경하여 장동의 추사 댁을 찾아갔는데, 이때가 1839년이라 알려졌었다. 그러나 〈주상운타첩〉이 발굴로, 실제 소치가 추사 댁을 방문했던 시기는 1838년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셈이다.

지금까지 〈완당전집〉〈여초의〉13신에도 소개된 편지에는 간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경 시기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상운타첩〉의 발굴은 소치가 추사 댁을 찾아간 것이 실제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일 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추사가 1838년 12월에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주상운타첩〉 추사 친필본

초의·추사·소치…아름다운 학연

소치의 작품 향상에 삶의 희열 느껴

허 소치가 온 후로 소식이 막혔습니다. 추운 겨울, 포단에 앉아 있는 풍미는 어떠신지요. 멀리에서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바다와 같이 깊습니다. 이런 중에 모질고 질긴 병은 그 맛이 고통만 주니 인삼을 먹는다한들 무를 먹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허 소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림의 격조도 날로 나아져 공재(恭齋: 윤두서)의 습기도 다 떨어버리고, 점차 대치(大痴)의 문중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병든 나는 이에 힘입어 번뇌를 녹여 없애게 합니다만 그대와 화삼매(畵三昧)를 참증(參證)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마침 정수석의 편에 편지를 보내니 새 봄 이후 다시 병발(甁鉢)을 챙기어 지난 날, 충분하지 못했던 인연을 잇는 것이 어떨지요. 이만 무술(1838) 12월

(許生來後 消息遂阻 天寒團蒲ŒW芹風味 復如何遠念如海 此中頑恙一味作苦 但喫三　如崧ÆV而已 許生佳生也 畵品日勝 盡祛恭齋習氣 漸入大痴門中 病枕賴以銷破煩惱 恨不使老衲子參證畵三昧也 適因鄭秀奭寄聲 如何可於開春後 能復理甁鉢 以續過境未了之緣耶 不次 戊戌臘日)

당시 추사는 부친 김노경의 상중(喪中)에 있었고, 그의 병도 깊었던 듯하다. 하지만 추사는 소치가 날로 공재의 습기를 떨어 버리고, 대치의 문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삶의 희열을 느꼈던 듯.

한편 추사가 언급한 대치는 누구인가. 대치는 원말 4대가로 꼽히는 인물, 황공망(1269~1354)이다. 원말 산수화의 대가였던 황공망은 송대 문인화풍을 발전시켰던 인물로, 추사가 흠모했던 소동파의 문인화풍을 영향 받았다. 추사가 허련의 호를 소치라 지었던 것은 대치와 짝할 인물이 허련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추사는 초의와 함께 소치의 향상을 담론하며, 축하하고 싶었던 것.

바로 그가 "그대와 화삼매(畵三昧)를 참증(參證)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우니, 새 봄 이후 다시 병발(甁鉢)을 챙기어 지난 날, 충분하지 못했던 인연을 잇는 것이 어떨지요"라 한 것은 초의와 함께 화삼매를 논하며 기쁨은 나누고자 했던 것이리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맨손으로 전법 발원 "나의 아메리칸 드림"

이종권 ('미주한국불교' 편집장)

숭산 스님이 미국으로 진출해 한국불교 세계화의 씨앗을 뿌린지 30여 년이 지났다. 불교계에서도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화두로 한국의 수행·학술·사찰음식·불교문화 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티베트, 일본, 중국 및 남방불교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한국불교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는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보문종 등 많은 한국 사찰이 정착해 활동하며 이민 생활에 지친 많은 불자들의 기도처이자 수행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라는 척박한 여건과 소수계 이민자를 위한 종교시설이라는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한국불교 세계화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음에도 묵묵히 불교를 알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미주한국불교 편집장인 이종권(47)씨다.

그는 뉴욕 맨해튼 도시 한가운데서 염주를 팔고 미국 대학캠퍼스에서 부처님 티셔츠도 판다. 그런가하면 미국전역을 직접 자가용으로 운전하며 미국 내 모든 사찰을 방문해 스님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축적해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불교인업소록〉을 제작, 무료 배포하는 등 불법의 황무지인 미주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법음을 전파하고 있다.

영문학도, 불교와 미국 접목하다

이종권 편집장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영문학도다. 1990년대 초반, 인사동 주변을 맴돌다가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조계사 불교대학 3개월 기초교리 과정'이었다.

"불교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강의를 들을수록 점점 진지하고 심각해졌어요. 제가 방황하며 찾아왔던 진리가 부처님한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교리 코스를 마친 후 수계도 받고 1996년 조계사 불교대학 2년 과정을 마쳤어요."

불교의 매력에 빠진 이 편집장은 내친김에 수선회에서 참선도 배우고 1998년에는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자격을 품수 받았다.

영미문학을 전공했던 그는 불교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 이번에는 영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바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영미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미국 캔사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로선 생소했던 미국학(American Studies)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고,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해방이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대한 의문이 그의 화두가 됐다.

캔사스 주립대에 들어간 이종권 편집장은 대학생들과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호감일 뿐 그 이상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갓 품수 받은 국제포교사로서 왕성한 포교정신으로 룸메이트들에게 법을 전했지요.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숭산 스님의 제자들이 세운 캔사스 선원(Kansas Zen Center)라는 곳이 있어서 독일인 룸메이트와 일요일마다 법회에 참석했어요."

캔사스 선원은 한국식이라고는 했지만 미국인들이 주로 운영해 한국의 전통한국식과는 달랐다.

이때부터 이 편집장은 '불교의 미국화'라는 이슈에 천착하게 됐고, 4년간 미국 불교단체들을 끈질기게 찾아다니며 '로렌스 캔사스의 불교단체를 통해 본 불교의 미국화'를 주제로 논문을 완성했다. 미국 학계에서는 1800년대부터 불교관련 논문이 생산됐지만 미국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주제로 작성한 학위논문은 그의 논문이 처음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인 불자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종적으로는 백인, 교육수준은 61%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1%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불자의 61%는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고 24%는 가톨릭, 6%는 유대교, 3%는 불교와 이슬람, 무종교의 환경이었고 불교를 처음 접한 경로는 38%가 책에서 29%는 친지, 9%는 미디어를 통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중 35%가 불교적 수행을 하면서도 가톨릭과 미국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외래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현지화해가는 과정을 'Americanization', 즉 미국화라고 한다면 한국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관음스쿨이라는 미국불교의 한 종파가 미국화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를 밝혀내었습니다."

미대륙을 불국정토로

이 편집장이 파악한 미국은 거대한 빈 종이였다. 인종, 성별, 지역, 계층, 종교, 성적 취향, 출신지 등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경합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다. 그는 미국을 '공(空)'의 나라로 새롭게 정의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빈 종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색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그 종이의 색깔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미국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고정불변의 미국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미국은 백인의 국가다 등 미국을 둘러싼 온갖 규정들은 허구라는 사실을 배우며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미국에 대한 정견을 세워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새롭게 정의하면 미국은 공(空)인 것입니다."

이 편집장은 이런 관점을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체득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불자이자 포교사로서 텅 비어 있는 미국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뜻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불교에 심취

美캔사스대서 미국학·불교 접목

그가 본 미국 "'빈 종이 空'의 나라"

미대륙 불국정토 만들기로 발심

'미주한국불교' 및 총람 발행

"미국 내 한국불교 정체성 살릴 것"

그렇게 해서 '미대륙을 불국정토로!'라는 서원을 세운 그는 미국에서 불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궂은일 힘든 일이든 마다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들을 했다.

먼저, 캔사스대 석사과정 논문을 마치자 뉴욕사원연합회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뉴욕불교〉라는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의였다. 학창시절 외대영자신문동아리 '아거스(The Argus)' 편집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불교를 일생의 업으로 추구하고자 결심했던 터라 흔쾌히 응했다.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맨손으로 불국토를 개척하겠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천년 한국불교사에 뜻 깊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이것이야 말로 내가 추구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종권 편집장은 이후 청소년 불자들의 자원봉사단 'Lotus Helpers'를 조직해 약 4년간 활동했다. 또한 미주한국불교의 네트워크을 구축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다가 조계종 총무원에서 해외사찰현황조사의 현지조사원으로 발탁돼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자동차로 다니며 해외사찰 기본데이터를 수집해 보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주 불교인들의 수행과 공부에 필요한 각종 불서와 용품을 공급하는 한편, 총무원장 스님 미국순방, 교계 기자단 미국방문, 해외포교사 미주불교 탐방, 템플스테이 운영요원 해외연수 등 본국 불교계의 미주 방문시 현지 지원인력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이 편집장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나씩 실행하던 중이었다. 2011년, 미주불교신문



2009년 해외사찰 현황조사 후 뉴욕 Radio Korea 방송출연.



2013년 템플스테이 운영요원 미주연수 중 (Quaker Study Center Pendle Hill에서)



이종권 편집장은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 동대학원 영어과를 졸업(문학석사)하고,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1998년 미국으로 가 캔사스 대학(The University of Kansas) 대학원에서 미국학(American Studies)을 전공으로 졸업했다. 캔사스 대에서 한국어 강사를 역임했고, 뉴욕불교 편집장, Lotus Lantern 편집위원, 뉴욕원각사 사무국장, Lotus Helpers 단장, 조계종 촉탁사원 (해외사찰 현황조사 현지조사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미주불교신문 편집국장으로있다. 저서로는 해외포교의 이론과 실제 I (2008)/ 해외포교의 이론과 실제 II (2010), 선방일기(Diary of a Korean Zen Monk) 영문판 번역,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 등이 있으며,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2010)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사장인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 스님이 미주불교신문 편집장의 소임을 맡아달라고 제의한 것.

그 인연으로 이종권 편집장은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을 발행했고 이 책을 기초로 미주한국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터넷 미주불교신문(www.koreanbuddhism.us)을 복간하는 데 성공했다.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은 약 160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동부 및 서부, 중서부, 태평양 지역 사찰 주소 및 전화번호, 정기법회 및 연중사찰행사, 한글학교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불자들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이민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불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도 소개했다.

"총람 제작은 2011년 조계종 해외포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됐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이 우주만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불교인들은 대부분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고립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고립감은 외로움과 무기력증으로 발전해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서로 알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불국정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발행해 1만부를 무료배포 했습니다."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 발행으로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는 2014년도에는 〈세계한국불교 총람〉이라는 책자를 기획해 작업 중에 있다. 또한 책자와 별도로 불교인들의 비즈니스 총람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해 일상의 모든 생활을 불교인들 간에 꾸려나갈 수 있는 포맷을 구상하고 있다.

그가 본 미국 내 한국불교

10여 년을 미국에서 생활한 그는 "미국의 한국불교는 개척불교"라고 정의했다.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손수 텐트를 치고 밥까지 차려 먹어가며 일궈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불교라는 것이다.

"미주 한국불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껏 미주 한국불교를 일구어온 주역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험난하고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껏 버티고 일구어 온 것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미주한국불교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불교의 베이스캠프입니다. 우리에겐 적어도 그 베이스캠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취를 향후 불교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미주한국불교는 본국 불교계의 축소판입니다. 본국 불교의 강점도 약점도 미주한국불교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주한국불교는 본국 불교의 거울인 것입니다. 미주한국불교를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본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종권 편집장은 '한국불교의 세계화' 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국내 한국불교에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불교의 세계화' 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비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불교' 의 세계화라는 명제는 불교를 매개로 다양한 불교전통간의 정치적 문화적 경쟁이라는 맥락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논할 때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불교 세계화의 목적 및 효율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맹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행해 왔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는 세계 속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달마붐 아메리카(Dharma Boom of America, Inc.)' 라는 법인을 2008년 설립했다.

우수한 한국의 불교문화용품은 해외로 내보내고, 외국인 및 해외불자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본토 한국불교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불교문화의 발전이 뒤쳐진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불교문화의 선진국입니다. 미사일도 핵폭탄도 잘 만드는 미국이지만 제대로 된 염주도 불상도, 탱화도 제작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미국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우리의 불교문화를 자비의 정신으로 그들과 공유하는 일은 부처님의 뜻에도 맞는 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08년 불교비즈니스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구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현지법인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발전된 한국의 불교문화가 널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이종권 편집장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계획이자 소망이다. 그는 포교사로서, 불교 활동가로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이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들이 더 좋은 불자,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인의 성공이 바로 불교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한 정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계획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2006년 뉴욕 불자 청소년 자원봉사단 Lotus Helpers와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모습.



〈청바지를 입은 붓다〉의 저자 수미 런던(Sumi Loundon)과의 대담 중(2003).

전법일기

선뜻 건넨 한 어린이의 보시 '감동'

일곱 살 꼬마의 코 묻은 공양금

일곱 살 병주는 어린이 영어담마스쿨을 다니는 아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사이로 언젠가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으로 템플스테이를 가는 홍보 글을 보고 참가신청을 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이 가족은 아주 경쾌하고 발랄했다. 병주 역시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담마스쿨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영어담마스쿨은 1, 2부로 나누는데 1부인 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7세부터 10세까지 공부하고 2부는 10세부터 14세까지 공부하는데, 순서에 따라 어린이 집회가와 삼귀의를 한 후 참선을 하고 각자의 영어수준에 따라 수업을 한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시모여 사홍서원과 산회가로 끝낸다. 그러니까 병주는 ABC부터 이곳 영어담마스쿨에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6개월 정도 다닌 병주가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살짝 자랑을 한다.

"스님!, 저 돈이 아주 많아요" "그래? 좋겠네. 그럼 스님도 좀 주라."

"그래요. 그럼 백만 원 되는날 제가 반 드릴게요". "정말? 그래 좋아."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나를 큰소리로 부르며 달려 오더니

"스님 저 모은 돈 정말 백만 원 되었어요. 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반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드릴게요."

"그래? 굉장한데. 그런데 너희 엄마, 아빠가 스님에게 그만큼 보시한다고 하면 안 좋아하실텐데.. 어쩌지?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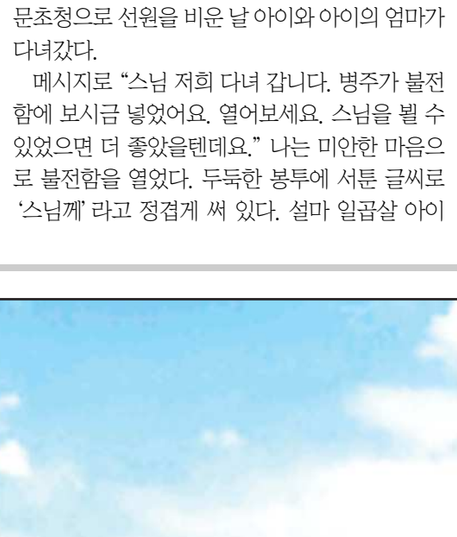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나는 다시 설마 했다.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려니.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주 다시 아이는 환한 얼굴로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스님! 기뻐하세요! 엄마, 아빠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라고 스님께 드려도 된데요."

감동적이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 외부의 법문초청으로 선원을 비운 날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다녀갔다.

메시지로 "스님 저희 다녀 갑니다. 병주가 불전함에 보시금 넣었어요. 열어보세요. 스님을 뵐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불전함을 열었다. 두둑한 봉투에 서툰 글씨로 '스님께' 라고 정겹게 써 있다. 설마 일곱살 아이가 오십만원을 진짜 보시했을까? 봉투를 연 나는 너무도 놀랐다. 그리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의 한 장의 편지에 가슴이 먹먹해 졌다.

"스님,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병주가" 겨우 한글을 뗀 아이에게 받은 오십 만원의 불전.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했다. 병주 엄마도 "스님, 병주가 스님이 기뻐하실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라고 전했다.

당시는 도심포교당을 연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고 신도들 중에도 그렇게 많은 보시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일곱 살 꼬마의 코 묻은 공양금' 이 감동적이면서도 미안한 것은 왜일까? 나는 아직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 훗날 비로자나국제선원 어린이 법당을 지을 때 꼭 그 아이의 이름으로 올리고 싶다. 가끔 어린이 포교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도 밝은 함박웃음으로 나를 돕고자 하는 작은 꼬마들의 마음이 내 가슴을 울려서 새로운 힘을 내곤 한다.

전 재산의 반을 보시한 큰 마음의 아이. 이제는 어느덧 키가 나보다 더 커버렸다. 여전히 지금도 절에 오면 먼저 내 품에 안긴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안았는데 요즘은 아이가 나를 안아 준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포교하시는 스님의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벽안의 불심 사로잡은 '토론 법회'

미국 캘리포니아 샌루이스오비스포(San Luis Obispo) 카운티에서 9명의 티베트 스님들의 토론 · 문화 법회를 진행, 벽안의 불심을 다잡았다.

〈뉴 타임즈(New Times)〉 지는 "인도 남부 고망(Gomang) 사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게쉐 롭상 테젠(Geshe Lobsang Tsetsen) 스님 등 9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2일 '티베트 불교식 토론'을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뉴 타임즈〉 지에 따르면 이날 토론의 주제는 '정의'와 '평화'. 한 스님이 이에 대한 '공격적'인 문제 제기에 이어 다른 스님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나머지 스님들과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스님들의 토론에 화답했다.

"티베트 불교계에서 토론이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방편"이라고 전제한 테젠 스님은 "함께 온 스님들은 인도 남부 고망(Gomang) 사원에서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한 학승"이라며 "티베트 불교계의 전통을 벽안의 불자들에게 선보이고, 한편으로 토론의 여정을 좇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이번 토론 법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 타임즈〉 지는 이날 토론를 지켜본 안나 웰트너(Anna Weltner) 씨의 말을 인용, "스님들이 다룬 주제는 우리들이 실생활에서도 돌이켜봄직한 것들"이라며 "토론장의 박수와 환호가 스님들의 대화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신선했다"고 전했다.


9명의 티베트 스님들의 '티베트 불교식 토론'을 하고 있다.

고망(Gomang) 사원의 스님들, 티베트 불교 '법거량' 선보여
샌루이스오비스포 불자들, "모순을 떨친, 배움의 과정"

또한 〈뉴 타임즈〉 지는 라레나 감보아(Lareina Gamboa) 씨의 말을 인용, "주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답변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지 않으면서 논박을 이끌어가는 티베트 스님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티베트 스님들은 경전 암송을 교학의 원칙으로 삼는데, 경전을 잘 암송한다고 해서 존경 받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테젠 스님은 "토론장에서 스스로 익힌 지식을 변증법적 방법론에 근거해 풀어내면서 논박할 수 있어야 암송,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며 "암송 이후 수행의 과정에서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언술'로 변화되고, 그 힘으로 모든 앎의 벽을 넘어서는 게 궁극의 지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장에서는 부처님의 보궁을 상상하며 색색의 모래의 선과 면으로 보궁을 짓는 '만다라 시현'과 스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선보인 '춤추는 야크' 등의 공연도 마련됐다.

〈뉴 타임즈〉 지는 "이날 만다라 시현은 '만다라가 단순한 모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에미 에스맨(Amy Asman) 씨의 말을 인용,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온전한 만다라를 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비의 지혜를 밝힐 수 있다는 스님들의 설명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들이 선보인 '춤추는 야크(Dancing yaks)'도 벽안의 불자들의 이목을 잡았다. 〈뉴 타임즈〉 지는 테젠 스님의 말을 인용,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가축인 야크의 고마움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모든 생물의 존엄성을 일깨우게 하는 게 '춤추는 야크' 무대의 목적"이라고 전하며, "티베트 스님들의 빼어난 기예가 돋보인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

고망 사원 스님들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를 비롯해 오는 19일까지 캘리포니아 도시를 순회하며 토론과 예술이 공존하는 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애리조나로 이동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과학적으로 해석한 책 조만간 완성

달라이라마 감수, 19개국 언어로 출판 예정


이번 책을 집필한 스님들이 달라이 라마와 만난 직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티베트 스님들이 달라이 라마의 감수를 받아 집필한 책 〈불교과학〉(가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티베트 포스트(The Tibet Post)지가 보도했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졌다. 조만간 영어와 19개국의 언어로 발간될 예정이다.

앎의 목적, 마음이 대상에 관여하는 법 등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책은 고대 불교 경전을 토대로 마음과 명상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부처 말씀을 토대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식이다. 타임지와 유수 매체들에 보도된 연구결과가 근거 자료로 쓰였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다람살라에서 만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스님들은 책의 마무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의 완성 소식에 달라이 라마는 크게 기뻐하며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인도에 와서야 과학을 제대로 접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찾는 중요한 작업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줄곧 "종교를 맹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과 불교의 연결 작업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티베트어는 물론 영어, 힌디,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로 번역 출간된다. 책 발간 작업에는 티베트의 드레펑(Drepung), 간덴(Garden), 세라(Sera) 등 3대 사원 스님 10명이 참여했으며, 70명의 지원자 중 특별히 학식있는 스님들로 선별돼 지난 몇 년간 작업에 매진해왔다.

책은 불교도뿐 아니라 정신 작용에 관심 있어 하는 과학자, 연구자,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인도 불교는 '성장 중'

9 · 12월 인도서 대규모 불교행사 열려

"부처님 탄생지 인도의 불교 교세를 보여줄 대규모 행사가 9월과 12월 두 차례 마련된다"고〈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 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행사 중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제9회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International Tipitaka Chanting Ceremony)'가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 지는 대회 주최 측인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 위원회'의 말은 인용, "부다가야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라오스,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3000여 명의 스님과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인도 나그푸르(Nagpur)에서는 암베르카 박사(Dr. Ambedkhar) 추모 · 순례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150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모 · 순례법회에는 6백여 명의 스님들의 빨리어 경전 독송과 고승 초청 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간디와 동시대에 살았던 암베르카 박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불가촉천민의 권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인물이다.


인도 부다가야에서 매년 9월 열리는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International Tipitaka Chanting Ceremony)'에는 평균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부다가야에서 열린 '국제 대장경 독송 대회' 모습.

〈허핑턴 포스트〉 지는 "인도에서 매년 대규모 불교 행사가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인도 승단이 매년 성장하고 있고, 이와 함께 불자 층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도첸 린포체, 퀸즈랜드 불심 잡다

'걱정을 줄이는 비결' 주제 … 호주 대중법회 봉행

행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걱정하는 마음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호주 퀸즈랜드의 매체인 〈김파이 타임즈(Gympie Times)〉가 2일 김파이의 밀웰(Millwell)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도첸 린포체(Dzogchen Rinpoche) 순회 법회를 보도하며, 이 같은 '행복의 조건'을 전해, 주목된다.

〈김파이 타임즈〉에 따르면 '걱정을 줄이는 비결(the secret to worrying less)'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초조하게 보내는 일이 많다"고 지적한 도첸 린포체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인과(因果)를 명상하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을 걱정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며 "인과를 명상할 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고, 그 힘은 불안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파이 불교계의 초청으로 마련된 '도첸 린포체 법회'는 오는 14일까지 퀸즈랜드 곳곳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호주에서 순회법회를 가진 도첸 린포체

티베트 불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도첸 린포체는 인도 남부에 세운 도첸 사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280개의 사원을 조성했다.

현재 세계 순회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도첸 린포체는 프랑스, 스위스, 독인,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호주를 방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25년 전 좌탈입망한 미라 스님

태국 코사무이 섬 왓쿠라남 사원에 25년 전 입적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루앙 포 댕(Luang Pho Daeng) 스님. 당시 79세였던 스님이 명상에 든 채 열반하자 제자들이 유리관을 만들어 안치했다. 따로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약품처리를 하지는 않고 스스로 미라화 되었으며, 아직까지 내부 장기 조직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고 한다. 선글라스는 함몰된 눈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혹시라도 스님을 보고 무서워할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관광객을 위해 씌워진 것이라고 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국민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남북통일 기원

세계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위 출범 선포 대법회

지구촌 모든 나라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모임

주최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2013년 10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강당]



인류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명으로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단합과 상호 협력과 지원 및 교류를 통해 국가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존엄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께서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법왕으로 추대하고 모시고자 법왕청을 설립하고 추대위원회가 출범하였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 모두가 부처님의 품안에서 하나 됨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중생들의 지도자이신 정, 재계 및 불교계 큰어른들께서
이 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위원회

증명 : 대한불교종정협의회 50여 종단 종정 고승단 . 군소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108위원

법왕 및 승왕 추대 위원장 : 목탁 대승정 봉행 위원장 : 동봉 대종사 운영 위원장 : 청운 대종사 봉대 조직 위원장 : 보각 대종사. 무공 대종사

준비운영위원 : 만청. 혜승. 현담. 만오. 범홍. 진성. 제성. 현덕. 도암. 혜선. 해월. 문수. 성보. 보명. 도명. 심오. 청산. 수완나. 무상. 대연. 법성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운영이사 일동 합장

* 의전관계로 미리 참석 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011-229-6061 팩스 733-5671

민족의 한, 禪 만나 금강으로 꽃피네

러이사 정부 초청 수안 스님의 '천년코리아展'



"문수 보현 관음 등 불보살을 동자화한 것이 제 작품의 특징이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불보살의 모습에 녹여 선의 세계를 펼쳐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그 한을 치유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안 스님〈사진〉의 선화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찾았다. 러시아 연방 연해주 정부 초정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 후원으로 9월 25일부터 두 달 동안 블라디보스톡 국립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양산 통도사 문수원에서 명상과 더불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불교 선화의 대가 수안 스님은 이번 러시아 전시를 통해 현지 교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고자 했다.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지이자 '까레이스키(재소 한국인 동포)'의 한이 서린 블라디보스톡에서 전시회를 열게 돼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 고유의 종교와 문화가 담긴 작품을 통해 한류의 본보기를 선보이고 양국간 우호관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아리랑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의미로 아리랑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작업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스님은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다양한 아리랑의 가사를 동자승 그림으로 표현 민족의 정서를 선화로 승화시켰다.

이밖에도 부설 거사의 팔죽시, 나옹선사의 시, 성균관 유생의 글 등 다양한 문학 소재들이 스님의 선화로 재탄생했다. "진혼굿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역경을 뚫고 타국으로 이주한 조상의 후손들, 또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까레이스키들의 영혼을 달래주고자 작업을 하다보니 그들 내면 깊숙이 들어가버렸죠."

스님은 개막식 인사를 하며 아리랑을 불렀



아리랑 소재로 한민족 표현

교포들에게 위로 전해줘

불보살 상징한 작품도 주목



수안 스님은 9월 25일부터 두 달 동안 블라디보스톡 국립미술관에서 천년코리아전을 연다. 그림 오른쪽 위부터 '당신과 있기에 참 행복합니다'와 '아리랑'.

고 이 행사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교포 부부는 그 노래를 따라부르며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개막 당시 분위기는 관람객들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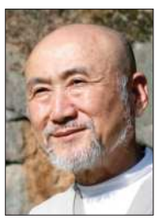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은 '당신이 있기에 참 행복합니다'이다.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있는 이 그림은 행과 지혜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문수 · 보현 보살이 서로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행과 지혜가 합쳐져 다이아몬드 꽃을 피우니 이는 금강을 의미하죠. 또한 이 꽃은 한국의 부강한 경제를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진을 통해 화엄의 세계를 활짝 피우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밖에도 스님은 기와집, 꽃밭, 한글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말해준다. "깨침의 세계는 대중적입니다. 깨침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음을 타파하는데에 있죠. 그러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임을 그림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11월 9일 대만을 찾는다. 타이페이 세계 종교 박물관의 초대전과 더불어 한국 선과 관련한 강연도 갖는다. **정혜숙 기자**

밝은 마음 담은 선묵화의 향연

범주 스님 고희전
10월 16일~22일



"요즘 달마도라고 하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묵화는 누가 그리느냐가 중요하죠. 참선 수행으로 밝아진 마음, 곧 순수에너지로 그려진 선묵화는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정화시켜 주어 밝은 안목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바꾸어 줍니다. 결국 수행자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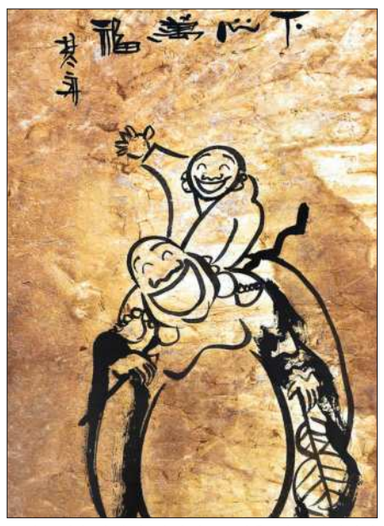
범주 스님(상주 달마선원장 · 사진)의 천년 선묵화 고희전이 10월 16~22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선묵일여(禪墨一如)를 향해 가는 저의 고독한 구도의 길에 선묵은 좋은 도반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23세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전강대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참선의 길 없는 길을 찾아 헤맨지 50여 년, 어느덧 하얀 낙엽이 물든 고희(古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산수만행도 달마도 포대화상도 한산습득도 관음도 선서 승무도 등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스님은 '구세소림 면벽묵좌' '입차문내 막존지해' '직지인심 견성성불' '빙하착' 등의 달마도를 통해 선의 세계를 그려냈다. 맑고 경쾌한 표정의 포대화상도 인상적이다. '무망념처 안락국' '하심만복' '소문만복래' '일일시호일' 등은 포대화상의 유쾌한 표정을 통해 삶의 지혜를 말해준다.

먹과 은은한 색이 조화를 이루는 관음도는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좌선을 하고 있거나 정병을 들고 있거나 화병을 감상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은 바탕색의 자유로운 변화를 통해 예술미를 더하며 신심을 일깨운다.





범주 스님의 천년선묵화전이 10월 16일부터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그림은 왼쪽부터 '천년달마도'와 '천년포대화상도'

달마도 · 포대화상도 · 관음도 등

옻칠로 표현한 선화 선보여

현응 스님 초청 선강좌도 동시에

스님이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옻칠 작업은 대중들에게 선묵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다. "옻칠은 방습 방충 원적외선 방출은 물론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능으로 천년 이상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선묵화가 최상의 도료인 옻칠과의 만남으로 천년선묵화(千年禪墨畵)가 탄생 된 것입니다."

옻칠을 작품화하기 위해 스님은 고생도 많았다. "오랜 옛날부터 옻칠을 불상이나 탱화에 사용되어왔습니다. 옻칠이 없었다면 팔만대장경도 세계유산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6년 전부터 선화에 옻칠에 접목해보았습니다. 혼자 연구 정진하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백장의 작품을 버려야했습니다. 또 몸에 옻이 올라 옻의 독성과 싸워가며 3년 인욕 고행 끝에 옻칠 선화 기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다는 스님은 전시와 함께 현응 스님(육조사 선원장)을 초청 10월 16일~21일 선강좌를 연다. 범주 스님은 "시대에 맞는 불교, 모든 종교가 같은 도반으로 화합할 수 있는 진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 선(禪)에 있다. 때문에 선을 대중화하는 길이 한국불교를 중흥하고 세계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서울 육조사 선원장 현응 스님을 초청 선(禪)특별 강좌를 열게 되었다"며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강좌는 △성인들의 가르침 놔두고 따로 믿는 종교인들 △선으로 본 공자님의 참모습 △선으로 보는 노자님의 참모습 △선으로 가는 올바른 기복 신행의 길 등으로 구성된다. (02)720-116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생명 · 평화 · 명상 치유의 한마당

월정사 제10회 오대산 문화축전… 10월 12일~20일



제10회 오대산 문화축전이 10월 12일~20일까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다. '생명 · 평화 · 명상 치유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9일간 개최되는 축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자연과 소통하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테마로 열린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10월 12일 '한강시원제의'와 '한국의 큰스님 글씨- 월정사의 한암과 탄허' 전시 개막식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 육법공양과 자장 · 한암 · 탄허 · 만화 큰스님 헌다례, '종범' 스

법고대회 · 탑돌이 등 프로그램 다채

한마음선원합창단 개막 공연도 주목

님 법문, 생명살림 수륙재와 생명살림 대방생법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개막공연으로 한마음선원이 주관하는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선법 혼성 · 어린이 ·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은 물론 초청가수로 '인순이', '김태우' 가 출연 축제의 장대한 막을 연다.

이밖에도 △13일 '오대산 천년 숲 선재길(옛길) 걷기', '제6회 불교차인대회' △14일 타악과 무용, 승무 · 법고, 산조춤, 둔전평 농악, 평창아라리, 안데스 음악 공연 △17일 어린이 찬불 동요제 △19일 '월정사 탑돌이 시연', 월정사 8각9층석탑과 불교의 탑돌이 학술 세미나 △ 강원지역불교합창단 합창제와 임형주 알리 전재덕 비뮤티 데이드림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 △20일 학인(學人)스님들의 기량을 겨루는 법고와 송경(誦經)대회 등이 열린다.

정혜숙 기자

BBS 신행상담실 공개방송

BBS가 'BBS 신행상담실' 첫 공개방송을 연다. 장수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10월 11일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다보원)에서 열리는 특별공개방송은 신행멘토로 활약해온 목동 반야사 원육 스님,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 스님이 출연해 다양한 상담이 진행된다.

BBS는 "불교의 기본교리와 신행은 물론 자녀교육 등 여러가지 생활 속의 문제들을 청취자들과 직접 마주 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전했다.

'BBS 신행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50분 동안 청취자들의 불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즉문즉설'로 속시원히 해결해주고 있다. 불교방송 개국 때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신행상담실'은 잠시 폐지되었다가 지난 5월 개편, 새롭게 청취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02)705-5231 **정혜숙 기자**

수원 청련암 산사음악회

청련암 산사음악회가 10월 12일 오후 7시 수원 광교산 청련암 경내에서 열린다. 30년 중창불사 회향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밤 대중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 줄 것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이광조, 정수라, 안치환은 물론 판소리에 최진숙, 연주팀 코아모러스, 소프라노 정태옥, 바리톤 오윤석, 타악 야단법석 등이 출연하한다. 또한 청련암합창단, 선불남성합창단, 연화유치원 어린이들, 효원주부무용단 등의 팀들도 함께한다. 청련암 주지 도문 스님은 "도시의 각박한 삶에 지친 분들에게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가 될 것이다. 이번 '2013 청련암 산사음악회'는 단순한 포교의 차원을 넘어 창건 800년 역사를 찬란히 비추고 30년 중창불사회향을 기념하는 첫 산사음악회"라며 의미를 전했다.(02) 723-9836

정혜숙 기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씨방의 조형, 여래의 모습으로 현신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석류(石榴)→씨앗이 가득 찬 씨방→보주가 가득 찬 씨방 ㊦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래와 보살이 화생한 자리가, 우주에 충만한 영기가 연꽃모양으로 조형화함에 따라 현실에서 보는 연꽃이 고차원으로 승화된 영기꽃[靈氣花]임을 밝혔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는 영기꽃의 씨앗이 보주의 개념으로 역시 승화되었음을 충분히 설명해왔다.

즉 연꽃이 영기꽃으로 승화하였으니 연꽃의 씨앗들도 보주들로 승화되어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리라. 씨앗에서 여래와 보살이 화생한다는 것, 더 나아가 씨앗이 보주로 승화하여 그 보주에서 여래와 보살이 화생한다는 진실[연꽃→영기꽃, 씨앗→보주]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가! 문자로 기록된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조형미술 자체에서 찾아내야 했었는데 마침내 미혹의 강을 건너 저편의 강변에 이르렀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잇따라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석류모양이 그림에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그것이 석류(石榴)라고 생각했는데[여기까지가 사실: fact], 10여 년 전에 그 석류 안의 붉은 씨앗들이 보주가 된다고 확신하고 매우 흥분한 적이 있었다. 보주의 본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하여 가는 동안, 연꽃=영기꽃의 씨앗이 생명의 근원이므로 씨앗이 승화하여 보주가 되어간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여래나 보살이 보주에서 화생한다' 는 관념이, '여래와 보살이 씨방에서 화생한다' 는 조형과 만나 당시 매우 고양된 상태였었다.[여기까지는 진리: truth] 생각이 아니라 명상이었으리라.

석류를 상점에서 사서 열어 보았다. 선명하고 투명한 빠알간 유리알 같은 씨앗들을 보고 환희작약했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가슴이 환히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석류라는 특정의 씨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씨방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이후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석류가 아니고 만물생성의 근원인 보주가 무량하게 가득 찬 씨방[이 씨방 역시 승화하여 조형적으로 보주(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긴다) 혹은 만병(滿甁)이 됨]임을 안 것은 엄청난 미술사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석류는 석류가 아니고 보편적 개념인 씨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형미술에서는 현실에서 보는 꽃은 없다. 비록 똑같다고 하더라도 승화된 영기꽃으로 보아야 한다.

통도사 박물관에서는 부석사 괘불을 다음 달부터 전시할 예정인데 연구실 벽에 붙여있는 포스터에서 석가여래의 처음 보는 광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그림 ①, 그림 ②) 놀란 까닭은 광배에 수많은 씨방이 영기화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기문에서 연꽃모양 영기문이 화생하고 그 영기꽃에서 큰 씨방 주머니가 화생하고 그 씨방에서 큰 빨간 보주가 하나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가 아니고 무량한 보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계속 생겨나서 확산하고 있다. 만일 연꽃이라면 씨방이 원추형이라야 하는데 주머니 모양이니 연꽃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은가!(그림 ③) 단청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을 띤 조형이므로 따라서 여러 가지 목부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도상이 있다. 이것을 '석류동'이란 용어로 단청 연구자들이 여러 책에서 쓰고 있으며 건축학 교수들과

학생들도 널리 쓰고 있지만, 이미 내가 〈한국미술의 탄생〉(솔출판사, 2007년, pp.495~562)에서 그 주된 조형이 석류가 아니고 씨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여 그 심원한 상징성을 밝혀서 장편의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그림 ④)

우리나라 사찰건축이나 궁궐건축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석류동' (이 용어는 이제부터 쓰면 안 된다)은 씨방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오는 가장 중요한 조형인데 그와 똑같은 조형이 바로 부석사 괘불의 중심에 있는 석가여래의 광배에 감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조형이 도대체 왜 광배에도 대담하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광배에까지 단청에서와 같은 조형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축소인 건축' 과 역시 '우주에 충만한 여래' 와의 관계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가 모두 만물생성의 근원자이다. 법계(法界)에 보주가 충만하듯이, 여래 자체가 보주가 충만한 거대한 보주라는 진실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씨방=보주의 조형과 여래의 조형이 같지 않은가! 여래의 정수리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오늘이 개천절이어서인지 씨방의 조형이 여래와 같은 모습으로 현신하는 극적인 광경이 나타나는 듯하다. 이 모든 과정을 짧은 글로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여러분은 조형언어를 배웠으므로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조형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하였을까요?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부석사 괘불의 석가여래 광배



그림 ② 광배 부분



그림 ③ 씨방의 영기화생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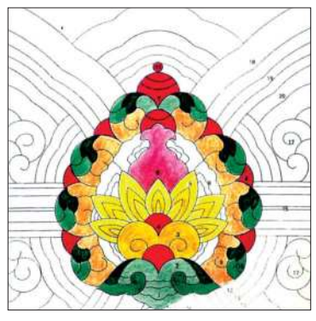


그림 ④ 학계에서 쓰는 석류동의 6년 전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송이 향 솔솔 버섯전골 일품



모듬 버섯 전골

△재료(4인 기준)

○ 송이버섯 2개, 표고버섯 4장, 느타리버섯 50g, 팽이버섯 50g, 무 100g, 당근 50g, 미나리, 청홍고추 약간씩

○ 유부주머니

유부 10장, 두부 50g, 청홍고추 1개씩, 다진버섯 4큰술, 당면 50g, 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미나리 약간

○ 맛국물 5컵

물 6컵, 다시마 2조각, 무 100g, 표고버섯 1개, 청양고추 1개, 국간장 1큰술, 소금 1/2큰술

△만드는 법

① 냄비에 맛국물 재료를 넣고 1시간 정도 불린 후 끓인 후 간장,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② 각종 버섯은 잘게 찢거나 저며 썬다.

③ 유부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윗부분을 잘라낸다.

④ 유부에 들어갈 재료는 잘게 다진 후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밑간을 한 후 유부에 채운 뒤 데친 마나리로 묶는다.

⑤ 전골냄비에 재료를 돌려 담고 국물을 부어 끓여 낸다.

산수유 연근조림

△재료(4인 기준)

○ 연근 200g, 산수유 30g

○ 다시마국물 2컵, 간장 3큰술, 조청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만드는 법

① 연근은 껍질을 벗긴 후 0.5cm 정도의 두께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

② 냄비에 다시마국물과 간장, 삶은 연근을 넣고 국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산수유를 넣어 졸이다가 마지막에 조청을 넣어 윤기를 낸 다음 참기름과 통깨를 넣는다.

간·신장에 좋은 '연근 조림'

송이버섯은 동의보감에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매우 향기롭고 솔 냄새가 솔솔나며, 약효 성분은 그 특유의 향에 있다고 한다.

무기질 함량은 다른 버섯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 칼륨은 느타리버섯의 10배, 양송이버섯의 40배, 목이버섯의 3배이며 철분은 다른 버섯에 비해10배 정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 항암작용의 효능도 지니고 있다.

버섯중의 버섯인 송이는 그 맛과 향이 으뜸으로 전골요리를 하거나 구이를 해도 좋은데 송이로 요리를 할 경우는 되도록 자체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양념을 과하게 넣거나 국물은 진하게 우리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송이로 국을 끓여 먹을 때는 물에 채썬 애호박을 넣고 끓으면 송이버섯 찢은 것을 넣고 살짝 끓여 약간의 소금으로만 간을 하여 먹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송이의 향이 오랜 여운을 남기게 한다.

산수유 연근조림은 뿌리 채소가 제철인 가을에 많이 해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간과 신장의 기능 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 귀울림, 요통, 무릎통증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한 산수유의 신맛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방광의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아이들의 야뇨증을 다스리며.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요실금 증상에도 효능이 있다. 산수유는 너무 일찍 넣어 조리하게 되면 연근의 형태가 퍼지게 되므로 중간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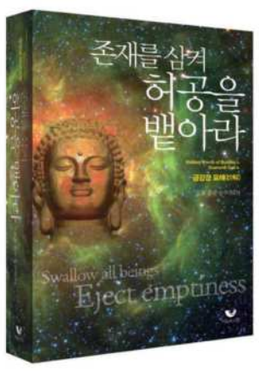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푼 漢·英·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게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英·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끌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 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불교 죽이려다 불교의 위대함 알게 돼



불교를 위한 변명
장상영 지음
성열 역주
문화문고 펴냄
1만5천원

당나라 때의 유명한 문인 한유(768~824)의 〈원도(原道)〉와 〈논불골표(論佛骨表)〉, 송나라 때의 구양수(1007~1072)의 〈본론(本論)〉과 같은 배불론(排佛論)을 비판한 무진거사 장상영(張商英 · 1042~1122)의 〈호법론(護法論)〉이다.

장상영은 19살 때 급제하고 처음 주부(主簿 · 문서와 장부를 관리하고, 관청의 물건을 출납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 임명을 받았을 때, 절에 놀러갔다가 불경이 비단 위에 금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을 보고 자신이 존경하던 공자의 글이 오랑캐의 가르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비분강개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새벽 삼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인이 까닭을 물으니 이유를 말하고 무불론(無佛論)을 써야겠다고 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부처님이 없으면 그만이지, 부처님이 없다는 글은 써서 무엇 하느냐?"며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글을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고 했다. 장상영은 그 말을 예사롭지 않다고 여기고 무불론을 쓰는 것을 멈추었다.

후에 동료의 집을 방문했더니 불감(佛龕) 앞에 몇 권의 경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 책은 〈유마힐소설경〉이었다. 장상영이 손이 가는대로 책을 뒤적여 보았는데, '문수사리문질품' 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탄한다.

책을 빌려 집에 돌아와 〈유마힐소설경〉을 보고 있는 장상영에게 부인이 〈유마힐소설경〉을 숙독하고 난 뒤 무불론을 쓰라고 한다. 예사롭지 않은 부인의 말에 송구스러워하며 그는 그때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게 되었고, 선승들의 가르침에도 마음을 두게 되었다.

"한유가 〈논불골표〉에 말하되, '부처의 가르침은 오랑캐의 법으로서 후한 때 중국에 들어왔으며, 상고시대에는 아직 없었다.

그때에는 황제 이하 문무 이상이 대부분 백 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 뒤에 부처님을 섬김이 점점 공경스러워지면서 사람들의 나이와 왕조의 수명이 한 층 더 짧아졌다' 고 했다.

그런데 한유는 비겁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맹자께서 '순임금은 저풍에서 태어나서 부하에 옮겼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쪽 오랑캐이고, 문왕에 옮겼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쪽 오랑캐이고,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서 필영에서 돌아가셨으니 서쪽 오랑캐' 라고 말했는데, 어찌 한유가 그것을 알지 못했는가. 순임금과 문왕은 모두 성인이시고 천하 후세에게 법을 시행하였거늘 사람이 오랑캐라 하여 어찌 그 법마저 폐지해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부처님은 정반국의 왕에다가 정반국은 남섬주부의 중앙이니 오랑캐는 아니다."

책은 불교를 폄하하고 비방한 저서의 글들을 뽑아 그 글이 옳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교가 중국의 기존 문화들 속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불교는 인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출발하게 된다.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대략 5백여 년이 지나면서 중국에 전해지는데, 그것은 인도를 배경으로 출발한 사상이 전혀 다른 역사와 전통, 문화 속으로 이입되는 것을 뜻한다.

중국에는 중국인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있었고, 더욱이 한족은 문화민족이란 자긍심 또한 높았던 터라 불교를 이민족의 사상이요 오랑캐의 가르침이란 시각으로 경시하고 배척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불교가 중국에서 정착하고 발

'배불론' 저서들 비판한 불교 '옹호론'
"부처님 공부부터 하고 글 쓰는게…"
'무불론' 쓰려다 부인 고언에 중단
〈유마힐소설경〉읽고 불법에 감탄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 보여줘

전하는 데에는 많은 험난한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승우(444~518)의 〈홍명집〉이나 도선(596~667)의 〈광홍명집〉 또는 〈집고금불도논형〉, 언종의 〈집사문불응배속등사〉 등의 글을 통해서 볼 때, 인도사상인 불교와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교나 도교와의 충돌이 빚어내는 사상적 갈등의 모양을 엿볼 수 있으니, 문화충돌이 얼마나 깊고 심각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충돌의 과정 속에서 불교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뜻에서 나온 글이 〈호법론〉이다.

당나라 때나 송나라 시대에 불교를 변호하는 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개가 출가한 고승들이 호교의 차원에서 썼던 글인데 비해 〈호법론〉은 출가자가 아닌 재가 거사의 글이다. 더구나 장상영 역시 중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유생이었고, 처음에는 불교를 배척하는 글을 쓰려고 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관심을 끈다.

앞에서 말한 한유나 구양수의 배불론인 〈불씨잡변〉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불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찰음식? 대중이 먹는 '절밥'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8천원



"질경이, 쌀, 소금"
"고구마, 쌀"
"소루쟁이, 채수, 된장, 굵은소금"

질경이죽, 고구마밥, 소루쟁이국의 재료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몇 가지 양념을 더하여 그대로 접시에 담아낸 불영사의 사찰음식들이다. 책에는 천년고찰 불영사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차린 밥과 반찬 이야기가 담겨있다. '불영사 사찰음식' 시리즈 3권째다.

정갈하고 몸에 좋다고 소문난 사찰음식. 하지만 막상 따라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 라고 하는 이들의 레시피를 따라해 보지만 '맛' 이나 '눈' 을 위해 개량된 경우가 많고 번다하다. 이런 요리는 실제 사찰 공양상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의 떡' 인 셈이다. 하지만 책에 등장하는 밥, 국, 무침, 장아찌 등은 실제 비구니 수행처로 유명한 불영사에서 스님들이 직접 운력을 통해 '현재' 도 '수시로' 만들고 먹고 있는 차림이다. 불영사 음식은 어렵지 않다. 무척 간단하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몇 가지 양념을 더하여 그대로 접시에 담아낸다. 전수(傳受)의 개념이 아니라 몇 번 만들어 봄으로써 내 것이 되는 음식. 공양주 스님만이 아니라 대중 스님이 모두 음식을 만듦으로써 절밥이 그대로 사찰음식이 되는 것이다. 번거로움을 피하면서도 자연 식재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음식들은 따라 하기도 쉽고 맛도 일품이다.



아토피 피부에 좋은 다래소금 장아찌

책에는 밥 · 국 · 죽 · 수프 · 겉절이 · 샐러드 · 면 · 튀김 · 떡 · 전 · 볶음 · 조림 · 무침 · 찜 · 장아찌 등 모두 132개의 사찰음식 레시피가 포함되어 있다. 132가지의 음식 중에는 특히 장아찌 요리가 많은데, 만들기에 조금 손이 가긴 하지만 원재료의 맛을 가장 잘 지키면서 입맛을 돋우고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특징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부쩍 장아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이다. 한식 요리점은 물론 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장아찌 한두 가지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예사인 만큼 이제 장아찌는 우리 식탁과 친해졌다. 거기다 숙성 과정에서 장(醬) 성분이 채소와 함께 숙성되기 때문에 독특한 맛이 나서 향이 있는 채소를 활용하기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불영사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인 '만들기가 쉽다' 는 장아찌에도 적용된다.

저자인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맛있는 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먹기 싫은 음식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 같은 음식을 통해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스님은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식들의 놀음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그 의식 놀음에 속고 있는 것을 존재의 요소인 오온(五蘊)으로 설하셨다. 일운 스님은 이번 책에서 채소를 주제로 한 음식과 함께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하며 이야기를 하나 더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음식이 머무르는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색(色), 그리고 음식은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는 느낌으로서의 수(受), 음식을 만들 때의 양념재료는 맛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과 같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느낀 상(相)을 마음에 새기는 작용으로서의 상(想),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의도적 행위로서의 행(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는 것으로서 식(識)으로 나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찰음식이 좋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만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식과 함께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 사찰음식과 수행을 접목한 것이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 가볍게 읽을 수 있다. 또한 책 중간중간에 대중이 함께하는 울력 이야기와 불영사 일기를 실어 책의 재미를 더한다.

박재완 기자

'소망' 과 '은혜' 담은 동화 '부모은중경'

별을 밝히는 아이

강미정 글 | 엄수지 그림 | 참글어린이 펴냄 | 9천5백원



초등학교 2학년 아라는 앞집에 사는 친구 연이가 얄밉고 부럽다. 연이는 동생이 태어났다고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간다. 아라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별을 밝히는 아이〉는 친구 연이처럼 자신에게도 동생이 생기기를 간절한 소망하는 아라가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정성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 동화다.

집에 돌아오면 아라네 집은 텅 비어 있다. 스포츠댄스 강사인 엄마는 학원에 가 있고 목수인 아빠는 지방의 현장에 가 있기 일쑤다.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아라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아라가 태어나던 날 아빠가 공사중이던 절의 서까래 아래서 발견했다던 나무로 만든 돼지 다르마뿐이다.

하도 만져서 코가 빨개진 다르마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아라에게 어느날 다르마가 대답을 한다. 아라는 깜짝 놀라지만 곧 다르마와 둘만의 대화를 시작한다. 동생을 원하는 아라에게 다르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다. 바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손 위에 네 개의 석등을 펼쳐 보여주며 그 석등 모두에 불이 켜지면 그 빛이 별이 되어 동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별 하나가 새 빛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동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노력,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라는 다르마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간다. 그렇게 석등에 불을 두 개나 밝힌 어느 날, 엄마가 열이 오르며 아프다고 했고 급기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다.

이야기는 〈부모은중경〉이라는 가볍지만은 않은 불교경전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콜라주 작업으로 아라와 다르마를 천진난만한 느낌으로 표현해낸 엄수지 작가의 그림도 기존의 불교동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하고 세련된 맛을 전해준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5 ~ 10/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산사로 가는 즐거움	현종	공감
4	직지 길을 가르키다	이시우	민족사
5	기도	법륜	정토
6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8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담앤북스
9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10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김기추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直指人心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기론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의 별처럼 빛나는 통찰력과 혜안으로《직지》에 담긴 게송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의 단상(斷想)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리키는 대로 걷다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 요코야마 코이츠(横山紘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732-2403~4 민족사

“불탑신앙은 과거불과 석존 당시도 있어”



탑과 신앙
우인보 지음
해조음 펴냄
1만3천원

불탑조성의 기원과 변천을 신앙적인 관점과 경전에 근거해 조명한 책으로 그 동안 미술사와 건축사의 입장에서 연구된 불탑 관련 도서와는 달리 경전에 근거한 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불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석가모니부처님의 무덤이다. 불탑은 불교 의례에 있어 찬탄과 보호의 의미를 포괄하며, 불자들에게는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의 상징으로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다. 불탑에 예경하면 현세와 내세에 무한한 공덕과 복을 얻을 수 있고, 불탑을 조영(造營)하는 자체로도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에 수많은 곳에서, 또 여러 시대에 걸쳐 불탑이 세워질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의 불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홍포의 기능과 함께 신앙의례의 장소를 겸하여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교 교리를 불탑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경설에 근거한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불탑은 반드시 지녀야만 하는 근거가 됐다.

불탑은 역사적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과 함께 조성되었지만, 여러 경전에는 부처님 재세 당시와 과거불의 불탑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책에서는 불탑 조성의 기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불탑이 다양한 양식과 형식으로 조성되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신앙된 데에는 그 동기를 이루는 사상적 배경이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을 다룬 경전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불교교리의 발달과 전개사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불탑의 통시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 열반 직후 전륜성왕 장례법에 따라 불탑이 조성된 사실과 사리팔분의 내용 등은 전하는 경전마다 내용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어떻게 불탑을 의미하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는가를 구체적인 용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또한 불탑의 종류와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통상목탑, 전탑, 석탑 등의 재료로 분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신앙인의 자세로 불탑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 탑돌이 의식과 그 공덕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경전에 근거하여 조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불탑 관련 문헌들을 총망라하여 부록으로 실어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불탑이 조성되고 신앙되는 사상적 배경과, 불교 경전과 경설에 근거한 이해는 불탑을 통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불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탑의 연구의 방향과 지금까지의 내용에 더하여 경전에 근거한 도상적 파악으로 불교의 사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 불교학계에서는 대승불교운동의 흥기와 함께 재가불자들에 의해서 불탑신앙이 일어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불탑의 기원을 고찰한 바와 같이 한역된 경전의 내용에 의하면 불탑신앙은 과거불과 특히 석존 재세 당시에도 탑이 조성되고 신앙되었음을 새롭게 알 수 있다.



통도사 봉발탑은 가섭존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가사와 발우를 가지고 계족산에서 미륵불을 기다린다는 미륵신앙에서 유래하며, 그 때 전해질 발우다.

미술사와 건축사 입장 아닌
경전에 근거해 불탑신앙 조명
신앙인의 자세로 불탑 이해

또한 초기경전에서 불탑 조성의 위치가 불교신도들이 쉽게 예경할 수 있는 사거리에 세우도록 부처님은 예언했고, 출가자는 수행에만 전념하고 재가불자가 불탑을 관리하는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불탑의 기원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첫째, 초기경전에 나타난 불탑관은 매우 사실적이며, 전통의 장례에 따라 불탑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둘째, 과거불과 석가모니불, 과거불과 대승경전에 보이는 다양한 부처님을 연결 지어 불탑신앙을 묘사하는 것은 사상적 정통성 내지 역사성의 답보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대승경전의 등장은 초기 불전과 달리 매우 신화적이고, 신앙에 입각한 불탑신앙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승불교 운동의 다양한 목적 속에서 불탑신앙은 그 활용의 폭을 넓히게 된다는 점과 전통 신화나 다양한 보살을 등장시켜 불탑신앙을 장엄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인도, 중국, 한국의 불탑신앙의 역사적 전개를 고찰함에 있어서 각국이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범주 안에서 특색 있게 변천했지만 공통적으로 경설에 입각하여 불교의 근본사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불탑신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책은 앞으로의 과제로 이번 연구에서 불탑신앙의 기원과 그 역사적 변천의 과정을 한역 경전을 중심으로 고찰했지만 앞으로 불탑을 연구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와 함께 전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탑의 양식과 형식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불탑사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불교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탑의 특성을 논하는 것은 편견에 빠질 수 있으므로 불탑사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詩를 빌려 깨달음을 읊다

선시

석지현 엮음 · 옮김 | 현암사 | 2만3천원



“구름은 피어 온 산이 새벽이요 / 바람은 높아 나무마다 가을이네 / 나그네 성 아래 머무나니 / 물결이 고기잡이 뱃전을 두드리네.” –구름은 피어 · 매월 김시습–

시를 빌려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선시(禪詩)’다. ‘선시’라는 말은 1975년에 〈선시〉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38년 전에 출간되었던 〈선시〉의 전면 개정판이다.

달마로부터 시작한 ‘선(禪)’은 원래 불립문자를 주장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선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선승들은 언어 표현의 수단으로 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수, 혜능에 이르러 선이 꽃을 피우고 최초의 선시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선시의 출현은 신수와 혜능의 개오시(開悟詩)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 뒤를 이어 영가현각(665~713)이 ‘증도가(證道歌)’를 남겼다. 증도가는 깨달음의 기쁨을 참지 못해 단 하룻밤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장편시다. 이 뒤를 이어 석두 희천의 ‘참동계’가 나왔다. 선승들이 시를 빌려 자신의 심정을 읊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들 사이에서도 시의 정취를 심화시키기 위해 선에 접근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했다. 그 최초의 시인이 왕유(669~761)다. 왕유는 선의 체험을 그대로 시화(詩化)한 시인으로, 후세에 선시의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왕유에 이어 맹호연, 이백, 두보, 장계 등 성당(盛唐)의 제1급시인들이 다투어 선에 접근하면서 당시(唐詩)라 일컬어지는 불후의 명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선은 신라의 법랑이 처음 전하고,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의해서 정착한다. 그리고 그의 제자 진각혜심(1178~1234)에 이르러 본격적인 선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눌, 진각을 거쳐 원감국사 충지(1226~1292)가 맥을 이었다. 고려 말이 되어 백운경한(1320~1376), 태고보우(1301~1382), 나옹혜근(1320~1376) 등에 의해서 순수한 임제선이 도입, 본격적인 선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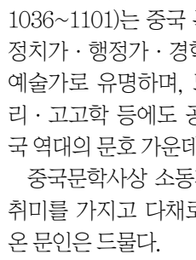
책에는 384편의 선시를 18개의 장의 시상(詩想)으로 나누어 담았다. 각 장 제목과 시제만 보아도 어떤 시정을 노래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새로 바꾼 부분이 많다. 우선 선시는 장 분류는 시상이 서로 닮은 시들끼리 묶었던 기존 방법을 그대로 따랐지만, 이번 개정판에서 새로 엮거나 뺀 시상이 많다. 일본 선시를 많이 추가했다. 그리고 한글 세대를 위해 한문 원시의 ‘시 형식 구분’과 ‘운율평측법 표기’를 삭제하고, 한자에 일일이 한글 음을 달아 보기 쉽도록 했다. 낱말풀이도 알기 쉽고 간단하게 고치고, 원시의 지나친 의역과 잘못된 번역은 모두 새로 고쳤다. 또한 지은이의 명쾌한 해설이 선시의 맛을 더한다. 고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한 것도 있다. 초판 이후 재판에서 빠졌던 경봉선사가 읊은 게송과도 같은 서문과 미당 서정주 선생이 붙인 서문(‘교열을 마치고’)을 다시 찾아 실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누구나 아는 소동파, 아무도 모르는 소동파 전기

소동파 평전

왕수이자오 지음 | 조규백 옮김
돌베개 펴냄 | 2만원



“누구나 소동파를 알지만 아무도 소동파를 모른다.”

이는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제대로 알기는 어려움을 토로한 말이다. 중국의 문호 소동파(1306~1101)의 삶과 문학이다. 책은 소동파 연구에 있어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중국 푸단대학의 왕수이자오 교수가 쓴 소동파의 전기이다. 또한 소동파의 방대한 시문집이 녹아 있어 ‘소동파 입문서’로서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소동파 평전 중에서는 3종의 책을 꼽을 수 있는데, 린위탕(林語堂)의 〈쾌활한 천재–소동파 평전〉(2001), 유종목(柳種睦)의 〈팔방미인 소동파〉(2005), 그리고 이 책이다.

중국 문필가(린위탕)의 책과 한국 전문학자(유종목)의 책에 이어, 이제 중국 소동파 연구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왕수이자오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설과 감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다.

소동파(蘇東坡, 본명 소식蘇軾 · 1036~1101)는 중국 북송(北宋)대의 정치가 · 행정가 · 경학자(經學者) · 예술가로 유명하며, 또한 의약 · 요리 · 고고학 등에도 공헌이 있는 중국 역대의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중국문학사상 소동파만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온 문인은 드물다.

정치가 소동파는 신법당과 충돌했고, 지방 관리로서 민중을 위한 삶을 살았으며, 지적 호기심과 탐구욕이 왕성해 새로운 곳을 좋아하는 동적인 인생을 영위했다. 평생토록 자연 속에서 여행하고 소요하기를 좋아했다. 또한 차와 술을 좋아해, 그 흥취를 시나 수필로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을 좋아해 예술가들을 사귀며 배우고,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보탰을 뿐만 아니라, 서법(書法)과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힘과 미(美)를 표현하여 예술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소동파는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문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그의 책 〈동인시화(東人詩話)〉에 다음 기록을 남겼다.

‘고려 문인은 오로지 동파를 숭상하여, 과거 급제자의 방이 나붙을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길, “33인의 동파가 나왔구나.”라고 하였다.’

고려의 문인들은 과거 급제 전에는 과거시험 준비로 풍월을 일삼을 겨를이 없다가, 과거 합격 후에 부담 없이 시 짓기를 배우는데, 그 가운데 소동파의 시를 가장 좋아했다는 의미이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서는 소동파는 물론 소동파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만큼 중국은 예로부터 정치와 문학의 관계가 밀접했다. 책은 문혁의 시기를 거친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안목으로 집필된 책이다. 소동파의 시집과 문집은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고래(古來)의 방대한 문학 · 사학 · 철학의 지식, 그리고 유불도의 사상이 녹아 있어, 전문학자라도 완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 독자들은 더더욱 접근하기 어렵다.

다양한 취미 다채로운 삶
고려 · 조선 문인에 큰 영향
어려운 ‘소동파’ 쉽게 설명

이번 책의 객관적인 서술은 소동파와 그의 문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적은 분량에도 소동파의 주요한 시나 산문을 빠짐없이 인용하여 소동파를 잘 모르는 독자라도 일독하면 핵심을 터득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꾸몄다. 동시에 쉽고 간결한 문체로 한 문인의 내면적 고뇌와 환희 그리고 정신세계의 핵심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소동파의 호방하면서도 섬세하고, 감상적이면서도 이지적인 인간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소동파의 생애의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그 시대적 · 가정적 · 사상적 배경을 중시하며, 그의 인생과 문학세계를 조명했다. 또한 학문적 관점에서 13장 ‘소동파의 문학적 성취와 그 특징’, 14장 ‘소동파 문학이 후세에 미친 영향’을 설파하고 있다. 부록으로 원서에는 없는 ‘소동파 연보’와 ‘소동파 관직 이동표’, ‘소동파 시, 산문 작품명 찾아보기’를 두어 우리나라 독자들이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했다.

박재완 기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북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금강경과 문화예술 ㊤

류종민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문명 · 문화 시야 확대… '무위세계' 도래

지난 주 금강경과 법철학에 이어 이번 주에는 본각선교원에서 진행하는 금강경과 문화예술을 만나본다. 불법의 핵심이 담긴 금강경에서 인류 문명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를 2주에 걸쳐 찾아보기로 한다. **정리= 배현진 기자**



류종민 교수는 … 서울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조소학과 교수와 예술대학장을 거쳤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당시에는 〈불교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간행했고 불교문화와 유산과 조형예술에 대해 연구과제를 삼아 시집으로 〈천강의 달그림자〉〈달 항아리〉〈빛의 길〉 등을 냈다. 저서로 〈오늘의 금강경〉이 있으며 〈한국문화와 불교〉외 다수 논문을 집필했다.

금강경 통해 문화의 지향점 찾기

금강경은 세존께서 깨달으신 후 설하신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의 방대한 경전 말씀 중 그 밝기가 정오에 해당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이 경으로부터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말씀하신 반야부 600부 중에서도 뛰어난 경전이다.

인류문화가 진화한 이래 최상의 지혜경전이라는 금강경과 오늘의 문화예술을 접목해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일은 시대를 성찰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적 모형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금강경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삼법인을 내포하는 무위세계의 본질이 깃든 최상의 반야지혜이다. 또한 오늘의 문화예술은 인류가 발전시킨 유위세계의 모든 기술과 생활과 정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통해 문화를 살펴보는 일은 유위를 넘어 무위세계에 근접해 보는 일일 것이다.

과연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며 그 바람직한 지향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술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창출해 나갈 것인가? 이는 오늘을 사는 인류의 대명제가 아닐 수 없다. 금강경의 지혜와 함께 이 명제를 비추어 보자.

종교와 예술의 맞물림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유위법의 세계를 환영과 순간의 세계로 표현하시고 참다운 본원의 세계에 깨어있도록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하신 말씀은 오늘날의 번잡한 문화생활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살심을 유지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란 규범 속에서 홀로그램(Hologram)의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문명의 진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는 다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과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뿐만 아니라 광속계를 떠나 타키온으로 구성된 초광속계가 있으며 다중우주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까지 유추하게 되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문명과 문화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5안으로 실상을 통투하시는 여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져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마음도 불가득이며 삼천 대천세계를 구성하는 미진과 일합상의 관계도 범부의 사량과 다르다.

중국 역사학자 주겸지(朱謙之)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종교, 철학, 과학, 예술의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다시 다른 3단계의 분화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종교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철학, 종교적 과학, 종교적 예술이 되겠고 예술의 관점에서는 예술적 종교, 예술적 철학, 예술적 과학으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의 최종 단계인 예술의 측면에서 보면 종교, 철학, 과학이 예술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으며 이것은 종교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개화가 역으로 예술의 관점에서 종교철학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오늘날의 문화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예술로써 인도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과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자카르타등 불교가 성한 동남아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방대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 서구에서도 문화의 발전상에 따라 신전과 성당의 예술적 장엄의 변모를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예술적 종교라는 코드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정신을 고양시킨 많은 예술적 공헌이 과거 종교를 통해서 현현 되었으나 이러한 종속관계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며 문화로서의 종교와 예술은 인간정신의 위대한 발로로서 각각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금강경의 각분에 비추어 본 문화예술

1) 법회인유분의 기원정사와 탁발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의 약칭으로 기타태자의 땅을 급고독장자가 숲속에 건립한 정사다. 지금도 벽돌로 된 법당과 정사의 유적이 남아 있고 이곳에서 부처님은 금강경을 설하셨다.

당시 코살라 국의 수도였던 사위성은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격조를 지녔던 듯 한데 일설에는 스라바스티(Sravasti)성에서 음사한 실라벌이 신라의 서라벌이 되고 오늘의 서울의 어원인 셔블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지금은 숲으로 덮여 있지만 세존께서 천이백오십인의 비구와 함께 이 사위성으로 들어가서 공양을 비시는 정경을 상상해 보자. 질서 정연한 행렬의 선두에 서서 준칙대로 차례로 밥을 빌으시고 기원정사로 돌아오시는 모습은, 오늘날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행하고 있는 장엄한 행렬로 연상할 수 있다.

2) 대승정종분의 항복기심과 구류중생

금강경의 요체인 3분의 항복기심과 구류중생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승려이자 정치가, 교육자인 백성욱 박사는 각자의 마음속에 구류중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정화하여 멸도하는 것을 일차적 항복기심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자연 바깥으로 일어난 증상도 사라질 것이라 했다. 이는 오늘날 임상심리학에서 자가 치료를 하듯, 구류중생의 마음에 근접해 내부의 심적상태를 정화하는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구류중생의 문화적 해석은 태, 란, 습, 화의 생물적 해석 외에도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의 방대한 해석이 있다. 물질화 되어 있는 유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무색은 형상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도 부처님은 중생이라고 보셨다. 중생의 종류는 이렇듯 광대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성을 지닌 생명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범주로 보면 몸이 물질화 돼 있는 곳에 있으므로 우리는 태생이고 유색에 속하는 존재다. 그러나 물질이다 아니다하는 분별도 멸도 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중생(有想, 無想)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렵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생명체는 당연히 유상이고, 개유불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 속에도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위나 책상에도 불성이 있냐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현대문명에 비춰 살펴보자.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물리학의 강입자 이론에서, 물체 속 입자들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치지 않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 상호교신하는 의식의 존재유무와 이 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Carpra, The tao of physics) 라이프니츠 또한 모나드(monad)라는 마음의 입자와 비슷한 단자론을 내세운 적이 있다. 물론 이는 가설에서 머물렀지만 앞으로 더 발전된 이설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금강경 통해 문화 살피는 일은
유위넘어 무위에 근접하는 것
보살심 유지하는 지침 되기도

무주상보시 통해 문화 격조 높여
무유정법 또한 문화예술의 요건
오늘의 문화는 유위에서 무위로

부처님이 일체중생지류를 아홉 가지로 나눈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범위는 무한하고 거기에는 무념의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까지 포함된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범위를 지구에 국한하는 시야에서 벗어나 문화와 문명이 확대됐을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좁은 시야로서 생명을 한정짓지만 부처님 말씀하신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까지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무념의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까지 포함된다.

이것이 다 내 속에 있는 생명들이고 서로 연기를 이루고 밖에 나타나 있는 생명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백성욱박사는 일차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을 멸도하면 밖으로 투사 되어 있는 중생도 멸도 될 것이라고 해석하신 것이다.

3) 복지사회의 문화와 보시의 적극적 의미

물질화된 금세기 문화에서 금강경4분 보시의 의미는 나눔의 행복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물질에 천착되어 있는 탐심을 정화하기 위해서도 반듯이 닦아야할 제일바라밀이다.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를 행할 수 있다면 오늘날 문화는 혼탁하지 않고 한결 높은 격조와 향기를 지닐 것이다.

4) 약견제상 비상(若見諸相 非相)의 궁극적 표현

'만일 모든 상(相)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는 5분의 말씀을 시각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놀랄 것이다. 그러나 사실재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한 사진작가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표현 하는데 중점을 두기도 했다. 그 작가의 작품은 개념미술이나 모노크롬(monochrome)의 단색회화에서 보이듯 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상은 있으되 제상이 비상인 경지,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만날 수 있는 본질적 세계이며 시각예술에서의 궁극적 화두이기도 하다.

여러 논의 끝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인 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일본 국보1호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양의 고뇌상과는 다른 언어로 표현한 부처님 세계의 정일한 사유상이다.

5) 무유정법(無有定法)의 문화와 해석

금강경7분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으며 정해진 법이 없음을 여래가 설하신다' 고 했다. 정해진 법은 여실한 법이 아니며 위없는 보편타당의 바른 진리도 아니라는 말인데 이를 오늘날 문화에 적용해보자. 진리라고 믿었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사례 외에도 오늘날 패러다임의 전환은 문화의 극점에서 항상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각 시대의 문화에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양식적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흐름일 뿐이고 어느 양식이 다른 양식보다 더 우수하다는 법칙은 없다. 문명에는 진화의 개념이 있으나 예술적 측면에서 본 문화에서는 진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술은 진화보다는 그 시대와 조응하면서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를 뛰어 넘으려는 자유의지가 있다.

무유정법은 범주에 갇히기 쉬운 인간정신의 창달을 위해서도 또한 계속 시야에서 일탈하려는 인간정신의 고양을 위해서도 오늘날 문화예술이 가져야 할 요건이다.

6) 금강경의 무위법과 오늘의 문화

금강경은 무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유위법의 무상함을 비추어 보게 한다. 그러나 일체법을 개시불법(一切法 皆是佛法)이라 하여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나누지 않았다. 문명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오늘날의 문화는 유위에서 무위로 향해 가는듯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유위는 손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는 무위로 진화되어 가고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있으면 불이 켜지는 감지기능의 발달은 점점 유위보다 무위가 상위라는 인식을 들게 한다.

이것이 더 진화되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감지해서 한 생각이 행동의 유위성 없이 그대로 현현되는 무위세계가 점점 도래 할 것이고 무위법이 상위법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계속〉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94년도 보이차 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율을 잘 익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돌보고 평화로운 직업을 갖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 행복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면 전생·미래 빙의·퇴마

- 우울증,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7회 완성) 출장가
-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사주학 성명학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빠른 이해 강의
용신 및 격국 중점강의
통변과 실전을 겸한 강의
수강문의 010-3711-5072
(수도권, 영남권)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무슨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수행할 비구니스님과 초보자 남녀행자스님 모십니다

(경주지역)
011-534-3345
010-4580-8394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기도, 수행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안산, 포교원)
010-9036-2131

최면 전생 빙의 특강

- 최면 우울증 심리치유 빙의치유
- 빙의, 몸안의 병 찾는법 (비법:6회완성)
-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기위주 속성)
- 최면 배웠으나 활용이 안되시는 분
- 빙의를 확인하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055)221-5182

천상을 여는 지장 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신병

천병 우울증 파킨슨
신장 고혈압 당뇨 몸이 붓고
병명 없이 아픈 분
스님 법사 문의환영
010-2418-6222

아 미 타 선 원

서울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사주카페 동업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010-4633-4575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길상수련 명상

지역당 모집 안내
자격 : 불교인 00명,
50세이상 여성
장소 : 청룡사 02)522-0125
전철2호선 방배역 2번출구
면접날짜 : 양력 10월 20일(일)
오후1~6시까지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금강송 분양

12년생 금강송 (높이 3 ~ 4m)
700 그루 보유
(10그루 단위 출하)
일반조경용, 사찰용,
전원주택용 등
문의 010 - 2573 - 2032

전통 자연치유 비법으로 고질적인 악성 피부질환 해결합니다

010-3028-6579

범음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점안의식,천도49제,구병시식,
산신,수륙대제,안택,
산사음악회 등,천수,사다라니
사물 송주 북,바라,
나비작법,회심곡 등,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사찰불공 접수 받습니다.
010-8829-4578 성불사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미륵존불 조성불사를 도와 주십시오

월하스님 글씨 병풍포함 3점. 서경보스님 글씨 병풍포함 4점. 일타스님 글씨 2점. 석주스님 글씨 1점. 수안스님 그림 3점. 석정스님 달마 병풍 1점. 경봉스님 글씨 1점. 청광선생 달마, 독수리 병풍 2점. 문화재 인도선생 달마 1점. 천경자 그림 1점. 중광스님 인불상 1점 위의 작품 21점을 미륵존불 조성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그림과 글씨도 마음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전세구함

신도가 어느정도 있는
도심사찰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지역,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010-4668-1284

신심깊고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실 종무실장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 가능 40대)
대구 조계종 사찰
010-3500-69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051)558-883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김해)
011-9514-372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천은사 보리수 나무

나무 굵기 50 ~ 60cm, 나무크기 5 ~ 6m
꽃피고 열매 맺음. 보리수 열매 둥글게 맺는 나무.
보리수 염주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내외로 키웠습니다.
총 14그루, 그루당 400만원
010-2280-4800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공양주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1)558-8830

특 강

우리말 천수경

대불정능엄신주

조상제사 잘 모시는 방법

10월 19일(토)~20일(일)

조상영가 태아 영가천도

준비물 : 쌀
(쌀은 노인 점심 공양 사용)

건강상담, 우 울 증
사업성공, 가족갈등

대학입시 기도

기도방법 회향은 중요합니다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
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값 15,000원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4회 과정 선착순 각 5명 (수강료 120만원)
2. 누구나 쉽게 배우고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그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얽매이지 않아야 근심과 걱정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잡아함경–

삼보사찰안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부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3개
- 대지 : 120
- 가액 : 10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시도시 사찰안내♣

- 총부지 : 1200평(남향)
- 대웅전(목조)24평, 삼성각(목조) 6평, 요사채 2층 방6칸
- 백화점, 법원 300M 거리 , 대단지 아파트 7000세대
- 총양도가 : 9억 3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강원도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등기 법정보장
- 관련대지 : 약 360평.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절충

010-7295-1259

암자안내

- 경남 거제시~도심속에 산사를 풍기는 도량
- 암자 앞에는 대금산하에서 사시사철 내려오는 맑은 계곡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 한 곳으로 모이는 도량
- 거가대교 부산~거제 톨게이트
- 내리면 10분거리, 마당까지 주차진입
- 부처님과 탱화,집기류는 모두 가져갑니다
- 일반전원주택 123평,가액3억(절충가)
- 현시세 땅값만 평당 200만원 함

010-8538-4458
010-6374-4458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0-8339-55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좋은위치
- 보증금1천만원/월80만원
- 시설비는 무료보시함
- 5층중3층 약200㎡(65)
- 중심가이며 시설 잘된 포교원)

010-7347-1010(사찰전문)
010-9058-6163(주지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절충가능)
- 전세 1억 . 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5037-6732

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대지 200평(문중땅)
- 건물 40평(지상권성립)
- 건물 5천 5백만원
- 법당 후원물품일체 2천5백만원
- 완벽하게 갖춰짐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010-6651-666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8억 3천만원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포교원안내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등산로 입구
- 별장같은 아늑한 단독주택
- 약 40평, 1층 법당, 방2, 공양간
- 2층 방 1
- 전세 8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협의 주차 30대

010-6393-5352

사찰안내

- 전북 익산 논산 강경 인근 중앙
- 평수 대지, 전 포함 161평, 전망 최고임
- 부처님 삼존불, 탱화, 산신, 칠성, 신중
- 주지실, 상담실, 객실 3동 현대식 주방
- 앞마당에 7층 석탑과 석불 관음상 모셔져 있음, 주차장완비
- 가액 : 6700만원 조금 절충가능

010-5315-922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8억 3천만원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암자터안내

- 위치 : 밀양 IC인근
- 산림속에 위치
- 암자 적임지
- 주택허가필 , 5백평
- 평당 20만원

011-9323-8616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해수욕장 (방생지)
- 대지 640평
- 건물 1층 60평, 2층 약 60평
- 통나무건물
- 가액: 5억 5천만원 (공시지가 105만원)
- 대출금 3억 4천만(양도가 포함)
- 공시지가보다 저렴합니다
- 사정상 급양도

010-7139-556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임법당안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내맥 바다와도 10분거리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

010-2008-0377

도심속의 포교원

- 위치 : 도봉세무서 뒤 기업은행 앞 (아파트, 상가, 빌라주택 밀집)
- 2층 건물에 2층 전관 25평
- 법당, 상담실, 방거실겸주방, 욕실 에어컨 2대, 정수기
- 기타 살림 일체,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1200만원 조절가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비구스님 환영
- 동업도 가능(부동산 조절)

010-3834-58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총 770평
-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2평/ 다용도용 30평. 불사중
- 요사채 30평 (추가 10평)
- 연못 조성 예정지 및 주차장 , 텃밭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금 있음) 양도조건 절충가능

010-2353-993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포교원안내

- 대구 중심지에 10년 포교 및 상담 하던곳
- 평수 8평
- 월세 10만원
- 불상, 에어컨, TV, 살림일체
- 몸만 오면 됨
- 500만원에 사정상 양도코저 함

011-806-846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
- 산세 수려하고 600년된 소나무 경관이 좋은곳.천년 고찰자리로도 손색이 없음
- 부지 4400평, 종교부지 1000평,
- 산신각 목조 9평
- 법당 30평, 요사 23평 중 불 때는 방 5평
- 양도가액: 3억 8천만원

010-8484-3917

사찰안내

- 경북 칠곡군. 과학대학근방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부지 약 2천 5백평
- 대출 1억 6천포함. 1억인수가능
- 총포함 2억 6천만원

010-7246-0100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건물의 2층
- 약 60평
- 아마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 호신불 72불, 신중단, 산신단, 영단, 각단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방, 공양간, 화장실
- 시설비 2500만원, 협의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법당엠프시설, 에어컨 3대

010-6278-14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6층 건물 6층 85평(옥상 사용)
- 큰법당, 공양실 친견실 방 3개
- 시설A급, 주차장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답사 후 절충)

010-6575-171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 대지 190평
- 법당 50평, 요사채, 공양간 85평
- 주차가능
- 도심속에서 조용하고 포교에 불편함이 없는곳
- 가액: 8억

010-5346-4138

청평한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3, 욕실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토굴안내

- 중부 곤지암 IC 에서 10km
- 대지150평 (건물 2층 60평 – 조립식)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양도가 1억 9천

010-9305-671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6층 건물 6층 85평(옥상 사용)
- 큰법당, 공양실 친견실 방 3개
- 시설A급, 주차장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답사 후 절충)

010-6575-1719

포교원안내

- 위치 광주 운암동(위치최고. 주차편리)
- 3층건물 중 2층 32평
- 법당.삼존불.후불 칠성.신중탱화.불단 원목 연등.영가등 인등전기LED.전기공사완벽. 인버터냉난방기2대 방3개.
- 주지실.접견실.스님방.공양간 샤워실.화장실 3개월전새로신설
- 즉시법회가능 보증금 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2500만원 꼭하실분만 전화요망

062)513-0391

광진사찰안내

- 위치 : 경기
- 면적 : 2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서울
- 면적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2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바람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주택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대지와 건물 3동
- 마을 동쪽 한적한 곳 앞은 천
- 남향 다양한 용도 가능
- 저렴한 가격 3500만원

010-8899-8899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중심 1.3호선역세권
- 평수 : 대지 75평, 건평 47평
- 법당 : 목재기와 16평
- 요사 : 스라브 21평
- 삼존불 봉안 기타 부속물
- 가액 : 5억(시내 APT 시가 비교)

053)473-8952
010-4732-895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유곡동 78-47. 주택 4층
- 시설완비
- 건평 100평정도, 시설비 없음
- 전세 1억, 달세 없음
- 방문 오후1시 이후 가능

팩스 055)745-6633
전화 055)748-6345
010-9892-343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 4층 건물에 2층
- 법당, 방2개, 공양간 (약 45평)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9870-749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 대구역 맞은편. 유동인구 많음
- 4층건물의 4층
- 평수 17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1-809-896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 지하철 2 ~ 3분거리
- 조그마한 사찰 전세 및 달세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전화상담

010-5667-5453
010-3574-3303

사찰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대지: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008-0377

암자터안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2채
- 가옥 40평, 25평 2채(전세가능)
- 땅 평수 8500평
- 가액: 9억 8천만 원
- 집터를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 경기충남지역상가와물물교환도가능

010-4130-0606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5547-8799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역 5분거리
- 3층건물의 1층, 30평, 마당 20평 법당, 삼존불, 산신각, 영단, 친견실, 공양간, 방2, 화장실2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천500만원
- 즉시법회. 절충가능

010-3293-3079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대지: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터안내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화리
- 상면 소재지(서울에서 1시간거리)
- 서울에서 시내좌석버스 있음
- 버스도 진입가능한 도로 있음
- 가평군이 시(市)승격 예정지역
- 대지 170평 : 전(田) 265평 =435평
- 평당 70만원
- 사찰이나 요양원건립 최적지

010-9259-0108번

기복의 전환점… 개인 치유 · 건강사회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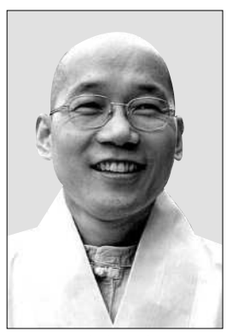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7 · 끝〉 명상수행의 방향과 전망

본지는 지난 1월 신년호를 시작으로 국내외 명상수행 프로그램들을 집중 취재하면서 국내 마음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사찰 및 불교대학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형식의 프로그램까지 마음 수행을 통해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연재를 마치며, 사찰 수행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는 명상수행의 방향과 전망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본다.


마가 스님


인경 스님


김열권 법사


묘원 법사

지난 9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013년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에서 불자들의 수행방법을 조사한 바 있다. 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호흡명상(21.3%)을 가장 선호했으며 경전 읽기(18.7%), 봉사(12%), 절 수행(9.3%)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서 호흡명상이 가장 선호하는 수행이라는 점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만큼 명상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수행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열풍을 반영이라도 하듯 동산불교대에서는 2013년 선명상학과를 개설했고 동국대 평생교육원 마음치유사 과정은 5대 1의 경쟁을 뚫고 수업을 들어야 할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은 두세 달치 프로그램이 조기 예약될 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또 조계사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은 양산 통도사에서 벤치마킹해갈 만큼 마음치유는 가장 각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순간의 유행에 치우쳐 마음수행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명상원 묘원 법사는 "마음수행은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2500년 전 부처님이 다 밝혀 놓은 것이다. 하지만 요즘 힐링 등 표피적 단어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나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일시적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과 역할을 잘 알고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그렇다면 마음명상은 기복불교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 불교신행 풍토 개선에 그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현대인들은 매스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에 더 이상 맹목적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복을 비는 행위는 인

단체, 동아리 교육에서 사찰로 확대
일시적 유행 아닌 본질적 수행 이어야
생활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각광
단기 코스 지도자 배출 부작용 우려

류역사의 시작부터 있어왔기에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이것이 하루에 아침에 사라질 수도 없다. 하지만 맹목적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스님은 "치열한 경쟁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학 불교 이성 불교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명상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행 방법이며 불교의 신행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명상의 대중화는 불교 포교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열쇠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명상 열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 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동국대평생교육원, 명상상담연구원, 조계사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등에서 이와 관련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빠사나붓다선원 김열권 법사는 "명상지도자는 교리와 수행을 동시에 갖추고 일반인들의 고민을 충분히 들어주고 상담해줄 수 있어야 한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캐치하고 이를 연구하고 수행과 응용해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결국 제대로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체계적 명상지도자 과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명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은 2000년대 초 요가 열풍에 힘입어 우후죽순처럼 남발했던 요가지도자 양성에 빗대어 명상지도자 배출의 신중성을 강조한다.

스님은 "1970년대 요가가 국내로 들어와 2000년대에 크게 유행을 하다가 현재는 그 열기가 식어버렸다. 이유는 요가가 크게 상업화 된 것은 물론이고 지도자자격증을 3개월 과정 프로그램만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 보니 양질의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해 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도 못한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경 스님은 이처럼 명상 관련 지도자 역시 커리큘럼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가 열풍과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의사 한 명을 배출하는 데에는 10년 이 걸리잖아요. 명상지도자도 이처럼 철저한 트레이닝을 거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더 공신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방대한데 하루아침에 명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오랜 시간 훈련받고 수행한 지도자 배출은 명상이 우리 사회에 대중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점입니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불자 70%가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교의 수행은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행을 통해 탐진치를 내려놓고 '행복의 길' '깨달음의 길' 로 나아가는 것은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과제다. 개인의 마음치유가 사회적 자비 실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마음의 종교 불교는 명상포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불교명상' 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화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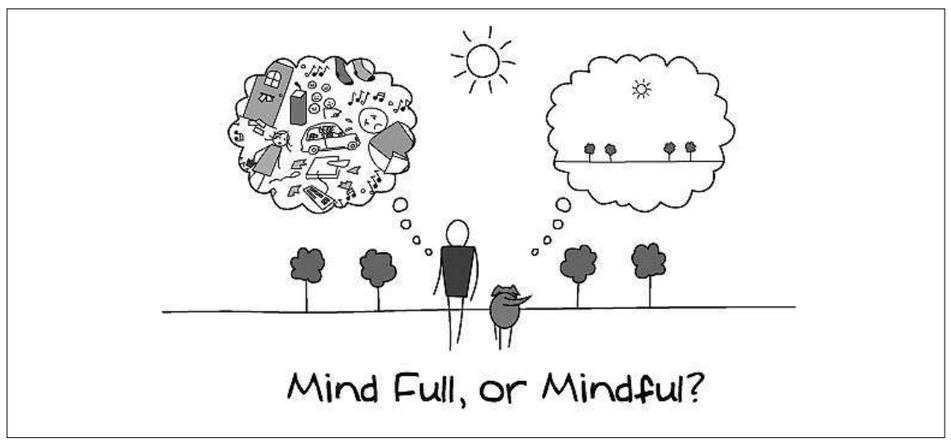
〈15 · 끝〉 서구의 불교명상 왜 주목받나

정신적 삶 · 감성지능 개발에 역점… 참여 불교의 기반

본지는 2013년 신년부터 서구에서 한 트렌드로 잡고 있는 '마음산업' 에 주목, 북미 · 유럽 등 서구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마음산업 현장을 인터넷과 서적 등 자료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개했다.

현재 서양에서 불교를 기반으로 한 마음명상 교육은 태국, 티베트, 베트남,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가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종교로서보다는 새로운 교육과 문화적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서구인들이 불교명상 수행을 통한 마음치유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과학에 상응하는 세계관의 모색, 기독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불교명상 수행을 그들의 방식으로 변형시켜 하나의 교육문화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본지에 소개된 14개의 명상교육 현장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또 나름의 전통이나 고유의 특색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연재를 마치며 서구 마음명상 수행의 특징을 살펴본다.



서구에서는 위빠사나 명상이 마음챙김(mindfulness)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수행단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기업 내 교육기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은 존 카밧진의 페이스북에 있는 마음챙김 이미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에서 명상교육 프로그램은 테라와다, 즉 상좌부 초기불교에 기초한 단체들과 일본 조동종,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단체가 주를 이룬다.

단체들은 대부분 서구인들이 직접 세우거나, 동아

"동양의 이상을 서양에서 실현하자"
초기불교 · 티베트 불교 등 영향
의식 등 단순하게 변형 · 기독교 한계 보완

시아의 불교 지도자들이 포교를 위해 건립한 것들이다. 서구인이 세운 단체로는 미국 통찰명상회(IMS), 영국 휴양명상센터인 샤르팸 트러스트 · 가이아 하우스, 영국 찌따위웨까 사원, 독일 붓다하우스 등이 있으며, 설립자들은 서구 기성세대의 기존 질서나 권위에 반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동양으로 직접 넘어가 수행지도를 받은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의 불교 지도자들이 세운 단체로는 프랑스 명상공동체 마을 플럼 빌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젠센터, 스코틀랜드 홀리아일랜드 세계평화센터, 미국 샴발라 센터 등이 있으며, 현지 제자들이 명상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서구인들이 참여하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명상교육의 특징은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단순화 시켰다는 점이다.

그 예로 위빠사나 수행의 권위자인 잭 콘필드와 죠셉 골드스타인이 세운 미국 통찰명상회(IMS)는 '진정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수행을 가능한 단순하게 전하고 싶다' 를 모토로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의식, 가사 착용, 염불, 종교적 전통을 다 생략하고 명상 수행만 전념하게 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 승려 故 최감 트룽파 린포체가 세운 샴발라 센터에서는 불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인들을 위한 샴발라 교육(Shambala training)을 개발해 종교라는 틀에 들어가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위빠사나 명상이 마음챙김(mindfulness)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수행단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기업 내 교육기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 현대인들의 만성스트레스에 대한 탈피, 정신적 삶의 질 중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존 카밧진 박사는 1979년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국에서 약 300개 의료기관과 전세계의 750여 의료기관에 도입해 공황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중독질환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차드 멍탄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내면검색 리더십 교육기관(Search Inside Yourself Leadership Institute)' 에서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개발 명상프로그램' 을 개발해 임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서구의 명상트렌드는 수행을 바탕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환경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등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명상 휴양센터인 샤르팸 트러스트 · 가이아 하우스와 스코틀랜드 홀리아일랜드 세계 평화센터는 다양한 명상 코스를 포함시킨 휴양시설을 제공하면서도, 환경활동 및 보존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선원은 사회적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를 세워 마약중독자, 저소득층, 미혼모 등 소외이웃을 고용해 삶의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하트포드 선센터는 에이즈 호스피스 요양시설을 세워 세상에서 홀대 받는 에이즈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고 있다.

서구 명상수행가들은 "20세기가 폭력과 혼란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세기는 전혀 달라질 것이므로 고래(古來)의 지혜를 일깨워 동양의 이상을 서양에서 실현시키겠다"며 "특히 인간의 우월주의를 버리고 동 · 식물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협동의 철학을 창출할 때 대립을 상호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고 말한다.

이런 불교적 생각을 바탕으로 서구의 마음명상은 인도, 티베트, 태국,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등 각 나라의 불교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쉽고 구체적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마음명상을 합리화하거나 과학화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려는 한계도 있다.

1000년 이상을 불교 전통 속에서 살았음에도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한국불교.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수행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과제중의 과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시비왕이 비둘기 대신 살 베었으나 곧 회복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0)

시비왕이 부처님이 된 사연

과거에 시비라는 왕이 있었다. 왕은 크게 정진하여 일체 중생 보기를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 했다. 세간에는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므로, 석제환인이 죽으려 할 때에 생각하기를 '어디에 온갖 지혜 지닌 사람이 계시는 것일까?' 하고 곳곳으로 다니며 물어보았으나 의심을 끊을 수가 없었으므로 근심 걱정하며 앉아 있자, 뛰어난 변화사(變化師)인 비수갈마천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십니까?"

석제환인이 대답했다.

"나는 온갖 지혜 지닌 사람을 구하고 있으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한다."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로서 보시, 지계, 선정, 지혜를 지닌 이가 계신데, 오래지 않아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석이 물었다.

"누구신가?"

비수갈마가 대답했다.

"바로 우시나종의 시비왕이십니다."

석제환인은 비수갈마에게 말했다.

"이제 그를 시험해 봐야겠구나."

비수갈마는 몸을 변화시켜 눈이 붉고 발이 붉은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었고, 석제환인은 몸을 변화시켜 매가 되었다.

매가 급히 날아 비둘기를 쫓자 비둘기는 곧장 가서 왕의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 온 몸을 벌벌 떨면서 눈을 굴리고 죽어가는 소리를 냈다. 이때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말했다.

"이 왕은 모든 것에 인자하므로 마땅히 보호할 것이니, 이런 조그마한 비둘기라도 마치 집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잘 돌봐줄 것이다."

그때 매는 가까운 나무 위에 있으면서 시비왕에게 말했다.

"저의 비둘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먹이입니다."

그러자 시비왕이 매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비둘기를 받았지, 네가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 뜻을 내었을 적에 온갖 중생들을 받아들여서 모두 제도하려 했다."

매는 말했다.

"왕께서는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온갖 중생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저만 가엾이 여기지 않고 저의 먹이만을 빼앗으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너는 무슨 먹이를 구하느냐? 나는 서원하기를 '그 어느 중생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면 반드시 그를 구호하겠다' 고 했다. 너는 어떠한 먹이를 구하느냐? 역시 너에게 주겠다."

매가 말했다.

"저는 막 죽은 더운 살코기를 구합니다."

왕은 생각했다.

'이러한 것은 얻기 어려워서 스스로 살생한 것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로다. 내가 어떻게 하나를 죽여 다른 하나에게 주겠느냐?'

생각이 이미 정해지자 게송을 읊었다.

"나의 이 육신은 / 항상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속해 있어 / 오래지 않아 냄새가 나고 문드러질 것이니 / 구하는 이에게 주어야 하리."

이와 같이 생각한 뒤에 사람을 불러 칼을 가져다 스스로 다리의 살을 베어 매에게 주자 매는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비록 더운 살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나 마땅히 이치로써 따져보면 살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비둘기와 똑같이 하여야 합니다."

왕이 말했다.

"저울을 가져오너라. 살을 비둘기와 대등하게 하리라."

왕이 살을 다 베어 내자 비둘기와 비로소 똑같아졌으므로, 마음속으로 책망했다.

'나는 스스로 견고하여야 하니, 미혹되거나 번민하지 말자. 일체 중생이 큰 괴로움의 바다에 빠졌으므로 맹세코 그를 제도하련다. 무엇 때문에 게을리 하고 번민하겠는가? 이 괴로움이야말로 아주 적은 것이요, 지옥의 괴로움은 많은 것이다. 내가 지혜와 정진과 지혜와 선정이 있는데도 이런 괴로움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지옥 안의 사람으로서 지혜가 없는 이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자, 그때에 천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했고, 큰 바다에는 물결이 일었으며, 마른 나무에서는 꽃이 피었고, 하늘에서는 향의 비가 내리면서 좋은 꽃을 흩뿌렸으며, 천녀들은 노래고 찬탄했다.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석은 왕에게 말했다.

"당신은 살을 베어서 몹시 괴로울 터인데, 괴로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까?"

시비왕이 말했다.



삽화 · 강병호

"나의 마음은 기쁠 뿐이요, 괴로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제석이 말했다.

"누가 당신을 믿겠소?"

이때 왕은 맹세했다.

"만약 제가 살을 베고 피가 흐르면서 성내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으며, 일심으로 번민하지 않으면서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이라면, 제 몸이 이내 본래대로 회복되도록 하소서."

말을 마치자, 즉시 본래대로 되었다. (〈대지도론〉 제4권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㊵



생명의 소중함에 경·중 없어

병아리 구족(具足)이

2013년 9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구족)가 죽었다. 멀리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아들 가족이 보내준 병아리다. 병아리는 돈을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기르던 어미 닭이 낳은 알에서 나온 병아리였다. 온 가족들이 새 생명을 신기하게 여기며 축하했던 기억이 났다.

처음 세 개의 알에서 세 마리의 병아리가 성공적으로 태어났지만 날이 지나면서 두 마리의 병아리가 죽고 홀로 남은 한 마리는 지난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유는 우리 집에 마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이었다. 찻상 아래 병아리 변이 있어 닦으려고 차상을 밀었는데 그 속에 병아리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 그만 병아리가 다리를 다쳤다. 내가 "미안해"라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안고 달래며 울기도 했었다.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절룩이면서도 잘 걸어 다녔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자꾸만 누워서 눈을 감고 졸았다. 병아리한테 정말 미안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던 날, 병아리를 들고 온 손자가 병아리와 헤어지면서 슬피 울었던 기억이 났다. 잘 키워 설날에 오면 또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손자한테 면목이 없다.

'반야심경' 듣고 떠난 병아리
부처님 법대로 사는 세상 오길…

병아리가 죽기 전날 나는 범어사 쪽으로 볼 일이 있었는데, 병아리를 태우고 갔다. 병아리가 위태로워 보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볼 수 있을 때 세상 구경이라도 맘껏 하게 해주고 싶었다. 병아리 일생이라는 게 뻔한 것이어서 이름을 구족(具足)이로 지었다. 다음 생엔 꼭 사람이 되어 구족신통의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지었던 이름이다. 너무 잠만 자니 공진당이라도 먹이면 원기를 찾을까 싶어 입으로 꼭꼭 씹어 먹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영 몸이 쳐져 아무래도 죽을 것만 같아 부처님 전에 이별을 고하고 다음 생엔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를 축원하며 고통 없는 주검을 기원했다.

나는 미리 우전 차를 담았던 오동나무 통으로 관을 삼아 그 속에 향 몇 개를 담고, 가다가 먹을 것도 담고 화려하게 핀 난(蘭)꽃 한 송이도 담았다. 그리고 녹차를 우려 병에 담아 절이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 묻어주었다. 그리고 차 한 잔 올리고 반야심경 한 편 읽으며 왕생극락을 빌었다. 어린 생명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것이 가엾고 마음이 아팠다. 말 못하는 작은 병아리였지만 분명 한 세상에서 함께 숨 쉬며 산 생명이었고, 인연이었다. 그 삶을, 인연을 죽음으로 땅에 묻으니 죽음에 대한 슬픔엔 경중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을 겨우 삼키며 집으로 와서는 큰 소리로 울고 말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병아리는 행운인 거야 병아리가 되지 않았다면 누구로부터 계란 후라이로 먹히고 말았을 테고 또 잘 자란다 한들 결국엔 누군가의 식탁에 올려졌을 거야. 그런 운명이 그래도 좋은 인연 만나 마지막 길에 반야심경도 듣고 진심어린 축원도 들을 수 있어 축복인거지."라고 말했다.

그 날 하루종일 내 맘엔 온통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만 들려왔다. 이별은 안타까운 것이었다. 역시 이별에도 경중은 따로 없었다. 아무리 집착을 끊으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 느낀 하루였다. 슬픈 날이었다.

설날에 올 손자 얼굴이 어른거렸다.

알면서도 당할 뻔 했던 보이스피싱

남의 얘기로만 알았던 '보이스피싱' 이 내게도 일어났다. 며칠 전이었다.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 이름을 이미 알고 본인 확인을 했다. 본인 확인에 응하고 나니 "여기는 농협 서울 여의도 농협 지점인데 방금 정수만이란 사람이 나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져와 돈을 찾으러 왔는데 조금은 의심스러워 확인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차례로 물으면서 확인을 했다.

"요즘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사기 행각을 하니 은행으로서도 하루에 몇 번씩 이런 확인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지금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니 그 사람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지나는 순찰 경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여의도 경찰 수사계 형사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조금 전과 같이 나의 모든 신상을 다시 묻고는 너무 빈번한 일이니 수사에 도움을 달라며 신고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나는 꼬박 꼬박 대답을 하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과의 거래하는지 등을 물은 후, 지금 지급정지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 가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하마터면 나의 모든 계좌번호를 불러 줄 뻔 했는데, 그때 갑자기 수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은행에 나가서 각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걸려왔던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결번이었다. 남들이 그런 일에 속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보들 같이 왜 속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내가 당해보니 조금은 이해가 갔다. 하마터면 큰 일날 뻔했다.

점점 더 주변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부처님의 바른 계율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본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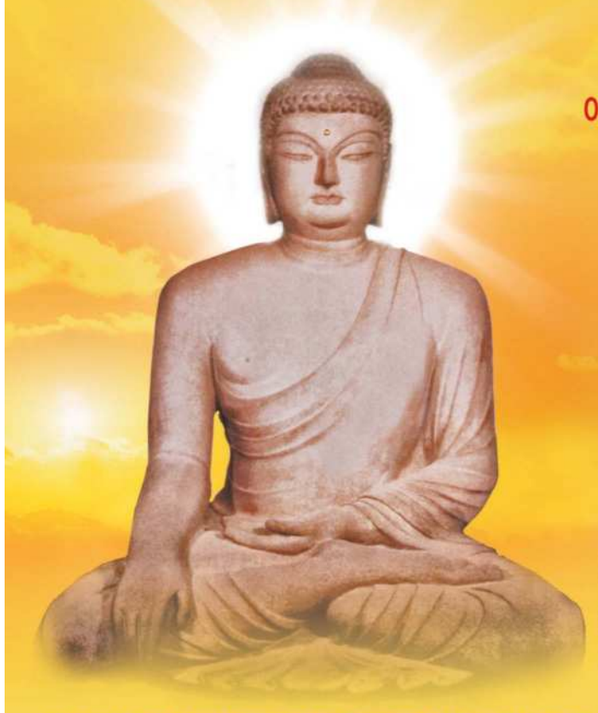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개정판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행 스님

내가 혼자 했다고 나라는 걸 세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중용을 하고 돌아가야만이 자유를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걸림이 많은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진의를 완전히 터득해서 알아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심부름만 할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가 끊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의 근본이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은 직결이 됐다는 얘깁니다. 우주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법에 의해서 바로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돌아가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공생(共生)이며 공심(共心)이며 공체(共體)며 공용(共用)이며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도 에누리 없는 아주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이고 상대가 없다면 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지요. 소가 가다가 언덕을 보고서 비비니까 언덕이 하는 소리가 "허허! 언덕이라는 내가 있기 때문에 소가 나한테 와서 비비는구나." 했답니다. 그래서 소의 탓을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오계향(五戒香)이, 다섯 가지 계향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향(戒香) 할 때,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따로따로 흩어지는 겁니다. 물질세계에서 겉으로만 계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써 채찍을 삼고 모든 권속들하고도, 사형 사제들하고도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 간다면, 그리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마음의 계향이 되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마음의 자세가 슬기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나 아닌 나로부터 가야지 나를 세우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나를 빼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습니다.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데 바로 좋은 마음으로 바꿔 쓸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광력도 전력도 자력도 통신력도 충만하고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 자체가 업식이 돼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서 미래를 향해서 현재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컴퓨터를 사람들이 입력을 해서 쓰지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오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속을 아는 것이며,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며, 심안으로 보는 것이며,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며, 자기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아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숙명통과 더불어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져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된 데다 다시 놓지를 않아서 다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데다가 우리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간 대로 새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데다 되놓지 않는다면, 즉 말하자면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이 모두를 아마 면치 못할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고 얽매여서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그 모든 고의 테두리에서, 또는 업의 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팔자 운명도 마음대로 못할 것이요, 또는 세균성이 와도 영계성이 와도 업보성이 와도 유전성이 와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온 데다가 되놔라. 나온 데다가 믿고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는 거와 같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무변하면서도 그렇게 엉뚱하게 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업 선업이 과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각자 몸뚱이 속에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혼합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키고 싶어서 어느 부부의 정자 난자를, 몸을 빌립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를 그렇게 형성을 시켜서 바로 자기 모습을 앞장세워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자 바로 불성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뿌리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나무뿌리가 있는 것을 아는데 나무는 자기 뿌리가 흙에 덮여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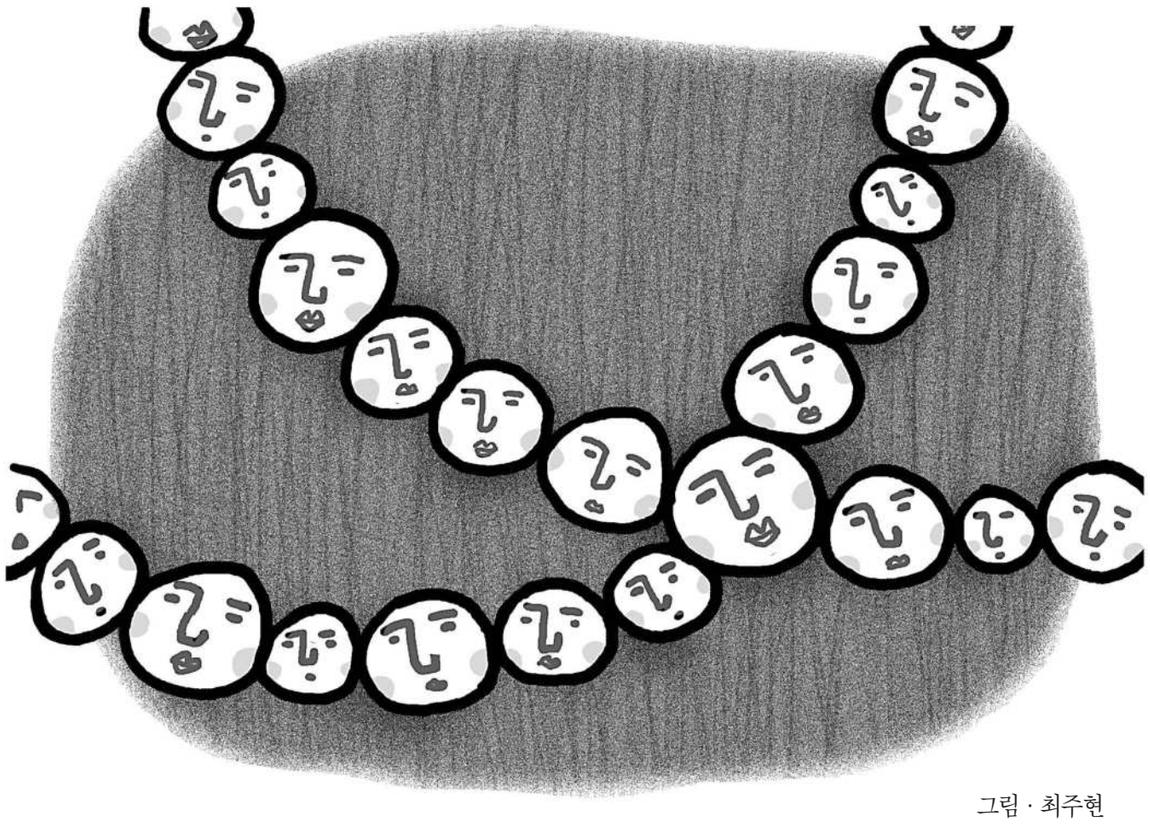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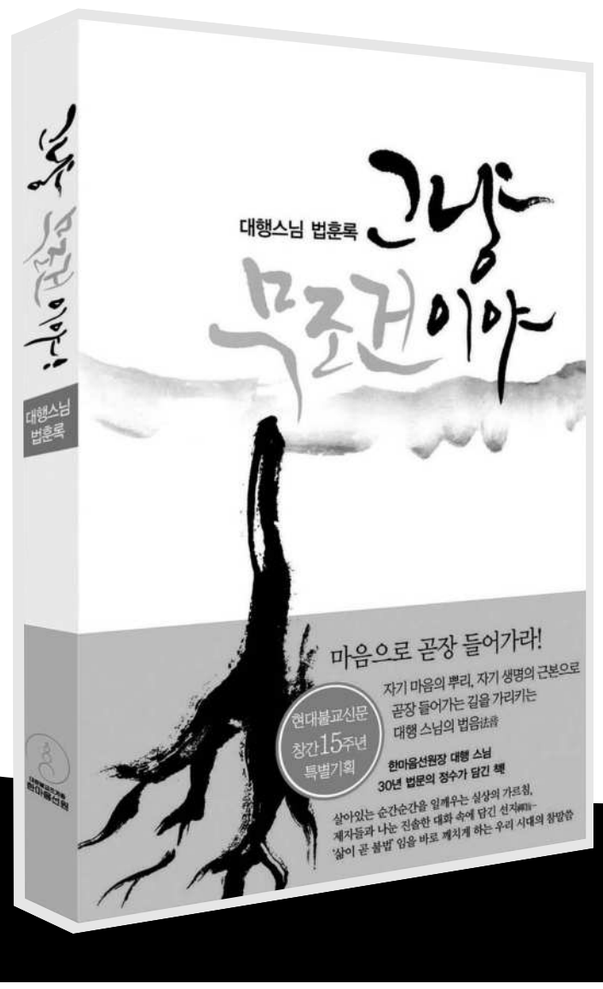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자기 뿌리에서 모든 걸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빌고 온통 야단법석이니 그렇게 해서는 자유스럽게 마음을 발전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계와 물질계를 혼합시켜서 같이 중용을 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무 살자고 남의 뿌리에다가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게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남의 나무를 쳐다보고 남의 나무뿌리를 쳐다보고 내 나무를 키워 달라고 아무리 빌어 봤던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부터 보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으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끌어 가는 줄 아십시오. 차가 가려면 운전수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운전수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면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는 바로 양면을 다 움켜잡고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바로 육신과 영원한 근본인 뿌리와, 즉 말하자면 생명의 근본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을 내는 법, 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지금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림살이가 바로 자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걸음을 걸어올 때나 일을 할 때나 고정되게 일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그렇게 엄청나고 광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딴 종교에서는 마귀 소굴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술적인 이론만 가지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감고 앉아서 그냥 귀신 놀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서나 앉으나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부처님 법에는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눈을 감았으나 떴으나 똥을 눌 때나 먹을 때나 모두가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수천수만의 생명들과 의식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수화풍도 한데 합쳐지기 이전에는 암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쳐지니까, 화목하게 합쳐지니까 밝은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밝은 세상이 오고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거를 못 믿겠거든 우리의 몸속을 한번 보십시오.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생명들이 그렇게 진화돼서 쫓고 쫓기면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투어 가면서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이 돼서야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은 만날 각자 내가 살고 내가 줬고 내가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뚱이는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즉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요 관리인입니다. 이 몸뚱이는 바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또 사대 성인들께서도, 많은 조사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얘,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가는데 중생들이 배 안에 잔뜩 탔으니 선장이 노를 똑바로 잘 저어서 나가야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문수보살이 유마힐 거사한테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겠노라." 한 뜻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몸 안의 자생중생들이 병이 나아야 여러분 몸이 건강하죠.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중생들을, 내 몸속의 중생들 병이 다 나아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얘깁니다. 내 자생중생부터 제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평등공법 봉에 모두가 한자리를 하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 직결돼 있고 한도량에서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력이나 금속이 어디든지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각자 마음을 통해서 바로 몸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천백억의 보살로 화해서, 바로 천차만별의 응신으로 나투면서 천차만별의 중생들한테 자동적으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백억이라면 바로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묻지 마세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다 놔야만 합니다. 병에 걸려도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뚱이 속에서는 내면의 모두가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이 '내 뿌리인 바로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음으로부터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사대에서 통신을 받고 다 작용을 해 줍니다. 안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으로는 세포의 생명들이 화해서, 이 지구에서 레이더망으로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이 혹성과 같은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전부 나가서 마음을 조정하고,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내 가정을 조절하고 또 사회를 잘 조절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바깥에서 세균성이 들어오는 것도 막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서 벌써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면으로다 입력이 항상 돼야 되는데, 1년을 해 놓든지 2년을 해 놓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는 세균성을 막고, 또 들일 건 들이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체로 치는 역할을 합니다. 통신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파악해서 들이고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통신하고 조달을 하는 것이 이 세포의 모든 소임이라고 봅니다.

> **우리는 한 치도 에누리가 없는**
> **아주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내면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혼자 먹는 것입니까, 그게? 혼자 듣는 것입니까, 혼자 보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더불어 나인 고로 내가 혼자라는 걸 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다가 외부적으로도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만사,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잘한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없느니라.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나를 따르되 나를 믿지 말고,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알면 바로 과거의 부(父)를 현재의 자(子)가 상봉케 되느니라. 상봉케 된다면 바로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성부처가 바로 너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바로 서로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일체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병풍 둘러치듯 둘러친 이 세상이 팔만대장경에 속하느니라. 너만 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너만큼 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친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둘이 아니니 바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얽히고설켜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상대가 잘못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욕을 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건 거기에 맡겨 놓으면서 마음으로 잡아야지 말로 몸을 잡으려고 한다면 몸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몸이 움죽거리지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죽거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바로 몸이 움죽거리고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병이 나거나 일가친척이 병이 나거나 내 식구들이 병이 났어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 거를 알고 내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 그게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마는 병이 나서 아팠을 때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찰나찰나 내 마음을 통해서 나투십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내가 병이 나서 주인공에다 맡겨 놨을 때는 여기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올 수 있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통신처입니다, 통신처.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듯이,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되듯이, 내 주인공의 뜻을 세워 놓지 않으면, 선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나서 거기다 맡겼을 때는 바로 한 찰나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이 약사 보살이 돼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인공! 당신만이 이거를 대치해서 해 나갈 수 있잖아.' 했을 때는 관세음이 되시고 '아이고, 명이 짧아서 어쩌나.'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칠성이 돼 주시고, 또는 '아이고, 좋은 데로 가야 할 텐데,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주인공에 맡겼을 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또 마음에 물리가 터지지 않아서 애를 쓰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동방의 아촉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둘 아니게 지켜볼 수 있는 관법을 잘 알아야지.' 한다면 바로 아미타가 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는 기묘한 법이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여러분이 충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불교 시리즈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주제에 대한 풍성한 이야깃거리,
에세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선한 글쓰기.

평이하고 쉬운 언어로
불교의 큰 바다를 헤쳐
나가는 나침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박이오 저/국판변형 168쪽/9,000원

스님은 뭐하시는 분일까?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224쪽/10,000원

절은 어떤 곳이지?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206쪽/10,000원



템플스테이, 이것만을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 선 엮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자 세상보기

21세기 오늘, 한글날의 의미



이 도 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글날이 돌아왔다. 다시 공휴일이다. 쉬는 날이라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21세기 오늘, 한글날은 불자인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다. 평균의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가 단 하루 만에 문자를 터득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랜 동안 문자를 지배층이 독점을 해왔으며, 문자로 된 지식과 정보는 지배와 권력의 바탕이었다. 피지배층이 문자를 해독한다는 것은 그 문자로 된 정보와 지식을 지배층과 공유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문맹률이 1%이하인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 이 나라에선 대중이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 지배층과 동등한 지식과 정보, 그에서 파생된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다. 정권이 다시 독재로 회귀하고 있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노력만하면 한국의 대중처럼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이면서 세종대왕의 뜻이기도 하다.

한글은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소젖', '우유(牛乳)', '밀크(milk)'가 같은 낱말일까.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을 사용하더라도 이미지와 의미, 표상하는 세계가 달라진다. 샤피어-워프의 가설대로 "언어는 세계의 형식을 규정한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몸은 한국인이지만 아직 한문을 빌려 중국인처럼 사유하였을 것이다. 한글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한국인으로 사유하고 표상하고 실천하게 되었다.

한글은 지금 현재 가장 훌륭한 문자이자 먼 미래의 문자이다. 지금 서양은 말과 문자가 일치하는 음소문자인 알파벳을 쓰고 있는데, 이를 만드는데 5,000년이 걸렸다. 언어학자 겔브(I.J.Gelb)에 의하면, 슈메르의 그림글자(기원전 3,100년)가 셈말의 소리마디 글자(기원전 1,700년)로 발전하는데 1,400년이 걸렸다. 이 셈말의 소리마디글자가 페니키아 문자 등을 거쳐 그리스문자(기원전 900년)의 음소글자로 바뀌는데 800년이 걸렸다.

영국의 언어학자 샘프슨(Geoeffrey Sampson)은 음소문자를 넘어선 다음 세대의 문자가 발음하는 발음기관과 문자가 일치하는 소리바탕글자(feature system, 音韻資質文字)인데,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영미권에서는 먼 미래에서나 쓸 소리바탕글자를 한국인은 이미 한글로 쓰고 있다며 경악하였다. 그의 지적처럼, 어금니 모양을 딴 기역자의 음이 어금니에서 나고, 치아의 모양을 딴 시옷자의 음이 치아에서 나오는 문자는 이 세상에 한글 말고는 없다. 마릴린 먼로처럼 서양의 유명인사가 자기 이름 철자를 자주 틀려서 구설수에 올랐지만, 우린 그럴 염려가 없다.

한글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24개 글자를 조합하여 1만 2,768개의 음절을 만들어 온갖 삼라만상이 내는 소리를 그에 가깝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자이다. 게다가 세 개의 문자로 모든 모음을 표기할 수 있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에 따라 아래아(ㆍ)는 하늘, 'ㅡ'는 땅, 'ㅣ'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땅 위에 하늘이 있으면 'ㅗ', 사람 옆에 하늘이 있으면 'ㅏ' 식으로 모음이 구성되기에, 'ㅏ, ㅡ, ㅣ' 세 글자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인보다 빠르고 쉽게 문장과 텍스트를 컴퓨터 키판이나 스마트폰 문자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민족은 없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랴. 복에 겨워서인가. 경전과 의례문은 아직 한문본 일색이고, 지식인과 대중 할 것 없이 영어 낱말을 섞어 사용한다. 거리의 간판을 보면 뉴욕의 뒷골목 같다. 진주 목걸이를 돼지가 차고 다니면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형상이다. 그 진주 목걸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이 가을날, 한글로 경전을 염송하며 단풍이 물든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그지없이 투명하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발언대

유진룡 문체부 장관 부석사 불상 반환 발언

일본에 반출됐다가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부석사 관음보살상을 두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월 27일 일본 문부과학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반환 금지 및 환지본처의 목소리를 내온 불교계와 서산지역에서는 유 장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불교 각계의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지혜롭지 못한 유 장관의 발언"



원우 스님
부석사 관세음보살상 봉안위원회 집행위원장

최근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 '일본 반환' 발언을 한 유진룡 문화체육장관의 발언은 장관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점유 우리 문화재는 7만 5천점에 이르고 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문화재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버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 장관이 이 발언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 친일적 언론이나 학계에서 줄기차게 일본으로의 반환을 주장하는 의견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모든 문화재는 원래의 소장처로 돌아가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조차도 관음상이 화상 파손 흔적 등으로 봐서는 약탈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대마도 관음사 역시 소장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 애초 일본의 약탈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재 환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관음상 역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이 분명하다.

"절도품은 원칙 준수가 답"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에 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불상이 한국에 들어온 과정을 보면 절도를 통해 들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

부석사 불상은 소중한 성보지만 그만큼 소중하기에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지만 일본 반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일본 반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도난으로 일본에서 들어온 것을 일본에 반환하고 이전 일본으로의 반출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본에 요구해 환수받는 것이 옳다. 설령 우리가 부석사 불상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국제규약을 지키고 기본원칙을 지키는데 노력했음을 세계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과거사와 관련해 진실과 양심에 입각한 인식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자신 또한 일관되게 사태를 진실과 양심에 입각해 바라봐야 한다. 일본이라는 특수성에 휘말려 가면 안된다.

일본 노림수에 휘말려서야



혜문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도둑질당한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 상 맞다. 하지만 서산 부석사 불상의 경우 원래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카이진사에서 온 불상과 달리 부석사 불상은 현재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번 사태는 일본 언론 등에서 전략적으로 부석사 불상 반환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반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적인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일본의 전략적인 노림수에 한국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상은 회담 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언론에 바로 알렸다. 국제적인 반환과정을 보면 재판 등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반환하는 사례가 없지만 일본 측은 한국에서 이러한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턱대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화의 흐름에서 정치적으로 불상 반환을 이용하고자 함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일본측의 노림수를 파악하고 국민 모두, 특히 정부가 전략적인 사고를 할 때이다.

社說

한글 사랑, 불교가 나서야 할 이유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서기 1446년 3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세상에 반포함을 기리는 날이다. 해방 이후 1949년 대통령령으로 법정 공휴일로 제정된 이래 꾸준히 기념해오다가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올해 한글날 더욱 뜻 깊다. 꼬박 22년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한글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이다. 한글 창제로 우리 국민은 그간 중국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던 불편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적 발전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한글이 신미 대사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평생을 신미 대사의 연구에 바친 속리산 복천암 월성 스님은 신미 스님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증거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유서(儒書)가 아닌 불서(佛書)를 언해했다는 점 △세종이 신미 스님의 주석처인 복천암을 중수했다는 점 △〈영산김씨세보〉에 신미 스님이 집현전 학사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 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미 대사와 세종대왕의 민초를 위하는 마음이 담긴 한글에 대한 파괴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남용되는 은어부터 축약어까지 더 이상 한글이 아니게 되는 상황까지 번지고 있다.

창제의 주역인 신미 대사를 정작 불교계에서 전혀 조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그나마 조계종이 한글날을 맞아 전통문화글꼴인 '석보체'를 발표하고 '불교와 한글'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불교가 나서서 한글 사랑에 앞장 서야 하는 것은 신미 대사가 남긴 유훈에 대한 실천이며, 나아가 뒤를 이어 한글을 배울 후손들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유영익 국편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해야

한 국가의 역사는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 및 삶의 철학, 종교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역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다. 특히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 앞으로 치러질 대학입시에서 역사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중대성을 무시한 채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벌어져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정 종교 편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10월 1일 취임한 것이다.

유 교수의 종교 편향은 그간 각종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기독교 국가건설을 표명할 정도로 친기독교적 성향을 지닌 이승만 前 대통령을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면서 기독교 장려 정책을 칭송해 왔다. 실제로 유 교수는 각종 기고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형해(形骸)화시키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독실한 신자의 모범이라고까지 극찬했다.

이승만 정부의 기독교 편향 정책들에 대한 학계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가치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잘못된 종교관과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만일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를 관장하는 곳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편향된 종교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정부는 유영익 교수의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셈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 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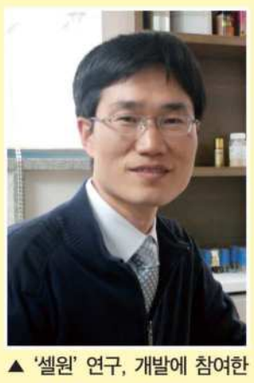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창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